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지정 기념 학술대회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 일시

1부 : 2009년 10월 22일 14:00

2부 : 2009년 10월 23일 09:30

■ 장소 :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후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 일시 1부 : 2009. 10. 22(목) 14:00
2부 : 2009. 10. 23(금) 09:30
- 장소 :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

■ 제1부

사회 배항섭 (고려대 교수)

[기조발표]

- 동학농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연구발표]

-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조형물의 현황과 조성방향

신순철 (원광대학교 교수)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종합토론]

이상식(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천득염(전남대학교 교수)

■ 제2부

사회 신영우 (충북대 교수)

[개 회 식] 개회사 및 축사

[기조발표]

-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 생각한다 -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
나카츠카 아키라 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연구발표]

- 장흥지방 동학농민군과 향촌사회의 동향
- 장흥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석대들전투
-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사가 가지는 의미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김양식 (충북학연구소 소장)
배항섭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종합토론]

홍영기(순천대학교 교수)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위의환(향토사학자)

목 차

- 동학농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
- 조선독립국론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 3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장흥 동학농민혁명, 무엇을 '기억' 하고 어떻게 '기념' 할 것인가 - · 19
신순철 (원광대학교 교수)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조형물의 현황과 조성방향 41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 생각한다
-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63
나카츠카 아키라 中塚 明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 장흥지방 동학농민군과 향촌사회의 동향 73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 장흥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석대들전투 109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소장)
-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사가 가지는 의미
- 향후 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 125
배항섭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자료] 141
 -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나카츠카 아키라)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 제1부 -

동학농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

- 조선 독립국론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

이 이 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머리말 - 열강의 각축장

1. 천진조약과 조선의 출병문제
2. 일본의 지배권 확보와 농민군 토벌작전
3. 대대적인 정토군 환영식
4. 일본군의 청일전쟁 승리와 동아시아의 변동
5. 러시아 세력의 구축과 한일 병합

마무리 - 외세의 배경과 자주국가 건설의 좌절

머리말 - 열강의 각축장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조선은 일본의 강요에 따라 1876년 한일수호조규(韓日修好條規)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일본공사관이 들어서고, 일본의 외교관과 상인이 조선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조규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원산 등 3개 항을 개항했으며 일본인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활동을 벌였다. 이들 일본인을 거류민이라 불렀다.

뒤이어 프랑스·영국·러시아·독일·미국 등과 통상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였다. 이들 국가의 공사관들은 서울 정동을 중심으로 들어섰으며, 개항장에서 통상의 자유는 물론 종교적 선교의 자유도 획득했다. 그러니까 열국의 공사관은 외교만이 아니라 통상, 선교, 여행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광산개발권·산림벌채권, 전차와 전기와 철도의 부설권 등 이권을

남았다.

그런데 청국만은 다른 열강과 다른 노선을 추구했다. 곧 조선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번속(藩屬) 국가이므로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우기고 중국공사관을 설치하는 대신 통상업무 관련 기구인 상관(商館)만을 설치했고 그 총지휘자로 원세개를 파견했다. 원세개는 종전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사대외교(事大外交)와는 달리, 식민지 총독처럼 군림하면서 조선의 중주국 위치에서 조선의 외교권을 행사하려 들었다. 더욱이 1860년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두만강의 녹둔도를 조선과 협의도 없이 러시아령으로 넘겨주는 행태를 보였다. 조선의 개항 이후에는 조선의 외교권을 대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보기로 이홍장이 주선했던 1882년의 조미수교조약을 들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유럽의 발칸반도라는 비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은 한반도의 22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 2천만 미만의 인구, 근대 산업이 개발되지 않은 나라였으나 그 지정학적 위치와 동양 삼국의 중간 지대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거류민이 속속 불어났고 영국·러시아·미국 등 열강의 외교관 선교사 등이 몰려들었다. 1893년 현재, 일본 거류민은 8,559명, 청 거류민은 서울에만 2,500여 명이었으며 미국인은 80여 명이였다. 그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몇 십 명 단위였다.

한편 통상을 통해 사치품과 석유 등 외국의 신문물이 수입되는 대신, 조선의 쌀·콩·소가죽·금은 등 1차 산품인 식량과 원료가 유출되어 농민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했다. 또 농민과 민중은 차츰 외국인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반감을 보이는 배외의식이 짙게 깔렸다.

열강의 패권은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초기 일본에 기선을 제압당했던 청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씨 문벌세력과 결탁해 있던 원세개는 그 막후인물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천진에 유폐시키고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또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친일 개화파와 끈이 닿았던 일본군을 몰아내고 주도권을 잃지 않았으며 무역 등에서 일본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

청나라는 속내로는 조선은 번속이기에 외교는 물론 내정을 지도한다는 정책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표면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으며 열강은 조선은 청나라나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은 조

선의 청 지배권을 배제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속셈이었고 열강은 조선의 이권을 차지하려면 청나라나 일본의 기득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외교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중국 한반도 등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제정 러시아가 동남부 시베리아로 진출하려는 국제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식민지와 조차지를 경영하던 영국은 러시아와 국제적 긴장관계에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가 북동항을 확보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려하자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영국은 1885년 남해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병영과 포대를 건설했다. 이에 러시아가 항의했으나 물러나지 않다가 청국의 개입으로 겨우 철수했다. 이때 이해를 같이하는 프랑스도 영국에 동조했으나 독일과 미국은 한발 물러서 있는 꼴이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중립을 일찍이 선언하고 나섰다.

1. 천진조약과 조선의 출병

전주에서 동학농민군이 후퇴해 집강소 활동으로 들어가자, 조선 정부에서는 청일 두 나라의 출병 조건이 사라졌다고 해 출병 중지를 요청했다. 또 전주를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들도 이런 정세를 파악하고 전주성에서 후퇴해 출병의 조건을 없애려 했다. 결국 패전해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정세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본영의 방침에 따라 영똥하게도 육전대를 상륙시켜 이해 6월 경복궁을 강점하고 이어 흥선대원군을 추대하고 개화정권을 출범시켰다.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개화정권은 일본의 사주에 따라 신속하게 이른바 갑오개혁을 단행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실현시켰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하는 개혁 곧 양반 특권을 배제하는 신분제 철폐, 조세의 금납제로 부정행위의 방지,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제의 철폐 등을 단행했다.

또 개화정권은 일본이 요구하는 전신가설 등 당면의 이권을 넘겨주었으며 심지어 군사 지휘권마저 인계했으며 전쟁 수행 중의 양곡 등 물자의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을 비우고 있던 청군은 손쓸 새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일본군 지휘본부는 용산에 기지를 두고 각지로 출동했는데 인천항 앞바다에 정박하던 일본 군함은 선전포고도 없이 청국 군함을 공격해 침몰시켰다. 아산

일대에 상륙한 청국군과 전투를 몇 차례 벌여 일방적 승리를 기록했다. 청국군 패잔병은 공주 청주 등지를 전전하기도 했고 남쪽으로 분산하기도 했는데 주력 부대는 북상했다. 일본군은 북상하는 청국군을 추격하다가 증파된 청군과 평양에서 대회전을 벌여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일본군은 계속 추격해 압록강을 넘었고 발해만 일대와 황해의 위해(威海) 앞바다에서 벌인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패잔 청국군은 충청도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 농민군에 끼어들기도 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후퇴한 뒤 집강소 활동을 전개했다. 7-8개월 동안 집강소 활동을 벌이면서 반봉건 운동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강소 활동을 부분적으로 전개했다. 더욱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는 정세를 보고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보은집회와 원평집회 이후 척왜양창의기(斥倭洋倡義旗)를 내걸었으나 그 구체적 행동계획은 1차 봉기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의 공작대가 전봉준을 방문해서 조선의 개혁과 동양평화를 역설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의 낭인들(자신들은 俠客이라 불렀다) 천우협(天佑俠)이라 부르는 이들 14명은 일본에서 공작대를 결성하고 부산을 거쳐 조선에 상륙했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다나카 시로(田中侍郎), 승려출신인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등이 인솔한 이들은 집강소 활동을 벌이면서 임실에 머물고 있는 전봉준을 방문했다. 그들은 전봉준에게 조선 개혁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전봉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전봉준이 다시 전주로 와서 집강소를 지휘하고 있을 때 이들은 다시 방문해서 거듭 돕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다시 거절했다.(『동아선각지사기전』 등)

또 일본 육군 군사(軍司)대위 출신인 우미우라 아츠미(海浦篤彌) 등 3명의 공작 패거리들이 전봉준을 만나러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의 금구 원평을 거쳐 능주로 내려갔다. 전봉준은 당시 집강소 조직을 독려하려 전주에서 나와 원평을 거쳐 남도로 내려가 능주에 주재하고 있었다. 일본 공작 패거리들은 전봉준을 향해, 조선의 내정 개혁에 힘을 보내겠다는 것, 조선 독립을 방해하는 청군을 물리치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 따위를 제의했다. 전봉준은 다시 정중하게 거절했다.(『동학당시찰일기』에 나옴)

아무튼 이들은 전봉준의 설득에 실패하고 서울로 잠입하기도 하고 아산만의 일본군에 접근해 청군의 이동 통로와 지형 등 군사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황해도로 진출해 첩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전봉준이 체포되어 서울 일본영

사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나카 시로는 죄수로 가장해 전봉준의 회유에 나서기도 하였고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장문의 편지를 사형선고를 받은 전봉준에게 보내 회유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 또는 사설의 공작대였다. 그래서 사사로이 공작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창원의 일본인 경영의 광산에서 화약을 탈취하기도 했다. 또 민비시해사건에도 끼어들어 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을 일본에서는 선각자 지사 의사라 불렀다.(『東亞先覺志士記傳』 등에 나옴)

말을 돌려, 동학농민군 특히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계열은 집강소 기간 양곡과 무기를 확보하고 농민군들에게 훈련을 거듭한 끝에 이해 9월 2차 봉기에 나섰다. 2차봉기에서는 분명하게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전면적 항거와 일본의 하수인인 개화정권의 타도를 내걸었다. 일본군의 토벌작전은 치밀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 토벌군의 진로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처음에는 용산에 주둔한 독립 18대대를 투입했다가 곧이어 후비보병 제19대대로 교체했다. 대대장 미나미고시로(南 小四郎)가 지휘하는 19대대는 남진의 진로를 3부대로 편성했다.

이들 일본군은 조선의 중앙군 곧 신식훈련을 받고 신식 총으로 무장한 교도중대, 경리청, 통어영, 장위영 등의 부대를 각 중대에 배속시켰다. 또 이해 9월 조선정부에서 토벌군의 총지휘로 순무영(巡撫營)을 발족시켜 좌선봉장 이규태, 우선봉장 이두황을 임명하고 일본군과 협력해 토벌전에 나서게 했을 때 이들의 작전 지휘권도 행사했다.

서로 진군부대는 천안을 거쳐 공주로 진군하면서 이규태를 데리고 다녔고, 중로 진군부대는 평택을 거쳐 청주로 진군하면서 중간에 서로군과 협력하게 했다. 동로 진군부대는 경기를 벗어나 충주로 진군하면서 현지 조선의 협력을 얻게 했다. 정토군(征討軍)의 총 지휘관은 일본군 소좌인 미나미고시로(南小四郎)이었다.

이들 삼로군 외에 시시각각 변하는 작전에 따르게 했는데 황해도 해주 일대에 1개 중대, 제천에서 강원도 일대에 1개 중대, 부산에서 해군 육전대를 통영을 거쳐 진주 하동으로 진출하게 했다. 각 부산에서 서울에 14개 병참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켜 전선을 가설해 보호하고 지역 소요에 출동시켰다.

일본 정토군(征討軍)의 작전 계획은 조선의 요로를 완전 장악해 농민군의 활동 진로를 차단하고 농민군 연합을 가로막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경상도와 충청도 농민군이 강원도 산악지대로 진출하는 길을 막고, 황해도 농민군과 평안도 농민군 연합을 막으며, 부산 대구의 통로를 석권해 농민군을 남해 쪽으로 밀

어내며, 마지막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몰려오는 농민군을 남해안으로 몰아내 섬멸한다는 것이다. 농민군이 섬으로 들어갈 경우, 도가니에 들어간 쥐를 색출해 완전 소탕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농민군 주력부대는 공주·논산·원평·태인전투를 치른 뒤 분산했다. 당시 호남지역에는 농민군의 네 권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때 나주는 농민군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손화중·최경선·오권선 등은 광주를 방어하고 있으면서 나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또 배상옥 등은 무안 해남 영암에 웅거하면서 집강소 활동을 벌였다. 한편 김인배·유하덕 등 지도자는 순천 광양에 웅거하면서 섬진강을 넘어 하동 진주로 진출했다가 마지막 여수 좌수영 공격에 나섰다. 또 장흥 강진일대에는 이방언(李方彦)·이인환(李仁煥)·이사경(李士景)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집강소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공주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배상옥은 손화중과 연합해 나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해 10월 나주에 호남초토영이 설치된 뒤 손화중은 복상, 최경선은 체포되었지만 잔여 농민군은 화순·능주를 거쳐 장흥일대로 진출했고 배상옥은 해남에서 체포되었으나 잔여 농민군은 장흥일대로 합류했다. 또 여수 좌수영 공격에 실패한 김인배·유하덕은 수성군에 체포되었으나 잔여 농민군은 장흥으로 합류했다.

이런 속에서 우선봉 이두황은 보성 순천에서 장흥으로 진군하면 순천 농민군의 합류를 막았으며 좌선봉 이규태는 무안 영암 등지에서 배상옥 농민군의 장흥진출을 막았다. 부산 주둔의 일본군은 섬진강에서 부산으로 귀환했으나 군함 쓰쿠바(筑波號) 등 2척의 군함은 인천에서 이동해 남해로 진출하면서 여수 좌수영을 지원했고 이어 이들 육전대가 상륙하거나 섬을 순회하면서 농민군 색출에 나섰다.

미나미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철저하게 장흥작전을 수행하면서 나주 초토영에 별도의 지휘부를 설치하고 농민군 지도자의 체포와 신병 확보와 심문을 맡았다가 중죄인을 가려 서울로 압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장흥전투에 나타난 일본군 활동의 개요이다.

2. 전봉준 회유공작과 농민군 토벌작전

전주에서 동학농민군이 후퇴해 집강소 활동으로 들어가자, 조선 정부에서는

청일 두 나라의 출병 조건이 사라졌다고 해 출병 중지를 요청했다. 또 전주를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들도 이런 정세를 파악하고 전주성에서 후퇴해 출병의 조건을 없애려 했다. 결국 패전해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정세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본영의 방침에 따라 영동하게도 육전대를 상륙시켜 이해 6월 경복궁을 강점하고 이어 흥선대원군을 추대하고 개화정권을 출범시켰다.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개화정권은 일본의 사주에 따라 신속하게 이른바 갑오개혁을 단행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실현시켰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하는 개혁 곧 양반 특권을 배제하는 신분제 철폐, 조세의 금납제로 부정행위의 방지,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제의 철폐 등을 단행했다.

또 개화정권은 일본이 요구하는 전신가설 등 당면의 이권을 넘겨주었으며 심지어 군사 지휘권마저 인계했으며 전쟁 수행 중의 양곡 등 물자의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을 비우고 있던 청군은 손쓸 새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일본군 지휘본부는 용산에 기지를 두고 각지로 출동했는데 인천항 앞바다에 정박하던 일본 군함은 선전포고도 없이 청국 군함을 공격해 침몰시켰다. 아산 일대에 상륙한 청국군과 전투를 몇 차례 벌여 일방적 승리를 기록했다. 청국군 패잔병은 공주 청주 등지를 전전하기도 했고 남쪽으로 분산하기도 했는데 주력 부대는 북상했다. 일본군은 북상하는 청국군을 추격하다가 증파된 청군과 평양에서 대회전을 벌여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일본군은 계속 추격해 압록강을 넘었고 발해만 일대와 황해의 위해(威海) 앞바다에서 벌인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패잔 청국군은 충청도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 농민군에 끼어들기도 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후퇴한 뒤 집강소 활동을 전개했다. 7-8개월 동안 집강소 활동을 벌이면서 반봉건 운동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강소 활동을 부분적으로 전개했다. 더욱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는 정세를 보고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보은집회와 원평집회 이후 척왜양창의기(斥倭洋倡義旗)를 내걸었으나 그 구체적 행동계획은 1차 봉기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의 공작대가 전봉준을 방문해서 조선의 개혁과 동양평화를 역설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의 낭인들(자신들은 俠客이라 불렀다) 천우협(天佑俠)이라 부르는 이들 14명은 일본에서 공작대를 결성하고 부산을 거쳐 조선에 상륙했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다나카 시로(田中侍郎), 승려출신인 다께다 한시(武

田範之) 등이 인솔한 이들은 집강소 활동을 벌이면서 임실에 머물고 있는 전봉준을 방문했다. 그들은 전봉준에게 조선 개혁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전봉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전봉준이 다시 전주로 와서 집강소를 지휘하고 있을 때 이들은 다시 방문해서 거듭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봉준은 다시 거절했다.(『동아선각지사기전』 등)

또 일본 육군 군사(軍司)대위 출신인 우미우라 아츠미(海浦篤彌) 등 3명의 공작 패거리들이 전봉준을 만나러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의 금구 원평을 거쳐 능주로 내려갔다. 전봉준은 당시 집강소 조직을 독려하려 전주에서 나와 원평을 거쳐 남도로 내려가 능주에 주재하고 있었다. 일본 공작 패거리들은 전봉준을 향해, 조선의 내정 개혁에 힘을 보내겠다는 것, 조선 독립을 방해하는 청군을 물리치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 따위를 제의했다. 전봉준은 다시 정중하게 거절했다.(『동학당시찰일기』에 나옴)

아무튼 이들은 전봉준의 설득에 실패하고 서울로 잠입하기도 하고 아산만의 일본군에 접근해 청군의 이동 통로와 지형 등 군사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황해도로 진출해 첩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전봉준이 체포되어 서울 일본영사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나카 시로는 죄수로 가장해 전봉준의 회유에 나서기도 하였고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장문의 편지를 사형선고를 받은 전봉준에게 보내 회유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 또는 사설의 공작대였다. 그래서 사사로이 공작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창원의 일본인 경영의 광산에서 화약을 탈취하기도 했다. 또 민비시해사건에도 끼어들어 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을 일본에서는 선각지사 의사라 불렀다.(『東亞先覺志士記傳』 등에 나옴)

말을 돌려, 동학농민군 특히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계열은 집강소 기간 양곡과 무기를 확보하고 농민군들에게 훈련을 거듭한 끝에 이해 9월 2차 봉기에 나섰다. 2차봉기에서는 분명하게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전면적 항거와 일본의 하수인인 개화정권의 타도를 내걸었다. 일본군의 토벌작전은 치밀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 토벌군의 진로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처음에는 용산에 주둔한 독립 18대대를 투입했다가 곧이어 후비보병 제19대대로 교체했다. 대대장 미나미고시로(南 小四郎)가 지휘하는 19대대는 남진의 진로를 3부대로 편성했다.

이들 일본군은 조선의 중앙군 곧 신식훈련을 받고 신식 총으로 무장한 교도중대, 경리청, 통어영, 장위영 등의 부대를 각 중대에 배속시켰다. 또 이해 9월 조선정부에서 토벌군의 총지휘로 순무영(巡撫營)을 발족시켜 좌선봉장 이규태,

우선봉장 이두황을 임명하고 일본군과 협력해 토벌전에 나서게 했을 때 이들의 작전 지휘권도 행사했다.

서로 진군부대는 천안을 거쳐 공주로 진군하면서 이규태를 데리고 다녔고, 중로 진군부대는 평택을 거쳐 청주로 진군하면서 중간에 서로군과 협력하게 했다. 동로 진군부대는 경기를 벗어나 충주로 진군하면서 현지 조선의 협력을 얻게 했다. 정토군(征討軍)의 총 지휘관은 일본군 소좌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이었다.

이들 삼로군 외에 시시각각 변하는 작전에 따르게 했는데 황해도 해주 일대에 1개 중대, 제천에서 강원도 일대에 1개 중대, 부산에서 해군 육전대를 통영을 거쳐 진주 하동으로 진출하게 했다. 각 부산에서 서울에 14개 병참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켜 전선을 가설해 보호하고 지역 소요에 출동시켰다.

일본 정토군(征討軍)의 작전 계획은 조선의 요로를 완전 장악해 농민군의 활동 진로를 차단하고 농민군 연합을 가로막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경상도와 충청도 농민군이 강원도 산악지대로 진출하는 길을 막고, 황해도 농민군과 평안도 농민군 연합을 막으며, 부산 대구의 통로를 석권해 농민군을 남해 쪽으로 밀어내며, 마지막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몰려오는 농민군을 남해안으로 몰아내 섬멸한다는 것이다. 농민군이 섬으로 들어갈 경우, 도가니에 들어간 쥐를 색출해 완전 소탕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농민군 주력부대는 공주·논산·원평·태인전투를 치른 뒤 분산했다. 당시 호남지역에는 농민군의 네 권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때 나주는 농민군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손화중·최경선·오권선 등은 광주를 방어하고 있으면서 나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또 배상옥 등은 무안 해남 영암에 웅거하면서 집강소 활동을 벌였다. 한편 김인배·유하덕 등 지도자는 순천 광양에 웅거하면서 섬진강을 넘어 하동 진주로 진출했다가 마지막 여수 좌수영 공격에 나섰다. 또 장흥 강진일대에는 이방언(李方彦)·이인환(李仁煥)·이사경(李士景)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집강소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공주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배상옥은 손화중과 연합해 나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해 10월 나주에 호남초토영이 설치된 뒤 손화중은 복상, 최경선은 체포되었지만 잔여 농민군은 화순·능주를 거쳐 장흥일대로 진출했고 배상옥은 해남에서 체포되었으나 잔여 농민군은 장흥일대로 합류했다. 또 여수 좌수영 공격에 실패한 김인배·유하덕은 수성군에 체포되었으나 잔여 농민군은 장흥으로 합류했다.

이런 속에서 우선봉 이두황은 보성 순천에서 장흥으로 진군하면 순천 농민군의 합류를 막았으며 좌선봉 이규태는 무안 영암 등지에서 배상옥 농민군의 장흥진출을 막았다. 부산 주둔의 일본군은 섬진강에서 부산으로 귀환했으나 군함 쓰쿠바(筑波號) 등 2척의 군함은 인천에서 이동해 남해로 진출하면서 여수 좌수영을 지원했고 이어 이들 육전대가 상륙하거나 섬을 순회하면서 농민군 색출에 나섰다.

미나미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철저하게 장흥작전을 수행하면서 나주 초토영에 별도의 지휘부를 설치하고 농민군 지도자의 체포와 신병 확보와 심문을 맡았다가 중죄인을 가려 서울로 압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장흥전투에 나타난 일본군 활동의 개요이다.

3. 대대적인 정토군 환영식

하지만 아직도 하나 빼놓을 없는 남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

장흥전투가 끝난 뒤 2월 중순, 일본군의 원대 귀환령을 내렸다. 다시 설명하면 정토군 제19대대의 제1중대와 장위영병 2중대로 구성된 동로분진대, 제19대대의 제2중대와 제18대대의 일부 부대와 교도중대 및 19대대의 본대로 만들어진 서로 분진대, 제19대대의 제3중대와 장위영병 300명으로 구성된 중로 분진대, 그리고 황해도에 출동했던 일본군 등, 이들 일본군과 조선군 전원이 군부 대신 조희연(趙羲淵)의 환영을 받으면서 2월 28일(양력) 오후 4시가 넘는 시각, 용산 만리창 들판에 정렬했다. 눈이 흘날리고 있었다. 모인 장병은 2천여 명이 되었다.

군무협관 권재홍은 지휘관 미나미 소좌에게, “이웃 나라의 친분으로 이 오한의 날씨에 험준한 산곡을 지나 많은 고난을 거쳐 우리나라를 위해 동학당 비도를 초토하고 우리나라의 치안을 보존하며 우리 백성을 도탄의 고통 속에서 구하니 짐은 깊이 그 높은 뜻을 찬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적혀 있는 임금의 유시를 전달하자 미나미는 이를 전군을 향해 봉독하고 나서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는 특별히 불초 등이 동학당 토벌의 공을 이르시어 개선함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칙어를 주시니 일동은 모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답사를 했다. 미나미의 선창으로 모든 군인들이 “대군주 폐하만세”와 “대일본 황제폐하만세”를 삼창했다.

다음날 오후 고종은 일본군 장교 35명과 용산수비대장·경성수비대장·인천 병참사령관·용산병참사령관 등 주둔 일본군 장교를 경복궁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정토의 실상을 들었다. 이노우에 일본공사도 동행했다. 연회 자리에는 왕태자를 비롯해 총리 그리고 여러 대신들이 배석했다. 고종은 먼저 일본 장교들의 전공을 낱낱이 듣고 치하를 했으며 다음으로 조선군 장교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참석자 모두 대군주 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나자, 내무대신 박영효가 일어나 잔을 들고 다음과 같은 환영사를 했다.

제군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일을 보는 듯 우리나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여러분의 덕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일대 우환인 동학의 대내란을 진정시킨 것은 성심을 다해 국가를 위해 한 일로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대판 조일신문 양 1895년 3월 15일자 에 나옴)

다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고 질편한 요리와 맛있는 술로 여흥을 즐겼다. 이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와 다시 본영에서 환영 잔치를 벌였다. 또 미나미 소좌와 황해도 정토를 지휘한 나카야마 중위, 스즈키 소위 등이 의정부에서 대신들과 협판들과 고위 관리 및 외국 고문관을 모아놓고 토벌의 전망을 알려주는 자리도 베풀었다. 이들은 연달아 초대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과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이럴 때 동학농민군과 그 가족들은 수성군 민포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산골이나 섬으로 도망쳐 기아에 허덕이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 개화정권의 정토군 환영 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군의 승리를 축하하는가, 고종과 조선의 안녕을 위한 것인가?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적 모순과 갈등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4. 일본군의 청일전쟁 승리와 동아시아의 변동

한편 청일전쟁의 승리를 확신한 일본은 내친 김에 군사를 중국 남쪽 바다에 투입해 대만(臺灣)과 팽호(澎湖)열도에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일본군은 신속하

게 두 지역을 석권했다. 앞뒤로 완전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작전이었다. 이 해 3월에 들어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군사적 우월을 확인했는데도 왜 북경 등 중국 본토에 상륙하지 않고 휴전을 하고 강화를 서둘렀는가? 당시 중국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문제로 혁명운동이 일어나는 조짐이 팽배했다. 이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봉건왕조는 타도되고 강력한 민국(民國)이 태동되어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는 역사적 코스를 밟게 된다. 열강은 이를 두려워했다.

국제문제로는 열강이 일본이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고 청제국이 와해하는 결과를 우려했다. 게다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열강은 중국 침략에 장애가 온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더 약해지면 침략에는 손쉬울지 모르겠으나 “아시아의 헌병”을 자처하는 영국은 오히려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국제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은 일본은 북경상륙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뒤 전쟁 배상에 나섰다. 치욕의 패배를 겪은 이홍장은 풀이 죽은 모습을 하고 1895년 3월경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갔다. 대청국의 총리대신이요 노정치가인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위세 앞에 한 마리의 양순한 원숭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해 4월 17일에는 강화조약이 성립되었고 이어 이해 8월 1일에는 시모노세키(馬關)조약의 조인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조선의 지배권을 확립한다.
- 2) 요동반도와 대만과 땡호제도를 분할한다.
- 3) 배상금은 2억냥(일본 화폐 3억엔)으로 한다.
- 4) 일본에게 다른 열강과 동등한 특권을 인정한다.

이를 다시 요약해 설명하면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문서』에 나옴)

일본은 경복궁 쿠데타를 통해 괴뢰정부인 개화정권을 탄생시켜 내정간섭을 확보하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해 군사적으로 실질적 지배를 강화했다. 이어 청일전쟁을 도발해 약 7개월 동안 전쟁을 벌인 끝에 조선에서 청의 종주국 주장을

배제하고 덩으로 세 지역의 땅을 확보했다. 따라서 일본군이 명치유신 이후 조선을 향한 정한론(征韓論)을 펴고 청을 겨냥한 동양평화론을 주장해 왔는데 일거에 이를 실현시킨 것이다.

하지만 열강은 2단계로 이를 국제문제로 등장시켰다. 이를 지켜본 러시아·프랑스·독일은 일본을 향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따위로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영국·러시아·독일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나왔다. 마침내 영국·프랑스·독일은 일본에 강요해 예의 동양평화를 들고 나와서 요동의 할양을 방해했으며 러시아는 더욱 강경해 요동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더 버티지 못하고 요동을 반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는 분쟁의 꼬투리를 연출했으나 조선의 국내문제에는 실질적 지배를 시도했다. 열강의 간섭을 지켜본 고종과 왕비는 새로운 설계를 모색했다. 친러파를 동원해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간파하고 접근케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벼랑 끝 외교라 부른다. 일본은 이를 간파하고 외교관과 낭인패와 친일파를 동원해 1895년 8월 왕비를 살해했다. 민비살해사건은 국내와 국외문제로 떠올랐다.

5. 러시아 세력의 구축과 한일병합

전통유림은 일본군과 개화정권에 협조해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그 근본 명분은 동학농민군이 왕조를 타도하고 봉건신분질서를 타파한 것에 두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본의 아니게도 침략세력인 일본에 협조하는 꼴이 되었다. 이들은 개화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임을 알고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개화정권이 양복을 입게 하는 복제개정을 단행하고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공포하자 반감은 극도에 이르렀다. 민비시해사건은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전통유림은 복수보형(復讎保形, 민비시해에 대한 복수와 형체를 보존하는 보형)의 깃발을 내걸고 의병을 봉기했다. 이들 의병활동은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동학농민군의 합류를 차단하고 신분질서를 고수한다는 따위 주장을 내세운 탓으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친러파를 끼고 조선에서 일본세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조선은 러시아의 국제역학에 기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의 선포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실체가 없는

꺾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만 광무개혁 등 내재적 발전을 도모했지만 시대적 요청인 입헌군주제의 거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시민적 개혁 코스를 탄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남쪽 진출이 활발해지자 또 다시 “아시아의 헌병”인 열강은 민활하게 움직였다. 일본은 “아시아의 헌병”을 무시하고는 대륙진출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아시아 헌병”의 첫째 자리에 있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 아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조선의 일본 침략을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이 태평양의 필리핀 등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른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한 일본은 마음 놓고 1904년 러시아에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런 결과 러시아는 일패도지(一敗塗地)하고 한국에서 패권을 내놓고 물러났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했다. 이어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서 한국의 외교를 지휘했다. 대한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공사관을 철수했다.

이토오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는 한국통감부에서는 한국의 외교권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차관을 배치해 실제적 행정을 담당케 하기도 하고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등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1909년 청과 이른바 간도신협약(間島新協約)을 맺어 백두산 정계(定界)와 간도 등 국경을 정의 요구대로 인정하는 대신 남만주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撫順炭鑛) 개발권을 따내 대륙(만주)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일제 침략세력은 마침내 1910년 꺾데기만 남은 구한국을 병합해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1876년 개항과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는 34년, 동학농민전쟁부터는 16년만에 끈질긴 침략공작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마무리- 외세배격과 자주국가 건설의 좌절

동학조직은 광화문 상소운동 이후 서울의 벽보, 보은-원평집회에서 최양척외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1차 봉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곧 일본 상인의 전면적 공격이나 신부 선교사의 축출 등을 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적 산발적 사건만이 있었다. 그러나 2차 봉기에서는 분명하게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당시 일본이 경복궁 쿠데타와 개화정권을 출범시켜 구체적 침략의 길

을 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농민군의 전선이 정리된 것이다. 청군이 출병할 적에 민씨의 요청을 구실로 내걸었으나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흥선대원군과 밀약해 청군이 민씨 타도에 동의하고 동학농민군을 지원세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설이 있었다. 따라서 청군과 동학농민군은 이 단계에 와서는 청군을 배척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민씨의 우두머리인 민영준 민영익이 망명한 마당에 다른 민씨들은 동학농민군과 연결해 일본군 축출에 힘을 보태려 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떠돌았다. 새로운 대일전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토벌을 성공하고 청일전쟁을 승리로 끝낸 일본은 개화정권을 주물러 완전하게 계획을 마무리했다. 그리하여 농민군의 자주국가 건설은 실패로 끝났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농민전쟁이 발발해 일본군과 청군이 개입했고 그 결과 식민지를 앞당겼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계획을 간과한 천박한 논리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농민전쟁이 전개되지 않았어도 일본의 대륙침략 구도는 중지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1895년 2월 20일(양 3월 16일) 법무아문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 8도는 다시 한 사람의 의사가 나와 나의 뜻을 이어 우리 국가를 멀리 일본의 병탄 아래 놓이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이 이에 미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결연히 말했다.(「大阪 朝日新聞」 95년 3월 17일자,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책)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의 자주국가 수립과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의지는 확고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개화파들이 친일적 행각을 벌이고 전통유림이 농민군 타도를 위해 개화정권에 야합하는 역사 환경에서 농민군이 처절하게 항일전선에 나온 역사 경험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더욱이 금년은 간도신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요, 내년은 한일협합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아픈 역사를 반성하는 좋은 기억이 될 것이다.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 장흥 동학농민혁명,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

신 순 철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2.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 1) 석대들 전투의 성격
 - 2) 석대들 전투의 역사적 의의
 3.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III.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
 -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복원하는 사업
 - 2)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
 - 3) 지역주민에 참여와 지역주민을 위한 기념사업
 - 4) 관용과 연대에 기초한 기념사업
 2.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 1)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부각시키는 기념사업
 - 2) 역사성과 현장성을 살리는 기념사업
 - 3) 새로운 기념문화 양식을 창조하는 기념사업
 3. 기념사업의 추진방법
 - 1) 먼저 학술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2) 전문가를 포함하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 3) 수요자 중심의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 4) 시설은 관리운영 대책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 IV. 맺음말

I. 머리말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2009년 5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사적 범위는 석대들 전투 현장인 장흥읍 남외리 충렬리 일대의 52 필지 35,700㎡이다. 이 가운데에는 석대를 포함하여 장흥읍성의 남문 밖의 격전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전투에서 사망한 97명의 수성군 장졸들의 사당인 영회당이 포함되었다.¹⁾ 그러나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인근에 있었던 1천여 기의 농민군 무덤은 체육시설 공사로 인해 이장되었기 때문에 사적지 지정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석대들 전투지 외에도 장흥군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또한 장흥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물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 유일하다.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구전은 1910년대 이래로 꾸준히 단편적으로 잡지의 기고문이나 천도교측의 문헌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술연구는 박맹수의 「장흥동학농민혁명사」²⁾, 우윤의 「장흥-강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연구」³⁾, 표영삼의 「장흥지역 동학혁명」⁴⁾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외에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문화재 검색 및 문화재지리정보 검색에 공개된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사적 제498호, 명칭/장흥석대들전적지(長興石臺들 戰蹟地), 분 류/유적건조물 / 정치국방/전적지/ 동학전적지, 면적/35,700㎡, 지정일/2009.05.11, 소재지/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시대/조선시대, 소 유 자/국·공·사유, 관리자/장흥군, <일반설명/전문설명>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 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율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파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의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정읍 황토현 전적지(사적 제295호)와 공주 우금치 전적지(사적 제387호), 그리고 장성 황룡 전적지(사적 제406호)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pp. 95~267

3) 호남문화연구소, 『호남문화연구』 23집, 1995, 전남대

자료집의 성격을 지닌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⁵⁾과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I, II권 (2009)이 있으나 학술연구 성과로 보기에 몇 가지 부족함이 있다.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소개는 앞의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박 교수는 위 글에서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료 30여 종, 농민군 참여자 및 동학접주 100여 명과 수성군 및 관군 130여 명의 인명록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37개소를 소개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에도 20여 개소의 유적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의 자료와 다른 몇 개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계획과 관련된 용역보고서⁶⁾가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이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바탕으로 장흥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이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방향, 그리고 장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기념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이 지역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의 단서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방법에까지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각 자치단체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⁷⁾들을 참조할 것이다.

II.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건이 지나는 역사적 의의와 맞닿아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조선후기부터 쌓인 봉건적 모

4) 표영삼, 「장흥지역 동학혁명」, 『교사교리연구』 제3호, 1999.

5) 장흥군이 석대들 사적지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6)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2006

7)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 2005;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2007

순의 누적과 외세 침략의 위기에서 비롯된 전국적인 규모의 농민항쟁이자 민중운동이었다. 나아가 이 시기는 봉건국가체제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실현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켜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당시의 역사과제 실현에 적절하게 부응한 민중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규정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인 차별과 억압과 수탈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민중들의 반봉건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과 수탈이 없는 사회,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 정직하고 청렴한 관료기풍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한 반침략운동이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저항한 반외세운동의 성격만 가지는 것은 아니라, 서구의 근대적 침략에 대한 거부운동이기도 했다. 따라서 갑오년 이후 외세의 개입과 외국 문물에 메몰되었던 한국근현대사의 현실은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세계사적 보편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독일 농민전쟁이나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 함께 중세 말, 근대이행기에 발발한 아래로부터의 민중항쟁으로 그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나아가 세계사의 변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군의 뜻과 달리 청일전쟁의 발발을 가져왔고, 청일전쟁의 결과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일본이 그 중심으로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중국은 반식민지로, 한국은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집강소를 통한 농민권력의 경험은 이후 한국 근대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봉건국가권력과 부패한 관료들로부터 오로지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스스로 폐정개혁에 참여한 경험은 비록 그것이 짧은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근대적인 농민의식의 성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2.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장흥동학농민혁명은 상징은 석대들 전투였다. 전봉준 김개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역 농민군 주력은 1894년 11월 초순, 공주와 청주 점령이 좌절되고 일본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12월 초순에 이르면 농민군 지도자 대부분이 피체되어 농민항쟁의 불씨가 꺼져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관군과 일본군에 쫓겨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던 농민군들이 다시 역전의 계기를 노린 전투가 석대들 전투와 장흥성 점령이었다. 이 전투는 장흥 강진 보성 등지의 농민들과 합세한 최후의 전승지이다.

1) 석대들 전투의 성격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우금치 전투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이 전투에 참여한 농민군의 규모가 3만 명이나 되고⁸⁾ 양측의 사망자 수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투 규모는 황토현 전투나 황룡 전투를 능가하는 규모여서 우금치 전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다.

석대들 전투는 농민군 진영에 있어서 전주성 점령과 황해도 해주성 점령 이후 최대의 승리였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있어서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와 황룡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전주성도 점령하였다. 농민군 최대의 승리였다. 또한 가을에는 11월에 해주성을 점령한 바 있었다. 그러나 우금치 패전 이후에는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2월 말에 시작된 석대들 전투 승리와 장흥부성 점령, 그리고 강진 병영성과 벽사역 등의 인근 지역을 차례로 점령한 사실은 농민군 최후의 승전이었다.

석대들 전투의 성격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였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가을봉기는 전봉준의 호남 농민군 세력과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 농민군 연합세력이었다. 이 시기에 각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군 세력은 지역단위의 지도부를 조직하고 각지에서 대규모 농민봉기를 이끌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해도 지역, 태안·서산 지역, 강원도 홍천·강릉 지역, 경상도 북서부 지역, 전라도 남해안 지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8) 『순무선봉진등록』, 12월 15일조

각 지역의 농민봉기는 10월 하순에 시작되어 12월 초순 우금치 전투가 좌절된 이후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대부분 흩어졌다.

그러나 장흥 전투는 그 이후인 189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어 1895년 1월 10일까지 항전을 계속하였다. 이는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의 농민군 핵심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 벌어진 전투라는 점에서 장흥지역 농민군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석대들 농민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전라남도 남해안 각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관군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산발적인 전투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895년 5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2) 석대들 전투의 역사적 의의

석대들 전투의 가장 큰 의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들의 역사인식 전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인식은 1894년 1월 고부봉기에서 비롯되어 그해 11월 초 우금치 전투에 패전함으로써 끝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금치 전투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가 모두 체포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서술이나 학교교육 과정에서 장흥전투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장흥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 초순까지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의 산발적인 농민군 항전은 1895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황해도 지역의 농민군은 7월까지도 항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듬해인 1895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아직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고 학계에서조차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주력 중심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곧 갑오년 농민혁명은 우금치 전투로 끝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 군현 단위 연구의 부진에 있었다.

한편으로 장흥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수성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장흥지역의 사례는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지역 사례로서,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

3.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는 2009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석대들 전투지를 비롯하여 약 30여 개소에 이른다. 앞의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 제시된 37개소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에 제시된 20개소⁹⁾를 검토하여 그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감안하여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적지명	성격	위치	비고
석대들 전투지	전투지	장흥읍 남외리, 충열리 일대	사적 제498호
석대	전투지	장흥읍 남외리 석대	사적 제498호
장흥읍성	전투지	장흥읍 동동리 등 4개리	
도르뫼 들판	농민군훈련지	용산명 접정리 2구 목촌	
자라번지 터	장흥집강소 터/전투지	부산면 금자리 효자마을 앞	
옥산 전투지	전투지	관산읍 옥산리 일대	
흑석장터	농민군 집결지	장평면 봉림리 장터	
사창 터	농민군 주둔지	장평면 용강리 2구 창물	
모정등	농민군 주둔지,이인환	장흥읍 건산리 2구	
사인점	농민군 주둔지	장흥읍 송암리 부근	
회령진성	농민군 점령지	회진면 회령진	
용암산루	농민군 은신처	회진면 용암산	
장대	농민군 처형지/관군 조련	장흥읍 양양리 서초등교	
벽사역 터	농민군 처형지	장흥읍 축내리 제암장가든	
무명농민군 묘지군 터	무명농민군 묘지 터	장흥읍 충열리 운동장 인근	

9)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 pp.224~131

유적지명	성 격	위 치	비 고
무명농민군 묘역	무명농민군 묘지	장흥읍 공동묘지	
자술재	농민군 퇴각로	용산면 어산리 1구	
빈재	농민군 교통로	유치면 부사면의 경계	
이방언 묘소	농민군 지도자	용산면 접정리 2구 묵촌	
이사경 묘소	농민군 지도자	용계면 와리 지와물	
관산 고읍	김학삼 근거지	관산면 고읍리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농민군 추모탑	장흥읍 충렬리 산8	
평근당 터	장흥관아 터	장흥읍 동동리 장원아파트	
영희당	수성장졸 사당	장흥읍 예양리 78	사적 제498호
수성장졸순절비	수성군 97명 순의비	장흥읍 예양리 78	
김일원 불망비	관군 공로자	장흥읍 예양리 78	
이용태 애사비	장흥부사	장흥읍 교촌리 향교 앞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군 관련 유적지가 20여 개소, 관군 관련 유적지가 5개소에 이른다. 이들 유적지는 문헌근거와 현장조사 및 구술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위치의 고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유적지를 유형별로 나누고 다시 각 유적지를 중요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상 인근 지역으로 편입된 곳 가운데 강진병영의 경우에는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청이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가운데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현재 체육관과 운동장 부지에 있었던 무명농민군 무덤을 훼손한 일이다. 비록 이장은 했다고 하더라도 100년 전 장흥 석대들 전투과정에서 이름도 없이 숨겨간 1,500여 명의 농민군 묘지는 후손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석대들 현장을 떠나버린 것이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장된 농민군 묘역에 참배와 추모시설과 더불어 원래의 묘역 터를 확인할 수 있는 표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Ⅲ.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반농민군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갑오년 이후 각 지역단위로 반농민군 희생자의 비석을 세우거나 희생자들의 사당을 세우는 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기념사업이었다. 장흥의 영희당이나 청주의 모충사, 금산의 순의단과 민보군지도자들의 순의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63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농민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정읍과 충남 태안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정읍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기념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민군 기념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 기념사업 단체가 창립되고 이들 기념사업단체가 연합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가 발족됨으로써 기념사업의 외연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각 지역단위의 기념식과 추모행사 중심의 기념사업은 이 시기에 이르러 음악, 무용, 창극 등의 예술창작과 공연행사, 학술행사, 대중 참여행사, 청소년 참여행사 등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념관, 기념조형물, 역사공원 등의 시설물 설치사업도 자치단체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기념사업의 추진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기념행사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기념시설이나 조형물의 설치에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착수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원칙이나 방향에 관한 논의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전라북도(1998)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2005), 충청북도(2007) 등의 용역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원칙이나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

동학농민혁명은 그 사건 당시로부터 기념의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룬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대까지 만 해도 동학도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명칭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 특별법에 의해 이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상징적인 조치가 있었으나 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첫 출발점이자 의병운동과 독립투쟁, 식민지 시대의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왜곡된 한국근대사상을 바로잡는데 있으며 동시에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가져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복원하는 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농민군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 오랜 세월동안 이 땅의 농민들을 억압했던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했던 농민들의 저항정신이 우리시대에 가지는 의미를 반조할 수 있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민족민중혁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데는 무려 1백여 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동학농민혁명은 발발 이래 11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 없이 권력을 재생산해온 지배자들의 편견과 억압으로 인해 그 본의가 왜곡되었다. 이러한 편견과 억압 또는 왜곡의 역사 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고 그 정신은 한국현대사의 민중민족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민족사의 지평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그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의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농민혁명의 역사를 반외세 반봉건 농민항쟁으로만 역사화 할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의 자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농민군이 추구한 사회는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사회, 모든 억압과 차별이 없는 관용의 사회,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균산에 입각하여 상생하는 민중적 유토피아였다. 이를 위해 농민군은 인간성을 상실한 지배층의 억압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맞섰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꿈은 동학사상과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꿈과 희망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땅과 생업을 지키고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서구적 근대가 가져온 자연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지향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혁명이었으므로 기념사업은 당연히 민족사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적 상징을 만들어가는 사업, 특히 상생과 평화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3) 지역주민에 참여와 지역주민을 위한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지역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주민들의 주권과 행복을 증진하는 기념사업이 되어

야 한다. 최근 각 지역 기념사업 단체들은 시민운동 단체로서의 활동성이 크게 떨어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시민운동적 근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시민) 주체성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념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관료주의적 사업관행과 성과위주의 기념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 관용과 연대에 기초한 기념사업

동학농민군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관군 측에 화해와 협력을 제의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정신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념사업은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기초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결과는 농민군뿐만 아니라 수성군의 희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간 장흥의 기념사업은 영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성군 측의 추모사업만 있었을 뿐 농민군의 희생은 잊혀 있었다. 그 결과는 1천 명 이상의 무명농민군 묘지가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해 장흥에도 추모탑이 건립되면서 농민군에 대한 기념사업이 공론화 되었고 2004년 특별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제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농민군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관군 측 희생자의 추모사업도 기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양측 모두가 잘못된 역사의 희생자들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념사업이 관용과 연대에 기반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기념사업보다도 갑오년의 난리 속에 이름도 없이 숨겨간 무명 농민군을 위한 기념사업, 특히 석대들 전투에서 이름도 없이

숨저간 1천 명이 넘는 농민군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생사도 알 수 없고 그 시신도 거두지 못한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기다렸을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 기념사업은 출발되어야 한다.

2.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1)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부각시키는 기념사업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전라도, 특히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충북과 충남지역의 기념사업이 태동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장흥 기념사업은 전북 중심의 기념사업을 전국화하는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려면 사건의 전국성·전민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전민족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시설이나 공간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 단체나 천도교 등이 주도하여 만든 전국 각 지역의 시설들도 대부분 지역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국사교과서에는 전라북도 지역의 농민혁명만 서술되어 있을 뿐 대규모 봉기지역인 충남 서산 태안 지역이나 강원 홍천 강릉지역, 경북 서북부지역이나 경남 서남부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장흥 기념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다른 지역의 농민혁명 사실을 일깨우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흥 지역의 동학농민군 관련 유적지 정비와 시설은 한층 더 넓은 관점에서 구상하고 정비 보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근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 역사성과 현장성을 살리는 기념사업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유적지 정비사업이나 시설사업은 역사성과 현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역사정과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흥 동학농민혁명은 농민군의 최후항전, 무명농민군 묘역 등이 우선 떠오르지만, 한 소년사공이 600여 명의 농민을 살린 이야기나 부녀자가 농민군으로 참여한 일, 또는 농민군의 참혹한 처형 장면들이 이 지역의 구술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성과 현장성을 가진 부분이다.

따라서 현장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여 기념사업과 연결시키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기념사업은 방문자들에게 갑오년 당시의 현장에 온 느낌을 주기 어렵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세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조형물이나 기념시설물들은 대부분 방문자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유적지 정비사업에 앞서 그 사건의 역사성과 현장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때로는 기념사업이 오히려 현장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새로운 기념문화 양식을 창조하는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지금까지도 관행이 되고 있는 규모의 거대화를 지향하던 20세기적 문화양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념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중심의 문화운동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의 투쟁을 재현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문화양식을 창조하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단순히 국가주의 차원의 반외세 운동으로 박제화한다면 또 하나의 군사유적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충혼탑과 광주 국립묘지나 황토현 유적지, 그리고 의병전쟁 유적지에서 보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리는 또 하나의 유적지로 조성되지는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기념물과 시설은 규모의 거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재권력의 국가주의적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역사기념물이나 기념관은 모두 엄청난 시설과 규모로 방문자들을 압도하지만 이들 시설의 규모가 방문자에게 위압감은 줄지 몰라도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방문자로 하여금 가슴 뭉

클한 느낌을 주는 현장이 역사성과 현장성을 살리는 일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가운데 비교적 다른 곳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삼례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이나 정읍 무명농민군탑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규모는 매우 작고 비용도 적게 들었지만 방문자들은 이 공간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또한 외국의 예로는 스페인 북부의 게르니카 기념관은 보잘 것 없는 옛 건물을 보수하여 개관하였지만 당시의 현장에 온 느낌을 주는, 작지만 감동이 있는 전시관이다.

이제 20세기적 국가기념물 조성방식이나 양식은 청산되어야 한다. 이런 양식은 무엇보다 동학사상이나 농민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농민혁명 관련 기념시설물과 상징조형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동이 있는 새로운 양식이어야 한다.

3. 기념사업의 추진방법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초기에 진압군 장졸들의 비석이나 희생자들의 사당 건립에서 비롯되었지만 농민군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은 황토현과 우금치에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에서도 기념비나 주요인물의 동상 건립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방식이 기념비나 기념탑, 그리고 동상을 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4년 100주년을 지내오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탑이나 비석이 아닌 상징조형물이나 기념공원의 조성으로 바뀌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작은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정읍시는 오랜 기념사업의 전통으로 지역 축제로 정착되었다. 지금까지의 각 도와 시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추진과정은 각 지역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 민간단체인 기념사업회의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각 지역 민간단체의 역량과 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사업 규모와 예산에 차이가 있고 사업 추진 방식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사업성과에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기념재단도 기념사업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념사업을 각 시도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그간 전라북도와 여타지역의 각종 기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그간의 지역별 기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먼저 학술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동학농민혁명과 해당 지역의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다. 이는 학술용역을 통하여 문헌자료와 구전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유적지 현황을 조사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같이 수집된 자료는 해당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인물연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기념시설을 위한 기본계획도 학술조사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학술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기존의 기념사업 관행과 기념조형물 및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더욱이 사건의 현장성과 역사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학술조사와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사업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이 배제된 채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전라북도, 충청도 보은군의 경우)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용역 사례는 전라남도(1996)와 고창군(1998), 홍천군(1999), 공주시(2004), 진도군(2005), 충청북도(2006) 등을 들 수 있으며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 사례로는 전라북도(1999), 고창군(2000, 2007), 정읍시(2004), 홍천군(2004), 공주시(2005), 충청북도(2007) 등에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학술조사 이후 기념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결과가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전문가를 포함하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기념사업 추진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 기본계획과

설계 용역 수행과정에서 공청회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청회나 자문회의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법적 요건 갖추기에 그칠 뿐,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용역이나 설계의 발주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밀한 과업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그 자체 보다는 그 시설을 통하여 수요자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데에는 역사전공자 뿐만 아니라 조형·디자인·건축·토목·조경과 전기 설비는 물론 각종 전시 연출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고심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업시행 주체는 행정기관이 맡아 진행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 관행에서 보면 이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지만, 전주시나 완주군의 성공사례와 그리고 전라북도와 보은군의 실패사례에서도 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 수행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이 가지는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설계안의 선정이나 조형작품의 심사과정, 시공자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행정부서와 추진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게 될 것이고 비록 어렵고 더디기는 할지라도 그 성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

3) 수요자 중심의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기념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념사업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의미나 추상적인 메시지는 유형의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의 전달 방법으로 전시관이나 박물관, 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시설들은 전시관이나 상징조형물들은 외형적인 규모에 치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훌륭한 내용을 갖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이 고려되지 못한 공간 배치는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공간 구성과 연출은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하며 전시관이나 조형물을 둘러보면서 또는 공간을 산책하면서도 색다른 체험과 강한 느낌을 주는 창의성 있는 조형물과 공간 연출을 창조해 내야 한다.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설치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물들은 아직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라는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념시설과 조형물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시설은 관리운영 대책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시설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이 시설의 완공 후의 사후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다. 관리와 운영은 바로 인력과 재정문제이며 이는 시도나 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기념시설의 부지 규모나 전시관 등의 시설 규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인력과 전문인력은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황토현 기념관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들은 사업의 부지나 시설 규모면에 있어서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시설의 완공 후 관리 운영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고 있음은 매우 염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시관을 기획할 경우에는 전시관의 규모보다는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유물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물과 전시자료의 수집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를 미루다 보면 결국 개관 일정에 밀려 졸속한 전시관을 개관하게 되는 것이다.

전시관의 경우, 실내 또는 실외를 막론하고 전시물 설치하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시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전시물을 교체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전시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전시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재 각 시군이 설립한 각종 박물관 전시관들 가운데 전문 인력의 배치 여부가 각 시설 운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념시설을 설치하면 사후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부담과 재정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인력과 재정 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시설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석대들 전투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올해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시기이다.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은 기념사업회와 시민단체의 몫이 된다.

장흥지역 기념사업 논의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고 기념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그 역사적 의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념사업회와 시민단체들이 기념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금년 동학농민혁명 115주년 기념행사의 준비과정을 통해보면 장흥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지역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협력관계가 매우 원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몇 달이나 몇 년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자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제안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지역 민보군과 농민군 활동에 관련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

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장흥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따라서 석대들 전투와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와 조직을 해명하는 일은 동학농민혁명 전반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술조사는 장흥지역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민보군 관련 금석문, 그리고 유적지 현황, 구전자료, 인물조사 등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학술조사의 기초 위에서 기념사업이 논의될 수 있고 유적지의 표석이나 안내판을 세우는 일도 가능하다.

둘째,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토론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은 이 지역 지역정체성과 문화관광 발전전략에 연계하여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립되어야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지역문화계와 주민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적지에 대한 표석의 건립이나 안내판의 설치가 시급한 일이라는 하나 이러한 종합적인 구상 위에서 통일성을 가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장흥지역의 기념사업은 기념탑 건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사업 목표의 달성 이후에 해산되었다. 그 후 기념사업은 유족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이 지역 기념사업이 지역 전반의 기념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인의 역사이다. 이들의 역사를 기리는 일은 곧 장흥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정치인과 시민들을 아우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고창군은 군수가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넷째, 장흥은 동학농민혁명 역사상 최대의 무명농민군 묘역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민보군과 농민군의 기념사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찾기 어려운 장흥만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무명농민군 묘역에

추모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념사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영희당 역시 기념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미 1세기를 훌쩍 넘긴 농민군과 수성군의 후손들이 함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관용과 협력의 기념사업 프로그램을 구체화 한다면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의 구체화를 위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은 아직까지도 정읍 고부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라거나 전라도 사람들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역사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나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사건이었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바꾸어 놓은 세계사적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때, 장흥지역의 기념사업이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인식 변화와 기념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 2005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2007
- 공주시, 『공주 우금티 전적지 복원정비 기본계획』, 2005
- 진도군·(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 봉환을 위한 학술연구 및 진도역사공원 조성계획』, 2005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정비계획』, 2004
- 홍천군·(사)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홍천 풍암리 동학농민혁명전적지 학술조사 보고서』, 1998
- 홍천군·(사)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홍천 풍암리 동학농민혁명전적지 성역화 기본계획』, 2004
- 고창군,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2000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전략사업 타당성조사 및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2008
- 고창문화원,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1998
- 고창문화원,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1998
- 전라남도,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사』, 1996
- 전라남도,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1996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조형물의 현황과 조성방향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현황
 - 1) 시기별 조형물 현황
 - 2) 지역별 조형물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문제
 - 1) 역사의 사실과 현장
 - 2) 공간 배치와 교육 효과
 - 3) 조형물의 형상과 조형성
4. 성과와 한계
 - 1)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 2)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 3) 외국의 사례
5. 맺음말 - 조성방향

1. 머리말

이 땅 곳곳마다 역사의 현장 아닌 곳이 드물다. 지금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물론 발자취가 끊긴 곳에도 역사가 묻혀 있다.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앉았다 쉬어가는 느티나무 아랫자리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객관적 사실 모두가 역사로 기억되지 않듯이 역사의 현장 모두가 유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현장은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할 때 유적지가 된다.

기억되지 못하고 재구성되지 못한 현장은 유적지로 기념되지 못한다. 역사 유적지는 재구성된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던가, 어느 곳, 왜 그곳에서 그 일이 있었던 일인가, 누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질문의 대상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시간으로는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한 제1차 농민전쟁, 전주성을 점령한 뒤 농민자치 시기인 집강소시기, 9월부터 다시 전개된 2차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며, 1895년까지 이어졌다. 공간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뿐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전국 규모로 일어난 가장 큰 민중투쟁이었으며 변혁운동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역사현장에는 곳곳에 기념물들이 세워졌고, 유적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조형물도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구성의 결과물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딸, 설립 주체의 역사관과 의도에 따라 조형물의 형상과 내용이 달랐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조형물 또한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성 방향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현황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조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시설은 모두 130개소이다. 그 가운데 전북이 62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전남 27개소, 경북 15개소, 충남 10개소, 충북 9개소, 강원 4개소, 경남 2개소, 울산 1개소였다.

1) 시기별 조형물 현황

1898년 전북 정읍 만석보 혁파선정비(정읍 이평면)

1963년 전북 정읍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정읍 황토현)

- 1969년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모의탑(정읍 고부면 주산마을)
- 1973년 전북 정읍 만석보유지비(정읍 이평면)
- 1973년 충남 공주 우금치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공주시 금학동)
- 1975년 충남 태안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태안읍 동문리)
- 1977년 강원 홍천 동학혁명위령탑(홍천 서석면)
- 1981년 전북 전주 전봉준 장군 동상 (전주 덕진 공원)
- 1987년 전북 김제 김덕명 장군 추모비(김제 금산면 원평리)
- 1987년 전북 정읍 전봉준 장군 동상(정읍 황토현전적기념관)
- 1989년 전북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창의비(부안 백산면)
- 1990년 강원 원주 해월최시형 선생 피체지 추모비(원주시 호저면)
- 1991년 전북 전주 동학농민군 전주성입성기념비(전주)
- 1992년 전남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장흥읍 충렬리)
- 1993년 전북 전주 김개남 장군 추모비(전주 덕진 공원)
- 1994년 전북 고창 무장창의 포고문비(고창 공음면)
- 1994년 충남 공주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시비(공주시 금학동)
- 1994년 전북 정읍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 고부면 신중리)
- 1994년 충남 공주 우금치 봉수대(공주시 금학동)
- 1994년 전북 고창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비(고창 공음면)
- 1994년 경남 하동 고성산동학혁명위령탑(하동 옥종면)
- 1994년 충남 공주 우금치 들탑 4점(공주시 금학동)
- 1996년 경북 상주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상(상주시)

- 1996년 전북 정읍 최경선 장군 묘역(정읍 칠보면)
- 1996년 전북 삼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기념비(완주 삼례읍 삼례리)
- 1996년 전남 장성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장성 황룡면)
- 1996년 전남 함평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옥삼 공삼선생 공적비(함평 신광면)
- 1997년 충북 옥천 동학농민군재기포기념비(옥천 청산면)
- 1997년 전북 정읍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동상(정읍시 쌍암동)
- 1997년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정읍시 쌍암동)
- 1998년 전북 전주 손화중 장군 추모비(전주 덕진 공원)
- 1999년 전북 정읍 만석보시비(정읍 이평면)
- 2000년 충남 태안 태안지역동학전래비(태안읍 동문리)
- 2001년 전북 완주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완주 운주면)
- 2002년 전북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탑(고창)
- 2002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대동의 장(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2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표지명문석 4점(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2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추념의 장(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2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부조물 5점(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2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표지석(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3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봉기비(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4년 전북 삼례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군 출진상(완주 삼례읍 신금리)
- 2007년 충북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조비와 조형물(보은읍 성족리)
- 2007년 충북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념탑(보은읍 성족리)

2009년 충북 옥천 갑오년동학농민혁명전적지비(옥천 군북면 증약리)

2) 지역별 조형물 현황

강원 원주 1990년 해월최시형 선생 피체지 추모비(원주시 호저면)

강원 홍천 1977년 동학혁명위령탑(홍천 서석면)

경남 하동 1994년 고성산동학혁명위령탑(하동 옥종면)

경북 상주 1996년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상(상주시)

전남 장성 1996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장성 황룡면)

전남 장흥 1992년 동학농민혁명기념탑(장흥읍 충렬리)

전남 함평 1996년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옥삼 공삼선생 공적비(함평 신광면)

전북 고창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비(고창 공음면)

전북 고창 1994년 무장창의 포고문비(고창 공음면)

전북 고창 2002년 동학농민혁명기념탑(고창)

전북 김제 1987년 김덕명 장군 추모비(김제 금산면 원평리)

전북 부안 1989년 동학농민혁명 백산창의비(부안 백산면)

전북 삼례 1996년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기념비(완주 삼례읍 삼례리)

전북 삼례 2002년 삼례역사광장 대동의 장(완주삼례읍 신금리)

전북 삼례 2002년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부조물 5점(완주 삼례읍 신금리)

전북 삼례 2002년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표지명문석 4점(완주 삼례읍 신금리)

전북 삼례 2002년 삼례역사광장 추념의 장(완주 삼례읍 신금리)

- 전북 삼례 2002년 삼례역사광장 표지석(완주 삼례읍 신금리)
- 전북 삼례 2003년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봉기비(완주 삼례읍 신금리)
- 전북 삼례 2004년 삼례역사광장 동학농민군 출진상(완주 삼례읍 신금리)
- 전북 완주 2001년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완주 운주면)
- 전북 전주 1981년 전봉준 장군 동상 (전주 덕진 공원)
- 전북 전주 1991년 동학농민군 전주성입성기념비(전주)
- 전북 전주 1993년 김개남 장군 추모비(전주 덕진 공원)
- 전북 전주 1997년 손화중 장군 추모비(전주 덕진 공원)
- 전북 정읍 1898년 만석보 혁파선정비(정읍 이평면)
- 전북 정읍 1963년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정읍 황토현)
- 전북 정읍 1969년 동학농민혁명모의탑(정읍 고부면 주산마을)
- 전북 정읍 1973년 만석보유지비(정읍 이평면)
- 전북 정읍 1987년 전봉준 장군 동상(정읍 황토현전적기념관)
- 전북 정읍 1994년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 고부면 신중리)
- 전북 정읍 1996년 최경선 장군 묘역(정읍 칠보면)
- 전북 정읍 1997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정읍시 쌍암동)
- 전북 정읍 1997년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동상(정읍시 쌍암동)
- 전북 정읍 1999년 만석보시비(정읍 이평면)
-
- 충남 공주 1973년 우금치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공주시 금학동)
- 충남 공주 1994년 우금치 돌탑 4점(공주시 금학동)
- 충남 공주 1994년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시비(공주시 금학동)
- 충남 공주 1994년 우금치 봉수대(공주시 금학동)
- 충남 태안 1975년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태안읍 동문리)
- 충남 태안 2000년 태안지역동학전래비(태안읍 동문리)
-
- 충북 보은 2007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념탑(보은읍 성족리)
- 충북 보은 2007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조비와 조형물(보은읍 성족리)

충북 옥천 1997년 동학농민군재기포기념비(옥천 청산면)

충북 옥천 2009년 갑오년동학농민혁명전적지비(옥천 군북면 증약리)

3.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문제

1) 역사의 사실과 현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에는 1981년 10월 전주청년회의소와 풍남청년회의소가 세운 **전봉준 장군 동상**, 1993년 5월 김개남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김개남 장군 추모비**, 1998년 12월 손화중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손화중 장군 추모비**가 있다. 그런데 덕진공원은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역사의 사실과 무관한 곳에 조형물이 건립되면 역사의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기념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이 적지 않다.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티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세운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있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진 정읍시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의 **전봉준** 공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다. 1997년 정읍시에서 조성하였다.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에는 **전봉준 장군 고택**이 있다. 1894년 고부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불질렀으나 다시 보수한 것을 사적으로 지적하였다. 전봉준 장군 고택 주변과 단소성역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고택 주변의 집을 헐어내고 잔디밭을 꾸몄다. 잔디밭 밖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고택 마당에서 잔디밭은 바로 이어진다. 너른 잔디밭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고택밖에 기념관을 세우고 잔디밭을 꾸미는 것과 고택 마당과 이어지는 잔디밭은 또 다른 문제다. 고택은 고택답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입구에는 1969년 4월 후손들이 주도해서 만든

‘동학혁명모의탑’이 있다. 이 탑을 마을 안쪽에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처음 만들 때는 받침돌이 4단이었는데 옮기면서 5단으로 높였다. 새로 끼워 넣은 받침돌에 부조로 무궁화 꽃을 새겼다. 1894년 ‘동학혁명’과 무궁화 꽃은 별 관련이 없다.

황토현 전적기념관 맨 뒤 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머리는 맨상투다. ‘압송당하는 전봉준’으로 알려진 사진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을 터이다. 어떤 상황의 사진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그 사진은 잡혀 ‘죄수’가 되었을 때 찍혔기 때문에 맨상투다. 그런데 동상의 머리를 맨상투로 만들었으니 몸체는 격문을 들고 외치는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고 머리는 죄수가 된 꼴이다.

5.6미터 되는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청동으로 주조하여 만든 2.7미터 높이의 전봉준 동상은 오른 손을 불끈 쳐든 모습으로 우람하게 우뚝 서 있다. 동상 뒤쪽에서 좌우로 날개처럼 동상을 감싸고 있는 농민군 부조는 높이가 동상 받침대와 비슷하다. 장군의 동상이 농민군 부조를 밟고 있는 꼴로 보인다. 전체로 보아 스스로가 농민이었으며 농촌 지식인으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했고, 결국 사형을 당한 녹두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죽창과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상 받침대 뒤쪽에는 시행청이 ‘진라북도’이고, 조각한 사람이 **김경승(金景承)**이며, 1987년 10월 1일 완공했음을 알려주는 까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경승은 1915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는데, 동상제작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34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뒤, 1937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였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연이어 선전에서 입선 특선을 하였고 추천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김경승은 형 인승과 함께 친일 작가로 분류되었으나 이화여대 홍익대 교수를 지내면서 각종 기념조형물 제작을 독차지하였고 오랫동안 국전심사 위원에 심사위원장까지 거쳤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때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의 경력에 걸맞게 그가 만든 동상의 주인공들도 손꼽히는 위인들이었다. 남산 공원의 김유신 장군상, 안중근 의사상, 김구 선생상,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상,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 용두산 공원, 통영 남망산 공원의 이충무공 동상을 그가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4월 혁명 때 무너진 이승만 동상, 인천 자유

공원의 맥아더 동상, 고려대 김성수 동상과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인천 송도중학교의 윤치호 동상도 그가 만든 것들이다. 동상 만드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하나, 그가 독차지하다시피하여 만든 동상들은 인물들의 행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비슷한 형상이다.

* 장흥 : 끝이며 시작, 과거의 희생과 역사의 부활

2) 공간 배치와 교육 효과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세워진 황토현전적지 기념관은 아산 현충사 같은 사당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마당 중간에 있는 담을 지나 안쪽 오른쪽에 전쟁유물 전시장이 있고, 왼쪽 제민당에는 위압적인 양반과 같은 전봉준 영정이 보관되었다. 맨 뒤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다. 사당 형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걸맞지 않다. 공간 배치도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상이나 영정이 전봉준 장군을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2004년 개관한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으로 이루어졌다. 전시관 벽면은 사진과 빼곡한 설명문으로 채워져 있다. 답사객들의 반응은 전시관이 확대 복사한 책 읽으라는 공간같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2층 복도를 따라 벽에는 이광택의 <우리식대로 그린 동학농민전쟁사>를 확대 복사하여 여러 쪽으로 나누어 걸어놓고 있다. 원본 그림의 모양은 어떠한지,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설명도 없다. 복도의 폭에 맞추어 보기 편하게 전시해야 하는데, 좁은 복도에 그림이 커서 보기 불편하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기둥의 부조도 마찬가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진과 설명문은 안내문 형태의 작은 책자로 나누어 주고 기념관에 맞게 전시를 하는 편이 탐방객들을 좋을 것이다. 전시도 공간에 맞는 크기로 배치해야 하며, 전시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밝혀 주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에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둘레에 광장 표지석, 부조물 5점, 봉기비, 상징 조형물 3점, 표지 명문석 4점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조형물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레 배치되질 않아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할지 주춤하게 된다. 조형물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처음 광장을 설치할 때 기획한 공간 배치 밖에 새로운 조형물들을 편의에 따라 세우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토막토막 떨어져 산만한 느낌을 준다. 중앙으로 들

어가는 길 가운데에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설명과 그림으로 새긴 4각 기둥의 부조물 5개가 세워져 있다. 기둥의 형상과 새겨진 내용과 그림은 괜찮다. 그런데 한 기둥마다 사방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그림과 글로 새겨 놓았다. 입구에서부터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있는 석조 조형물 4점이 있다. 조형물의 형상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특성이 전혀 없으며, 일본군의 침입과 쫓기는 민중이 돋보이게 새겨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이다.

역사의 현장을 찾는 중요한 까닭은 역사를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면서 배우려는 것이다. 유적지 복원이나 기념사업, 기념 조형물 건립의 내용은 물론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의 공간 배치도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조형물의 형상과 조형성

역사 유적지에 세워 놓은 기념 조형물은 설명문보다 형상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역사의 상징이다. 형태와 모양이 역사의 상상력을 촉발하며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기억을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역사 기념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가 많은 것이 수직의 높은 탑과 좌대 위의 동상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는 황토재의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우금치의 ‘동학혁명군위령탑’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동학농민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황룡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성 ‘동학혁명군위령탑’,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동학혁명위령탑’이 있다. 이 가운데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빼면 규모나 형태, 형상이 다르긴 해도 대부분 수직의 탑으로 이루어졌다.

황토재의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1963년 정부 주도로 8월 25일 전주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에 기공하여 그해 10월 3일 세운 탑이다. 이 탑은 농민군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최초의 조형물이며, 농민군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이 되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수직의 화강암 기둥 윗부분에 전서체로 ‘제폭구민 보국안민’ 여덟글자를 새겼다. 양 옆 보조 석물에는 앞쪽에 비문과 농민군 부조를 새겼고, 뒤쪽에 농민군 민요인 ‘새야 새야’와 ‘가보세’를 새겼다. 전체로 보아 중앙탑과 좌우 보조 석물 사이를 떼어 놓아 모양이 시원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보조 석물 좌우 대칭 중심에 자리 잡은 중앙의 높고 육중한 화강암 수직 기둥은 권위적이고 위압스런 기념 조형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서로 새긴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구호는 가까이 갈수록 고개를 젓히고 올려다 보아야 할 자리에 새겨져 있고, ‘보’자는 ‘보국안민’할 때 쓰는 ‘輔’가 아니라 ‘保’로 잘못 새겼다. 황토재 싸움은 농민군이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한 기념 조형물 앞에 제단이 놓여 있는 것도 상징성이 떨어진다.

1973년 세우진 공주 우금티의 ‘동학혁명군위령탑’은 비문의 형상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보다도 더 숨막힐 듯한 좌우 대칭의 화강암 이중 받침대 위에 육중한 수직의 기둥이 우뚝 솟은 모양이다. 이러한 탑의 형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성기 모양으로 형상화된 남성중심주의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은연중에 수직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층 받침돌 중앙 손이 닿는 위치에 비문이 자리 잡고 있어 위령탑의 중심을 이룬다. 비문 내용에 탑 건립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있다.

“님들이 가신지 80년. 5.16혁명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10월 유신의 한 돌을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천만대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선양하라.....”

‘동학혁명’을 끌어다 박정희 정권이 그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군사독재의 시작인 '5.16혁명'과 폭압적인 '10월유신'을 정당화하였다. ‘동학혁명군’의 혁명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10월 유신에 대한 부정이며, 농민군의 저항정신을 순국정신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을 강조하였다. 희생당한 ‘동학혁명군’을 대상으로 탑을 세웠으되 목적은 유신체제에 국민들을 순응시키려는 것이었다. 농민군이 어떠한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싸웠는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반농민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도 드러

나 있지 않다.

지금 위령탑 비문에 쓰여 있던 ‘5.16혁명’ ‘10월유신’ 박정희’ 글귀 부분은 알고 읽지 않으면 뭐라고 써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흔적만 남았다. 수많은 답사객들이 돌맹이로 수없이 쪼아 그렇게 되었다.

삼례역사광장에는 2003년 10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세운 ‘동학농민혁명봉기비’가 있다. 커다란 돌덩이 기둥에 비 이름 새긴 것 말고 어떠한 상징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다. 엄격한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워진 반듯한 직각의 기둥형태는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성기의 형상을 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남근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던 시대의 ‘쫓바위’와 비슷한 형상이다.

돌기둥 뒤쪽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고, 받침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의 조직체계와 간부 이름을 새겨 놓았다. 단체 사무실 벽이나 소개서에나 들어 있음직한 조직표와 이름을 영구불멸의 욕망으로 새겨 놓았을 것이다. 사무실 벽에 걸린 조직 표에도 이름까지 죽 써놓은 경우는 드물다. 아무튼 우리는 기념비 아래에 세운 단체의 조직표와 명단이 새겨진 또 하나의 ‘기념할 만한’ 조형물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근대적 수직탑의 원형은 1963년 세워진 ‘4월학생혁명기념탑’이다. 맥아더, 이승만 동상을 세운 김경승이 세웠다. 대칭형 부조벽 중간에 세 기둥의 수직탑으로 이루어졌다.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이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는 ‘4월학생혁명기념탑’을 직접 모방한 형태이다.



그림 1 : 1963년 4월학생혁명기념탑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운 높은 수직 기둥으로 이루어진 탑은 1800년대 유럽 군국주의의 산물로서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 권위주의의 형상이다. ‘받침대 위에 있는 사물’인 전통적인 기념물 형태가 파시즘이 선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기도 한다. 수직의 탑은 파시즘과 전쟁, 폭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4. 성과와 한계

1)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봉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문제가 많으나 옛집도 복원되고 동상이나 기념물도 세워졌다. 그러나 농민전쟁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지도자들만이 싸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이 노동과 투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려고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1994년 9월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세웠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녹두회관 앞에 세워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893년 '혁명모의'를 했던 주산마을을 둘러려면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다. 대형버스를 타고 외길을 들어가다 작은 차라도 마주치면 한없이 '빠구, 오라이'를 해대야만 했다. 농민전쟁 100주년 즈음에 2차 선으로 포장되었던가. 이제는 주산마을 가기가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고부관아가 있던 고부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정읍을 향해 1.9Km쯤 가다 입석리에서 오른쪽 중앙교회 가는 길을 따라 2.3Km 더 가면 주산마을이다.



그림 2 : 1994년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관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여기 세워진 조형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지 않다.

가운데 주탑은 '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이라고 이름을 새긴 받침대 위 네모난 화강암 판에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 모습을 알리게 파서 새겼다. 그림의 이미지는 80년대 민중판화와 걸개그림을 많이 따왔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이 본격화 되기 바로 전, 6월 9일 최루탄 맞아 피흘리며 쓰러진 이한열 학생을 일으켜 안은 동료가 전두환 정권을 향해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진, 그것을 걸개그림으로 만들어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최병수의 '한열이를 살려내라'가 연상된다.

토막토막 따로 세운 1-2미터 크기의 32개 보조탑에는 '밥이 하늘이다'를 상징하는 밥그릇, 무명농민군의 얼굴, 농민들이 무기로 썼던 농기구를 새겼다. 화강암 돌기둥 위, 아래, 중간에 새긴 농민군 머리는 표정과 거칠기를 달리하여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주탑을 중심으로 보조탑들 사이사이에 공간을 둔 것은 그 사이로 가까이 다가가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안아도 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보라고 그런 것이다. 멀리 밀어내어 쳐다보기만 하는 먼 역사가 아니라 조형물로 끌어 당겨 가까운 역사로 느낄 수 있게 한 배려이다.

그런데 주탑의 액자 틀 같은 직사각형 선이 답답하고, 보조탑 어느 기둥에도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없다. 모두 어른 남자 머리 뿐이다. 남성 중심, 어른 중심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오른 쪽 한 귀퉁이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건립기념비'가 외파로 세워져 있다. 비문은 "구월봉기는 일본군의 궁성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한 민족적인 거사였으며 나아가 민족의 自衛를 위한 민중의 항쟁이었다. 甲午先烈들은 그들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限을 품은 채 匪徒의 누명을 쓰고 방방곡곡 전쟁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처절하게 쓰러져 갔다."는 내용으로 반침략의 성격과 일본군에 의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9월 봉기 이후의 2차 농민전쟁 또한 반봉건적 성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농민군을 탄압하고 학살한 반농민군 세력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정부군과 각 지방의 보수 민보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빼 놓은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있으나, '1894년 농민전쟁' 역사 조형물이 1963년 황토현에 세

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시작하여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형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완주군과 함께 역사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삼례 역사광장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지닌 기념시설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펴낸 <<동학농민혁명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해 냈으며, 조형물과 조경의 조화 등이 잘 이루어져 삼례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의 기념비 및 조형물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있음”, “다른 지역 기념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함”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광장 입구에서 볼 때 건너편 왼쪽에 있는 ‘대동의 장’은 굽은 팔뚝으로 움켜쥔 ‘쇠스랑’과 돌레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다. “민초 농민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된 의지의 기치, 또는 이상이 뜻대, 힘을 상징”하며 “누구든 소망을 담은 돌을 엮어 놓는 행위를 통한 무한다수 공동제작의 개념, 참여의식의 발현에 의한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하고 있다.

돌무더기가 무한다수를 공동제작에 참가시켜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한 조형의 발상은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대동의 장’의 돌무더기가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한 미완의 조형물이다. 미완의 조형물을 완성해 나가고 역사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는 뜻을 살릴 필요가 있다.

쇠스랑 조형물 오른쪽, 광장 중앙 건너편에 있는 ‘추념의 장’ 조형물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농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념하며 자아 존재와 역사와 우주, 즉 ‘나’ ‘동학농민군상’ ‘하늘’이 거울에 중첩 반추되는 영상 속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핵심인 인내천 사상을 인과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장으로서 경건의 돛”으로 세운 것이다.”이상세계에서 서로 일체화로 이루어진 동학농민군들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하여 현실에서 이르지 못한 그



그림 3 : 2002년 삼례역사광장 추념의 장

들의 한을 달래는 의미와 함께, 독립적 공간을 형상화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와 빛과 시야가 통과되어 주변 환경과 유기적 일체 공간을 이루는 투조 구조는 산화한 농민군들의 영령들에게 부여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징“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조각된 농민군 군상이 중앙의 거울에 비추고 그 위에 내 얼굴을 비추어 일체감을 느끼면서 추념하도록 한 의도다. 이 조형물의 핵심은 거울이다. 거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돌을 던졌는지 금이 갔다가, 아예 조각조각 부서졌다. 지금은 깨어지지 않도록 얼굴이 비칠만한 까만 돌로 바꾸었지만 농민군 군상과 함께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만큼 뚜렷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대동의 장’과 ‘추념의 장’의 표현 양식인 구체와 추상, 짙돌과 조각난 거울,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조직표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역사광장과 조형물들이 ‘다른 지역 기념 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가졌는지는 관점과 안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삼례역사광장은 광장이라는 공간의 조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동선이 사람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지 못하고, 대동의 장, 추념의 장 조형물들이 동학농민혁명 일반의 이미지를 형상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삼례봉기’의 특성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 단재 신채호 동상, * 제주 4.3평화공원 기념조형물

3) 외국의 사례

○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1982, 워싱턴)

21세의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던 마야 린이 1421개 설계안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경사진 면은 수직으로 잘라 생긴 두 개의 벽면에 검은색 화강암 벽을 세웠으며, 125도 각도로 펼쳐져 있다. 양끝이 점점 가늘어진다. 한 쪽 끝은 링컨기념관을 향하고 다른 쪽은 워싱턴 기념탑을 향한다. 마야 린은 “칼을 들고 대지를 가르면, 시간이 흘러 잔디가 자라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상징하였다. 화강암 벽면에 1959년-75년에 사망되거나 실종된 미국인 남녀 5만 8천여 명의 성명만을 써 놓았다. 워싱턴기념물이나 링컨기념관처럼 높이 솟은 백색의 권위주의적 구조물과 달리 수평적인 형태는 높이가 낮아 친근하게 느껴진다. 흑색 화강암 벽면에 주변 기념관들의 모습이 반사된다.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은 이미 확립된 국가 정체성의 전통적인 상징을 표현하고,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기존의 기념물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 기념관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며, 방문객들은 그곳에 꽃을 놓거나, 사진 또는 반정부적인 메모를 부였고, 그 기록물들은 보관소에 소장되었다.

○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물(1986,독일 하르부르크)

1986년 실치 미술가 요헨 기르츠와 에스더 게르츠가 독일 함부르크 교외 하르부르크에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물’을 세웠다. 수직의 탑이다. 수직의 탑이 파시즘과 전쟁, 폭력을 상징한다면 이 수직의 탑이 어떻게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름 1m, 높이 12m의 알루미늄으로 된 이 탑 표면은 연납을 막을 입혀 낙서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일정한 높이까지 낙서로 뒤덮이면 1.5m씩 땅 속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비명에는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다.

“우리는 하르부르크의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여 여기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서명이 점점 많이 적히게 되

면서 12미터 높이의 납기둥은 차차 땅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기둥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날이 오면, 하르부르크의 반파시즘 기념물이 있던 자리는 공터가 될 것이다. 결국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파시즘, 전쟁, 폭력을 상징하는 수직의 기둥은 서서히 땅 속으로 내려가 묻혔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물이 되는 것이다. 1993년 11월 10일 수직의 기둥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기둥의 머리에 새겨진 작품 제목뿐이라고 한다. 기념물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깨트렸으며, 파시즘 전쟁 폭력의 상징을 역설로 부각시킨 기념비적인 기념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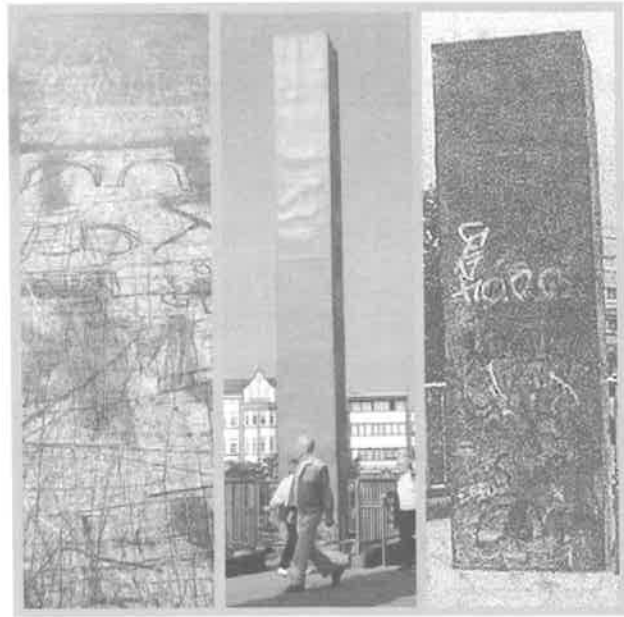


그림 4 : 독일 하르부르크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탑

5. 맺음말 - 조성방향

역사란 지금 여기서 그때 거기의 과거와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물 가운데 대표적인 매체가 책이고 글이다. 역사의 현장, 거기를 재구성한 공간이 유적지이다.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느끼고, 기리려고 유적지를 찾는다. 유적지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들은 형상과 상징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역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재구성된 현대사이기도 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사실을 이해하고, 의의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려고 유적지를 복원

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에는 당연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사실과 의의와 정신 담겨 있어야 한다. 근현대사의 다른 사건의 현장에 세워진 조형물과 차이가 없고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로서 해야 할 제 몫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1월 고부농민 봉기부터 1895년까지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서 모든 곳을 유적지로 복원하고 기념할 수는 없다. 기념할 만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된 유적지에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의 일부이며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사건의 특성을 담겨 있다. 지역마다 유적지를 정비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울 때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은 물론 계절과 지역의 특성도 살려야 한다. 어디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비슷비슷한 조형물을 유적지마다 세우는 것은 낭비이다.

역사기행이나 답사를 할 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옛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천의 구관 말 옛 시인의 냇이로고’ 하듯이 산천도 변했다. 역사의 현장을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사실을 사실에 가깝게 역사를 복원하고 현장감을 높일 수 있게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 기념사업에서 언제나 고려해야 할 출발점이다.

역사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은 그곳에 그런 형상으로 있어야 할 이유를 담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역사의 유적지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느끼게 하려면, 유적지의 공간배치나 조형물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고, 보게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수많은 조형물들이 그런 몫을 제대로 담당하질 못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아야만 하는 동상, 숨 막힐 듯 위압적인 높은 탑, 의미를 담지 못한 돌덩이 세워놓은 무성의한 조형물들은 오히려 역사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답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이 수평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추구했던 정신에 견주어 볼 때 과거의 기억을 몇몇 지도자로 한정하고 미래의 상상을 통제하는 동상, 민중의 기억을 국가의 통제로 가두려는 수직의 탑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상징물로 걸맞지 않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유적지에 탑과 동상을 세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탑과 같은 형상의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좌우균형의 받침대 위에 높게 세워진 수직의 탑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 관에서 주도하는 조형물 조성 사업에서 지정된 크기의 '규모'를 요구하는 제한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조형물의 높이와 규모를 놓고 지역별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역사를 '크고 높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압살하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 제2부 -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

나카츠카 아키라 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머리말
2. 이토 히로부미의 커다란 우려
3. 허망(虛妄)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일본
4.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

1. 머리말

내년 2010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병합(韓國併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병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병합’이라는 말을 생각해 낸 사람은 1910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政務局長)이었던 쿠라치 테츠키치(倉知鐵吉)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병탄(併呑)’ 등 “너무나 침략적인 용어는 사용하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던 ‘병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위의 내용에서 볼 때 ‘병합’이라는 말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일본의 지배자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합’이라는 말을 사영했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토 히로부미의 커다란 우려

오늘은 일본지배자들이 당시 한국의 민족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 당시 한국 통감(統監)으로 서울에 부임해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電報)와 의견서(意見書)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러일전쟁 직후, 특히 1905년의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 한국에서는 격렬한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의병투쟁(한국에서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커다란 파도가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맞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토는 1907년 4월, 하야시 타다스(林董) 외무대신 앞으로 “한국의 형세가 지금 상태로 진행되게 되면 해가 지남에 따라 ‘어택세이션(Annexation, 合併, 併合)’은 점점 더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사(意思)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사전에 러시아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보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염려한 바와 같이 이 전보가 있는 뒤 얼마 뒤인 6월에는 한국 고종(高宗) 황제의 밀사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나타나, 일본의 불법(不法)을 (국제사회에 널리) 호소했습니다. 이토를 비롯한 일본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제 3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행정과 사법의 실권을 통감에게 집중시키고, 한국의 군대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병투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그 해 1907년 11월 6일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스 앞으로 장문(長文)의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현재 『일본외교연표병주요문서(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상권(일본 외무성 편찬, 1955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 가장 뒷부분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세는, 거의 대부분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기세가 그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열국(列國=列強)은 각자 이해(利害) 관계의 대립도 있으므로 일본정부가 용의주도하게 비가 오기 전에 비세는 것을 고쳐 놓을 정도의 대책을 취하고 행동을 틀리지 아니한다면 쉽사리 고립당

하는 일은 없겠지만, 정곡에서 벗어나는 방책을 취한다든지 틀린 행동을 하게 되면 즉각 고립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은 최근의 상황을 숙고하고 숙고할 때 일본의 전도(前途)를 위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없어 감히 의견을 밝혀 여러분들이 숙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토는 이 의견서에서 영국의 대일(對日) 태도가 냉담하게 변하고 있고, 독일은 더욱 반일주의(反日主義)이며, 미국도 이민문제(移民問題) 등으로 대립의 징조가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중국 동북의 '만주(滿州)'에 대해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방책을 잘못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말하고, 그 결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다만 통감으로 부임해 있던 발아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이)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당시 한국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토가 이 의견서를 썼던 1907년 11월에 대해 말한다면, 다음해인 1908년에 걸쳐서 항일의병투쟁이 전국으로 파급되어 피크를 맞이하려고 할 즈음입니다. 일본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을 해야 할 정도의 군대를 새로 파견하여 항일의병 진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토는 한국의 항일 운동을 일본의 군사력으로 가차 없이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운동이 고양되게 되면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는 해도 시민혁명(市民革命)을 거쳐 시민적 권리가 강한 나라에서 한국의 민족운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의 의병투쟁도 영국의 맥켄지(Frederick A. Mckenzie) 등 한국 인민의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한 외국인 저널리스트의 손에 의해 세계 각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병투쟁을 비롯한 한국의 민족운동이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대일(對日) 비판으로 파동 쳐 나갈 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토의 우려는 몇 겹으로 깊어지고 깊어져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걱정하면서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을 지도해 온 중심인물입니다. '한국 한 나라'뿐이라면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병합’에 대해 ‘고우(Go)’ 사인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큰 오산(誤算)이었다는 사실은 반세기(半世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 밝혀지게 됩니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대패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3. 허망(虛妄)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일본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그리고 한국(북한)이 해방된 지 6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일본인이 지녔던 한국(북한)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 NHK를 예로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NHK는 올해(2009) 11월 29일(일요일)부터 2011년 연말에 걸쳐서 시바 요타로(司馬遼太郎)의 『언덕 위의 구름』을 원작으로 하여 13회에 이르는 드라마로 구성하여 ‘스페셜 드라마’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2,0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러일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조국방위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의 성공 이야기”가 바로 소설 『언덕 위의 구름』입니다.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을 침략하여 제압함으로써 한국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바 요타로는 이 같은 일본의 대국화(大國化)와 한국의 몰락이라는 관계를 어떤 식으로 썼을까요? 시바는 한국의 몰락에 대해

- ① 남으로부터 일본, 북으로부터 러시아와 청국에 압도당하는 지리적 위치가 나빴다.
- ② 일본은 한결같이 한국의 독립을 역설했지만, 한국은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체제 아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정체(停滯)로 인해 자력으로는 바뀌기가 어려워 외국의 침략이라는 불행한 외압(外壓)으로 비로소 무너진 무능력한 국가였다.
- ③ 더욱이 열강이 각을 세워 싸우던 제국주의 시대의 일로써 한국의 전락(轉落)은 숙명적으로 모면할 수가 없었다.

요약하자면, 이상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바의 논법에는 가공할

만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속임수였을까요?

- ①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즉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채 끝내고 있습니다.
- ② 동학농민군과 의병투쟁 등 한국 민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국왕과 황후가 국권회복을 위해 어떻게 고심했는지,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서술하지 않은 채 소설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이지 일본의 영광(榮光)’을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바로 그러한 속임수를 써서 완성한 것이 바로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시바 요타로는 생전에 이 『언덕 위의 구름』이 영화나 TV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파(右派) 정치가와 결탁한 NHK 내 (우익) 세력이 유족들로부터 방영권을 강제로 손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병합 100년’에 맞춰 TV에서 방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북한)의 민족적 자주(自主)의 움직임을 정시(正視)하지 않았던 메이지 이후 일본의 못된 전통이 지금도 계속 살아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크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중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같은 NHK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교토(京都)와 고베(神戸)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금년 여름 『시바 요타로의 역사관 -그 ‘조선관(朝鮮觀)’과 ‘메이지 영광론(明治榮光論)’을 묻는다-』라는 책을 출판하여 NHK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4.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

필자는 이번에 일본인 21명과 함께 ‘한국,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에 참가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답사 여행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제 4회째가 됩니다. 매년 박맹수(朴孟洙) 선생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올해 답사는 한국의 좋은 벗들과 함께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은 버스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필자가 왜 이 같은 ‘한국,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을 제창했고, 왜 뜻있는 일본인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답사 여행을 통해서) 근대일본과 한국(북한)과의 관계의 근원(根源)이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왕궁(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한다든지, 왕비(명성왕후)를 살해한다든지 등 세계에 공표할 수 없는 무법(無法)을 저지릅니다. 이런 무법에 대해 당연히 한국의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항일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진실)을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감으로써 일본인 자신이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 바로 그 점에 근대 한일관계 역사의 근원이 있으며, 그 같은 근원을 확인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의 한국(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수립해 가는 기초로 삼고 싶다 - 바로 이것이 한국(북한)을 끊임없이 필자의 시야 속에 넣으면서 일본근대사를 반세기에 걸쳐 연구해 온 필자의 오늘날의 소망입니다. 그 같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후지국제여행사(富士國際旅行社)라는 여행회사에 공을 들여 설득하여 4년 전부터 이 답사 여행을 계획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필자는 최근 전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정치부 기자로 서울특파원과 논설 부주간 등을 역임하고,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쓴 이마즈 히로시(今津弘) 씨의 저서(『저널리스트 그 부드러움과 강함』, 스리에 네트워크, 1998년)를 읽었습니다. 이마즈 히로시 씨는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전 기자로 사장까지 되고, 또한 정치가이기도 한 권오기(權五琦) 선생과도 친교가 있었던 신문기자입니다. 이마즈 씨의 책을 읽고 필자는 권오기 선생이 1995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지 50주년이 되던 해에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아사히신문 주최 심포지엄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戰後) 50년’이라 해서 전 마스크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패전한 지 반세기를 경과한 역사적 한 고비에 필요한 논의라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왜 일본의 여러분들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만 무엇인가를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의 동학당 봉기에서 시작된 청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까지 도달한 일본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라고

권오기 선생은

- ① 한국 역사상, '동학당 봉기'의 역사적인 의미를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가. 1894년 '동학당봉기'는 명확한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가진 한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써, 그 뒤의 의병투쟁, 3.1독립운동, 그리고 현대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사의 대도(大道)이다. 바로 이 점을 일본인인은 확실하게 보기 바란다.
- ② 한국의 근대(近代)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중적 농민봉기를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잔혹하게) 내리놓았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가?
- ③ 일본은 청일전쟁으로부터는 50년, 러일전쟁으로부터는 40년 만에 패전을 맞이한다. 타민족을 유린한 자국의 안전은 없다는 사실을 1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패전 50년째를 맞이한 일본인들에게 이상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필자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박맹수 번역)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교수

[약력]

1929년 일본 오사카 출생

1953년 교토대학(京都大學) 문학부 사학과 졸업

1960년대부터 근대일본의 역사에서 '조선문제(朝鮮問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자각하여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동학농민혁명을
비롯

근대 한일관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1963년 나라여자대학 강사

1965년 동 대학 조교수

1972년 동 대학 교수

1993년 3월 동 대학 정년퇴직

1991년 7월-2000년 7월 일본학술회의 회원

나라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 역임

현재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주요 저술]

『日清戦争の研究』 (青木書店、1968年)

『近代日本と朝鮮』 (三省堂, 初版 1969年、第3版 1994年)

『新訂 蹇蹇録』 (岩波書店, 1983년、ワイド版2刷 2007年)

==> 『건건록』 (김승일 역, 범우사, 1993년)

『蹇蹇録の世界』 (みすず書房、1992年)

『近代日本の朝鮮認識』 (研文出版、1993年)

==>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성해준 역, 청어람 미디어, 2005년)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1997年)

==>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박맹수 역, 푸른 역사, 2002년)

『歴史家の仕事』 (高文研、2000年)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 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 (高文研、2002年)

==> 『일본인이 본 역사 속의 한국』 (이규수 역, 소화, 2003년)

『現代日本の歴史認識』 (高文研、2007年)

『司馬遼太郎の歴史観』 (高文研、2009年)

[나카츠카 교수의 한일 시민교류 활동]

- 2001년 나카츠카 교수 동학농민혁명 107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
(한국 전주)
- 2002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제1차 동학전적지 여행
(한국 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 2003년 사단법인 한살림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관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
행
(일본 나라, 고베, 홋카이도)
- 2004년 사단법인 한살림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관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
행
(일본 홋카이도)
- 2006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제2차 동학전적지 기행
(한국 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 2007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제3차 동학전적지 기행
(한국 서울, 전주, 진도, 부안, 대둔산, 공주)
- 2008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제4차 동학전적지 기행
(한국 서울, 익산, 전주, 대둔산, 공주)
- 2009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제5차 동학전적지 기행
(한국 서울, 충주, 보은, 전주, 대둔산, 공주)

장흥지방 동학농민군과 향촌사회의 동향

박 맹 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1. 머리말
2. 전라도 동학포교와 장흥동학
3. 교조신원운동기의 동향
4.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의 동향
5. 집강소 통치기의 동향
6. 맺음말

1. 머리말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포교와, 포교된 동학을 중심으로 한 장흥 일대 민중들의 움직임, 그리고 동학포교에 따른 향촌사회의 동향을 상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크게 4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 장에서는 전라도지방 동학포교 및 장흥 일대 동학포교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라도 동학도인들을 포함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공개적 집단시위운동으로 전환되는 1892-93년의 교조신원운동기의 장흥지방 동학조직 및 향촌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시기의 장흥지방 동학 조직의 움직임과 향촌사회의 대응에 대해 고찰하며, 끝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전주화약’ 이후 이른바 집강소 통치기에 있어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향촌사회의 대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¹⁾

1) 이 논문은 필자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1992) 및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과 역사적 의의」(1994), 「일사와 강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2002) 등을 토대로 전면 개고한 글이다.

2. 전라도 동학포교와 장흥동학

(1) 3단계에 걸친 전라도 동학포교

장흥지방에 동학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전라도 지방에 동학이 포교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라도 지방 동학포교는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이하 수운이라 칭함) 자신이 직접 포교하는 시기이며, 2단계는 2세 교주 해월 최시형에 의한 포교 시기이며, 3단계는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동학지도자들에 의한 포교 단계를 말한다.²⁾

제 1단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학 교조 수운 자신에 의한 포교단계이다. 1860년 4월 5일 수운은 그의 고향 경주 용담에서 자신의 일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경험을 갖기에 이른다. 이른바 無極大道를 깨달은 것이다. 수운은 무극대도를 깨닫고 나서도 다시 1년여의 수련을 행한 다음 그가 깨달은 무극대도를 東學이라 명명하고 1861(신유)년부터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포교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동학은 당시의 시대상황 하에서는 혁명적일 수 있는 평등사상이라든지, 당시 형식화된 유교적 윤리의 퇴폐상을 비판하는 혁신적 요소를 비롯하여, 민중을 두루 포용할 수 있는 민중신앙적 요소(정감록 등)를 고루 갖춤으로써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를 풍미하는 일대 혁명적 사상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평민 이하의 민중계층을 위시하여 ‘진보적’ 유교지식인들도 동학에 입도하게 된다. 그러나 朱子學 一尊主義를 고수하던 조선사회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 내지 가치체계의 등장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결속은 당시 조선봉건왕조와 향촌사회 유교적 지식인(유생)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 그리하여 수운과 동학을 신봉하는 동학 道人들은 곧바로 향촌사회 유생들과 지방관의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동학 초기의 탄압은 대체로 수운 자신에게로 집중되었고 그 주된 빌미는 동학은 어디까지나 西學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실상 서학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수운은 탄압의 모면과 함께 서학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동학 교리 체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마침내 전라도 남원으로의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 시기는 기록에 의하면 1861년 11월로 나타난다. 제 1단계 전라도에의 동학포교는 바로 이 피난길이

2) 참고, 「밝혀져야 할 동학포교 상황」, (『금호문화』 78, 1991년 12월호), 142-147쪽.

기연이 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금년 11월(1861:필자 주) 갑자기 길을 떠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새로 들어온 도인을 생각하면 가히 어리석고 이름이 작은 나라 스스로 탄식하기를 말지 아니하였다. 전라도 떠나갈 새 지나는 길에 성주에 들러 충무공이 사당에 배알하고 처음에 남원에 도착하여 徐公瑞의 집에 유숙한 지 10여일인데 그때 함께 간 사람은 崔仲羲였다.³⁾

이렇게 수운은 남원 땅의 서공서라는 인물의 집에서 10여 일을 유숙하면서 동학의 교리를 전하였다. 보수 유생들과 지배계층으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으며 피신의 길에 나선 수운을 10여 일 썩 유숙하게 했던 서공서라는 인물은 수운이 남원에 오기 전에 이미 동학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동학에 대한 소문 또는 수운에 대한 소식을 전하여 듣고 수운이 남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동학과 동학교조 수운에 대하여 호의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이 틀림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공서의 구체적인 행적은 현재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만 서공서를 통해서 전라도에 동학이 전파되었을 가능성만 언급해 둔다.

전라도에 동학이 포교되는 제 2단계는 1880년대로 확인되고 있다. 1880년대가 되자 동학 교단은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서북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地下布敎시대를 마감하고, 종래의 강원도 산간 지대를 벗어나 호서·호남의 평야 지대로 진출하여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동학의 포교에 나서게 된다. 그 증거의 일단을 우리는 수운의 도통을 계승하여 동학교문의 사실상의 지도자가 된 해월 최시형(이하 해월이라 칭함)의 포교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慶尙·江原·忠淸 산간지방으로부터 전라도 지방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 같은 사실은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1>

布德 24年 (1883) (중략) 3월에 孫秉熙, 孫天民, 朴寅浩, 黃河一, 徐仁周, 安敎善, 呂圭德, 金殷卿, 劉敬順, 李聖模, 李一元, 呂圭信, 金榮植, 金相浩, 安益明, 尹相五 等이 次第로 神師께 拜謁한대⁴⁾

3)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171~172면.

4) 天道敎 敎理 臨時講習會, 「天道敎書」, (「亞細亞研究」10, 1962. 11), 297면.

<사료-2>

布德 25年(1884) (중략) 6월에 神師 指導의 嫌으로 益山 獅子庵에 隱居하
실새 朴致京의 周族으로써 凡 四朔동안을 經過하시다.⁵⁾

<사료-3>

布德 二十七年(1886) 丙寅에 (중략) 神師 時在前域村하야 自溷於野人이러
니 孫天民 朴寅浩 李榮永 權秉一 權秉德(惠의 誤記) 林德賢 徐致吉 朴致敬
(京) 安呂吉 朴時堯 稍稍 來謁이러라.⁶⁾

<사료-4>

布德 二十九年(1888) 戊子에 (중략) 神師 與道儒十餘人으로 至全州 參儀里
(參禮)러니⁷⁾

<사료-5>

布德 29년(1888) 戊子 1월에 神師 全州에서 祈天式을 畢하시고 徒弟十餘
人으로 더불어 參禮里 李夢老家에 往하시니⁸⁾

<사료-6>

姜大說 羅州人 布德 25년(1884) 入道⁹⁾
李炳春 全州人 布德 28년(1887) 入道¹⁰⁾

위의 인용사료 중에서 <사료-1>에 나오는 인물 중의 1인인 尹相五는 전라북도 扶安 新리에 거주하는 인물이었으며, <사료-2>의 朴致京(敬)역시 전라북도 礪山 출신이었다. 1880년대 후반이 되면 윤상오와 박치경 외에 이몽로, 강대열, 이병춘 등 전라도 출신의 동학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료-2·4·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월의 포교 지역이 전라도 익산, 삼례, 전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80년대에 해월이 오늘날의 전라남도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까지 내려와 포교를 행했다고 하는 기록은 아직까

5) 위의 책, 298면.

6) 吳尙俊, 「本教歷史」, (「天道教會月報」22, 1912년 5월호), 24면.

7) 위의 책, 24면.

8) 天道教 教理 臨時講習會, 앞의 책, 300면.

9) 李敦化編, 「天道教創建錄」, (天道教中央宗理院, 1934), 580면.

10) 위의 책, 583면.

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동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회자되고 있던 그 당시 전라남도 지방에도 동학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전라남도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의 민중들 역시 동학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해월을 만나 직접 동학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경상도나 충청도 등지에서 지하포교를 펼치고 있던 해월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남 구례에 거주하던 유생 황현의 《梧下記聞》에 보면, 수운이 동학을 포교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황현의 이 같은 기록은 수운 재세시 전라도 지방에도 동학이 널리 포교되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때에 경주에 최제우란 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천신이 난을 내린다’ 하여 문서를 짓고, 요언을 만들고 부적과 주문을 쓰는데 그 학은 역시 천주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서학과 구별하기 위해 동학이라 개칭했다. 그는 知禮, 金山 및 호남의 珍山, 錦山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들을 속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계를 받게 하고 선언하기를 ‘이씨가 장차 망하고 정씨가 장차 일어나서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동학을 하는 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들은 다만 앉아서 천주만 외고 진주를 보좌하면 장차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경신·신유사이인데¹¹⁾

이상과 같이, 보수 유생의 시각에 의해 동학을 철저히 사도로 바라보면서 서술하고 있는 《오하기문》의 내용을 통해 역설적으로 수운 당시의 동학이 민중에 널리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운이 전라도 지방의 진산·금산의 산골에서 포교활동을 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학계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전남 지방에 동학이 포교되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의 《오하기문》의 내용을 보면 수운 당대부터 이미 동학은 전남지방에 인접한 전라도 남원·진산·금산 등지까지 포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전남 지역에도 동학이 전파되고 그에 따라 동학에 입도한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교조 수운이 ‘暗野聚黨 平世思亂’¹²⁾한다는 죄목으로 처형된 이후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즉 경상도 지방 등과 마찬가지로 1864년 이후 전라도 지방에서의 동학 포교활동과 교세의 발전 역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거나

11) 黃玹, 『梧下記聞』 第 1筆

12) 『日省錄』 高宗 元年 甲子(1864) 2月 29日條

지하로 잠복해 들어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18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해월을 비롯한 동학교단 지도부의 활발한 포교활동에 힘입어 전라도 지방에서의 동학 포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전라도 지방의 제 3단계 동학포교는 189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즉 1890년에서 18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1880년대까지 오늘날의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던 동학의 포교활동이 전남 서남부 연안지방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전개되기에 이른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후일 갑오년의 봉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라도 출신의 유력한 동학 접주들을 해월이 두루 만나고 있는 사실도 보인다. 이 점은 그간 학계에서 간과해왔던 문제인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갑오년 이전에 이미 해월과 소위 南接 접주들과의 일정한 접촉 사실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그 근거 사료와 그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7>

布德 三十二年(1891) 三月에 湖南道人 金永祚 金洛喆 金洛封 金洛三 南啓天 孫和中이 來謁이어늘 神師曰¹³⁾

<사료-8>

六月(1891년)에 神師 在職錦谷(태인 지금실의 漢字名; 필자 주) 金基範(金開南의 字)家러시니 金溝道人 金德明이 以夏衣五件으로 來獻하고 基範이 亦以夏衣로 製呈이러라¹⁴⁾

<사료-9>

庚寅(1890년) 六月 初七日 與舍弟 洛封으로 入道 十七日에 舍弟 洛柱 與從弟 洛貞 洛庸 入教後 自七月 布德漸進¹⁵⁾

<사료-10>

布德 三十二年(1891) 辛卯에 本郡 李仁煥 李芳彦 文南澤 諸氏가 敎門에 入하다 是時에 長興 寶城 康津 莞島 各郡에 布德이 大振하여 信徒가 數萬에 달하다.¹⁶⁾

13) 吳尙俊, 「本敎歷史」, (「天道敎會月報」23, 1912년 6월호), 18면.

14) 吳尙俊, 위의 책, (「天道敎會月報」24, 1912년 7월호), 22면.

15) 筆者未詳, 「金洛喆歷史」, 1면.

16) 筆者未詳, 「附錄 天道敎 長興郡宗理院」, (「天道敎敎會月報」163, 1924년 4월호), 47면.

<사료-11>

故 源菴 吳知泳 先生은 (중략) 布德 三十二年(1891) 辛卯 三月 十二일에 入道하여 布德 三十五年 甲午에 全琫準 先生과 東學大將을 하셨고(「還元錄」, 천도교연합회)17)

이상의 사료를 통해 우리는 1890년 초반에 이미 이른바 ‘南接’의 거두들인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이방언, 오지영 등이 동학에 입도하거나 당시 동학 교단 최고지도자 해월과 접촉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사료-10>을 통해서도 갑오년 3년 전부터 장흥, 보성, 강진, 완도 등 전라남도 서남해 연안지방에서도 동학이 널리 포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10>은 특히 1894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장흥 石臺를 중심으로 약 3만 명에 달한 동학농민군과 경군·일본군·민보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토벌군 사이에 치열한 최후 전투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 즉, 갑오년 12월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의 완강했던 최후 저항은 수년 전부터 뿌리내린 탄탄한 동학 교세 및 그 조직적 기반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890년대 전라도 지방의 동학포교는 60년대와 80년대에 수운·해월에 의한 동학 포교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당시 동학교단 최고지도자인 수운이나 해월이 직접 포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1880년대에 해월의 지도를 받고 90년대에 이르러 전라도 지방 동학의 중견 지도자로 성장한 김낙철, 남계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이방언, 오지영 등이 중심이 되어 포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1890년대 초반 제 3단계 전라도 지방 동학포교는 해당 지방에서 중견 지도자로 성장한 전라도 출신의 동학 접주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포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 같은 90년대 전라도 지방 동학포교의 새로운 양상은 전라도 출신 동학접주들의 독자적인 세력화와 함께 해월 중심의 교단지도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이었다. 갑오년에 봉기를 주도했던 인물들 대부분이 바로 1890년대 초반의 포교활동을 통해 자신들과 연결되는 독자적인 세력 형성¹⁸⁾과 함께 이 지방의 유력한 동학

17) 盧鏞弼,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 (『東亞研究』 19,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9. 12), 59면에서 재인용.

18) 동학 포교 조직의 특징은 淵源制(또는 聯臂制)라 하여 철저한 인적 계보 중심의 점조직이자 비밀조직이라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계보를 중시하는 포교 조직은 포교활동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갖는다. 갑오년 당시 각 지방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바로 이러한 동학포교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채 이루어지게 된다.

교단지도자로 성장했던 인물과 일치되고 있는 점을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장흥지방 동학포교

그렇다면 장흥 지방에는 언제쯤 동학이 전해지는 것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장흥지방에 동학이 포교되는 시기는 전라도에 동학이 포교되는 단계 중에서도 제 3단계로 짐작된다. 즉, 1861년 12월경 전라도 남원 땅에 최초로 동학을 포교한 수운과 1880년대에 해월에 의하여 지금의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을 널리 알려지고 난 이후, 주로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출신의 동학 교인들이 동학교문의 중견지도자로서 성장하여 독자적인 포교에 나서는 시기인 189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장흥지방에서도 동학에 입교하는 교인이 나온다. 다음 사료가 바로 그 예이다.

<사료-12>

布德 三十二年(1891) 辛卯에 本郡 李仁煥 李芳彦 文南澤 諸氏가 敎門에 入하다. 是時에 長興 寶城 康津 莞島 各郡에 布德이 大振하여 信徒가 數萬에 達하다.¹⁹⁾

위의 <사료-12>에 의하면 갑오년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친 이인환, 이방언 등이 1891년에 동학에 입문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이 입교한 시기는 갑오년 3년 전으로서 갑오의 봉기 이전이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장흥의 이인환, 이방언 외에 장흥 인근의 강진·보성에서도 1891년에 동학에 입도하는 인물이 나온다. 다음의 사료가 바로 그것이다.

<사료-13>

金光泰 康津人 布德 三十二年 入道²⁰⁾
廉鉉斗 寶城人 布德 三十二年 入道²¹⁾

19) 앞의 주 16)과 같음.

20) 이돈화편, 앞의 책, 599면.

21) 위의 책, 601면.

위 <사료-13>의 내용은 앞 <사료-12>의 ‘장흥, 보성, 강진, 완도 각 군에 포덕이 대진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천도교창건록》은 1934년 당시 생존하고 있던 천도교인 중에서도 돈독한 신앙을 가진 생존 인물들만의 인명록이라는²²⁾ 사실을 고려한다면, 1891년을 전후한 시기에 장흥을 위시하여 인근 지방에서 동학에 입교한 교인의 숫자는 상당수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동학의 포교는 ‘나에게 도를 전해준 이를 淵源이라 하고 내게서 도를 받은 이를 聯臂라고 하여’²³⁾ 철저한 인적 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장흥지방 동학의 연원은 과연 누구이며 장흥의 동학 도인들은 누구로부터 受道²⁴⁾ 하게 되는 걸까?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지방의 동학포교는 대체로 동학 교조나 2세 교주 해월의 직접 포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월로부터 동학의 도를 전해 받은 이 지방 출신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이다. 즉 해월의 지도를 받은 尹相五, 朴致京(敬), 南啓天, 金洛喆, 孫化中, 金基範(開南), 金德明, 吳知泳, 吳權善 姜大說 등이 바로 그들이다.

추측컨대 장흥지방에 동학이 전래되는 기원은 1880년대에 이미 전북·익산·부안 지방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해월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장흥의 李仁煥, 李芳彦 등이 해월의 은거지를 수소문하여 직접 찾아가 受道했거나, 아니면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출신의 동학 접주로부터 受道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로서는 최초의 장흥 동학 도인인 이인환, 이방언 등이 해월로부터 직접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 받았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후자 쪽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기록만이 보인다. 다음의 내용이 그 예이다.

<사료-14>

布德 三十五年 甲午에 (중략) 燒室家屋하고 流離散亡者 其數를 不知하은 中 尹世顯氏 等 數人은 逃身 至光州 羅州 長成 等地하여 乞食 或 곤리로 生命을 支保하다. 翌年 十二月 日에 潛入故鄉하여 率妻子移居 長興郡 大德面 蓮池里(本 住康津郡) 而吾道の 將來를 發展키로 親히 全州 任實 等地에

22) 李敦化編, 『天道教會創建錄』, (天道教中央宗理院, 1934), 天道教創建錄緒言 참조.

23) 蓮史, 「淵源問答」, (『天道教會月報』131, 1921. 7), 61면.

24) 동학에서는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기존 동학교인)를 통해서 동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해 받는 것을 受道 즉 ‘도를 받는다’라고 하며 受道하는 의식절차는 동쪽이나 혹은 북쪽에 壇을 설치하여 淸水를 모신 다음 향을 사르고 4拜 후 初學呪文(爲天主願我情 永世不忘萬事宣)을 전해받는 것으로 끝난다.(『東經大全』癸未版「入道式」참조).

道の 絆錄을 求하다가 漢菴 許선氏를 逢하여 系統的 傳脈을 得하고 長興, 康津, 莞島 等地에 布德할새²⁵⁾

위의 <사료-14>의 내용을 보면 본래 강진의 동학 도인이었던 윤세현은 갑오 12월 조일 연합토벌군의 농민군 大虐殺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을미년에 장흥 대덕으로 피신하여 동학 조직의 복원에 나서고 있다. 그는 장흥·강진 지방 동학 조직의 복원을 위하여 그 계통적 연원을 전북의 전주 임실과 연결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동학 조직은 철저한 인적 계보를 중시하는 조직인데 장흥·강진 동학 조직의 복원을 위하여 그 연원을 전주와 임실에서 구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갑오 이전 장흥·강진 지방 동학 조직의 연원 역시 전주 임실 지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을미년 동학 조직의 복원 과정에서 다시 전주 임실지방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⁶⁾ 요약하자면, 장흥 일대에 동학이 전래하게 되는 계기는 이인환, 이방언, 윤세현 등 장흥·강진 지방 인물들이 이미 1880년대부터 전래되어 1890년대에는 전라도 출신 동학지도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던 전북지방의 동학 교인들로부터 동학의 가르침을 ‘受道’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흥·강진 지방에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주·임실 지방으로부터 동학이 전래되어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장흥 일대에서도 어느 지역의 어떤 인물이 동학에 남 먼저 입도하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갑오년 봉기 당시 장흥 지방 출신으로서 동학의 大接主 혹은 首接主·接主출신으로 농민군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은 南上面 墨村²⁷⁾의 이방언, 大興²⁸⁾ 접주 이인환²⁹⁾, 熊峙³⁰⁾를 근거로 활약하고 있는 具教轍³¹⁾, 龍溪面 瓦里³²⁾의 李士京(仕京이라고도 함), 古邑面 聖山里³³⁾의 金學三 등이 있다. 또한 장흥 현지의 구전에 의하면, 갑오년에 활약이

25) 筆者未詳, 『附錄 天道教 長興郡宗理院』, 앞의 책, 47면.

26) 1991년 10월 7~8일 보성 장흥 강진 일대의 답사에 동행하였던 천도교 상주선도사 표영삼 선생 역시 장흥 동학 포교의 연원을 전주 임실 지방이라고 증언해 주었다.

27) 현 蓉山面 接亭里 二區 묵촌마을.

28) 현 大德邑으로서 1914년 大興面과 來德面이 합쳐져 대덕면이 되고 1988년에 대덕읍으로 승격되었다..

29) (前略) 傳聞 李仁漢(煥의 誤記: 筆者註) 起包干長興大德面 而熊峙東學 與之會云(朴翼鉉 『日史』 甲午 11月 25日條)

30) 熊峙는 갑오년 당시에는 장흥군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에 보성군으로 이속되었다.

31) 聞教轍之徒 方在熊峙面 殺掠人民 命守城將 任昶(琪의 誤記: 筆者註)南 率官軍討之得捷(寶城 會泉面 聆川里居住 文在國氏 所藏 『東學關聯文書』)

32) 현 夫山面 龍盤里

두드러지는 接으로 목촌의 이방언접(현지에서는 語山接이라고 함), 용계의 이사경접(현지에서는 熊盤接이라고 함), 용치의 구교철접(현지에서는 접주 이름은 모르고 있음)을 들고 있는데 이 세 접과 장흥 일대의 최초의 동학포교와 일정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갑오년에 장흥 동학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하는 어산접·용반접·용치접이 자리하는 지역은 일찍부터 동학포교가 활발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갑오년에 이르러 동학교세가 탄탄한 이 세 지역의 동학 조직이 근간이 되어 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장흥 출신 접주들의 가문을 조사해 보면, 이방언 이사경 등은 유명한 南山面 鄉約契를 주도하며 세거해오던 仁川李氏 가문으로서 장흥 일대의 유력 가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갑오년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한 날 한 시에 희생된 5명의 인물과³⁴⁾ 古色(관산) 접주 김학삼은 장흥에 세거해 오던 김해 김씨 출신 가문이다. 이런 사실은 장흥 일대 초기 동학 포교가 인천 이씨와 김해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³⁵⁾ 지역적으로는 이방언 접주가 살고 있던 지금의 용산면 어산리, 이사경 접주의 세거지 부산면 자라번지, 구교철 접주가 웅거했던 보성의 용치, 이인환 접주가 기포했던 대덕읍, 김학삼 접주가 살았던 관산읍 성산리 등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점차 인근 지역으로 포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장흥 일대의 유력 가문 출신 인물들이 무슨 연유로 지배층과 향촌사회 보수 유생들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아오던 동학에 입도하는 것일까? 장흥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오늘날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는 이방언 접주의 경우, 증손 李鍾燦(용산면 접정리 2구 인암마을, 1938년생)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접주의 부친 重吉은 당시 목촌 일대에서 상당한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며 마을 뒤로 筆峰이 자리하고 있는 목촌은 대대로 학문을 하는 선비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알려져 왔다고 한다.³⁶⁾ 더욱이 이방언 접주 자신은 장흥이 낳은 유명한 유생 吾南 金漢燮(1838~1894)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³⁷⁾ 이런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방언 접주의 동학 입교는 신분면에서나 사회경제적 처지에 비추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도대체 동학의 무엇이 이 접주를 매혹

33) 현 冠山邑 聖山里

34) 장흥 白萬植씨 조사자료에 의거함.

35) 필자가 1991년 11월 19일 현지 답사시에 만난 용산면 月林里 거주 金 云(김학삼접주 증손, 1934년생)씨는 김접주의 고모할머니가 바로 이접주의 모친으로서 이방언 접주와 김학삼 접주가 인척관계임을 밝혀 주었다.

36) 장흥군, 『마을유래지』, (1986), 210면 목촌 마을항 참조

37) 황현, 『오하기문』 제삼필 갑오 12월 7일조.

하였을까? 필자의 단견으로 짐작한다면 첫째 이방언 접주는 당시 朱子學 一尊主義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적 안목을 지녔던 인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동학입교후 오남 김한섭과 결별한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그가 일찍이 봉건관료들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전주감영까지 찾아가 남상면 일대에 대한 감세 조치를 얻어내었다는 이야기가³⁸⁾ 전해오는 점으로 보아 농민들의 처지를 상당히 이해하는 인물로서 남상면 일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주자학의 폐해를 지적하고 天道에 합치하는 수행을 통해 새 세상을 이루자는 동학의 가르침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주자학적 배경을 가진 수운의 제자들이 “우리 도는 결코 害民敗俗하는 샛된 도가 아니라”³⁹⁾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방언 역시 동학이 지닌 진보적인 측면을 일정하게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당시 농민들의 처지와 입장을 크게 방영하고 있는 동학의 교리에 대하여 공감함으로써 입도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방언 외 이인환·이사경·구교철·김학삼 등의 입교 동기도 이 접주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혈연·지연관계를 매개로 입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이방언과 같은 유력 가문 출신이 동학에 입도한 것이 장흥 동학 교세의 조직화와 갑오 당시 농민군 기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3) 장흥지방 동학포교와 향촌사회 동향

주자학 일존주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봉건적 조선왕조 체제하에서는 주자학을 비판하거나 주자학의 變容은 邪學 또는 異端으로서 허용되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자학에서 금지하는 불교·도교적 요소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적 요소들마저 널리 수용하여 조선후기에 새로운 변혁사상으로 나타났던 東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은 초기부터 지방관 을 비롯한 지배층과 향촌사회의 보수적 지식인(유생)들로부터 가혹한 배척과 탄압을 받았다. 동학의 교조 수운의 순교는 바로 이러한 경직된 조선왕조 지배층과 향촌사회 보수 유생들이 결탁하여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동학은 그 같은 가혹한 탄압과 배척아래에서도 끈질긴 사상적 생명력과 함께, 동학을 믿고 따르는 신심 깊은 수운의 제자들에 의하여 1860년대 초기에 이미 경상도 일대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1880년대에는 강원

38) 박석교, 「동학혁명과 이방언장군」, (『신인간』 301, 1972.11), 32면.

39) 昨年 崔漢捉囚於鎮營 而不幾日 弟子數百名 來所鎮營 謂以 渠輩之學 本非害民敗俗 則速方渠師(『비변사등록』26, 철종 계해 12월 20일조 정운구서계)

도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비밀히 포교하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평야지대인 충청도 남부지방과 전라도 지방에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1890년대에는 전라도 서남부 지방인 장흥, 보성, 강진, 해남, 완도 지방에까지 전파됨으로써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기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동학 포교는 동학을 불법시하는 각 지방 수령들과 주자학 일존주의에 매몰되어 주자학적 봉건 지배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왕조 체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향촌사회 유생들로부터 異端 邪說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가혹한 탄압과 배척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鴛魯之鄉’을 자처하는 경상도 일대의 유생들이 동학에 대해 보여준 배척과 탄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보수 유생들은 지방관과 중앙 조정에 대한 上訴를 통해 동학 금단을 역설하였으며, 書院을 중심으로 通文을 통해 동학 배척에 적극 나섰다. 향촌사회에서는 보수 유생들이 주도하여 동학 배척과 탄압을 위한 鄉約 실시, 五家作統法 시행, 마을별 立規節目(또는 條約節目)을 제정하여 동학이 포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중앙 조정에 대하여 동학을 배척하고 금할 것을 상소한 대표적인 보수 유생으로는 前行護軍 李源祚(1864), 전라도 남원 유생 金澤柱(1893), 경상도 유생 金相虎(1893), 副護軍 朴圭燦(1893), 權鳳熙(1893), 李僣(1893), 李南珪(1893) 등이 있으며 향교나 서원을 중심으로 동학을 배척하고자 했던 경우는 경상도 尙州의 愚山書院과 道南書院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⁴⁰⁾ 한편 향촌 사회에서 동학을 배척하고 금하기 위하여 향약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1864년 행호군 이원조의 상소에서부터 이미 제시되었으며,⁴¹⁾ 갑오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五家作統의 시행 역시 이원조의 상소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880-90년대 들어와 동학 도인들이 그간의 地下布教 형태에서 벗어나 공공연히 포교에 나서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경상도 상주 북서부 지방에서 발견된 동학을 금하는 절목을 참고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15> 各洞立規條目

40) 서원 중심의 동학배척운동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崔承熙, 『書院((儒林)勢力의 東學 排斥運動 小考-1863년도 東學排斥 通文分析-』, (『韓祐勳 博士 停年記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41) (前略) 道內儒生 今方 聚會同志 輪說講會 申明鄉約 糾察不靖(『日省錄』 高宗 元年 甲子 3月) 1日條

- 各洞五家作統 統首統下 互相窺察事
- 若統中有殊常異道之輩 卽告本洞上任事
- 若有匪流賊徒 各洞齊聲共捉事
- 匪類困侵無過之人 卽合勢押上干官庭事
- 浮踪無根之人 不接各洞事⁴²⁾

이처럼 동학에 대한 탄압이나 배척은 중앙 조정과 향촌 사회 보수유생들을 위시하여 가장 가혹한 탄압과 배척을 일삼았던 측은 동학이 포교되는 지역이나 동학교문의 지도자들이 피신하여 은거하는 지방의 수령들과 吏胥들이었다. 특히 지방수령·吏胥들은 동동학 도인이 아닌 일반 농민들에게 동학 도인라는 이름을 씌워 가림주구를 일삼고 석방을 구실로 거액을 수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동학 도인들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며 조직화된 교세를 발판으로 공개된 형태의 동학 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는 1890년대 들어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동학교조 수운으로부터 1890년대까지 동학교단이 지방 수령들로부터 받았던 탄압사례를 동학 교단사와 관변기록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동학 탄압사례 현황

- 1864. 3. 10 대구 감영에서 교조 수운 효수형, 제자 20여명 유배됨.
- 1864. 3 대구 감영 해월 최시형에 대한 체포령을 내림.
- 1864. 3. 13 경주부에서 경주 도인 崔益倫, 益德교인 劉尙浩 체포되어 최맹륵은 석방, 유상호는 귀양감.
- 1864. 3~5 최시형 체포 차 포졸들 안동집주 李武中家 급습.
- 1871. 3. 10 이필제, 최시형 등 영해에서 교조신원운동 전개 실패로 수백 명 동학 교인이 포살되고 효수되거나, 원지정배 당함
- 1871. 8 이필제의 聞慶作變 실패로 최시형 등에 대한 경상감영의 수배 강화됨.
- 1871. 9 영월군 포졸 朴모 寧越 稷谷에 은거중인 최시형, 강시원 체포하려 함.
- 1872. 1 교조 최제우의 長子 世貞 체포되어 襄陽 獄에 갇힘.

42) 한말 慶北 尙州郡 化北面 龍游里에 거주하면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기 위하여 화북면 執綱을 지냈던 李明新(1829~1899)家에서 나온 동학관련 문서에 나온다. 이명신가 소장 동학관련문서는 필자가 1988년에 우연히 구득 보관하고 있다가 수년 전 정읍 황토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기증하였다.

1872. 3 교조 최제우의 次女와 장자 세정의 妻 체포되어 麟蹄 獄에 갇힘.
1872. 5. 12 世貞 양양 옥에서 杖死당함.
1885. 6 충청관찰사 沈相薰, 단양군수 崔喜鎭이 최시형에 대한 체포령을 강화, 次道主 姜時元 교인 李敬教 金成集 체포함.
1889. 7 1884년 10월에 동학 포교조직으로 정했던 六任制를 관의 지목이 심해짐으로 인하여 폐지함(敎人 姜武卿 方秉九 丁永燮 趙尙甲등 체포됨)⁴³⁾
1889. 10 동학 도인 徐仁周 왕명에 의해 체포됨.
1890. 7 徐仁周 五百金을 내고 석방됨.
1893. 2. 11 동학 도인들의 광화문 伏閣上疏 직후 동학 도인에 대한 탄압 한층 강화됨.⁴⁴⁾
1893. 2. 28 광화문 복소 疏頭에 대한 체포령 내림.⁴⁵⁾
1893. 4. 10 보은취회 주도자 徐丙鶴 金鳳集 徐長玉에 대한 체포령 내림.⁴⁶⁾

이상의 탄압 기사는 자료에 나타난 것만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탄압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의 구실은 동학은 異端 邪說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동학 도인인 일반 민중들을 위협하여 가림주구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렇다면 1890년대 들어와 동학이 장흥 일대에 널리 포교되어질 무렵에 장흥 지방의 향촌사회 유생들과 장흥부 등의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마을 단위에서의 대응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1890년대 초반의 장흥부, 벽사역, 장흥 향교와 諸 書院, 兵營 등을 중심한 장흥지방 상층지배세력들의 동학 포교에 대한 대응의 내용과 각 마을별 주민들의 대응양상을 차례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장흥 인근의 유생들의 동향은 어떠했던가? 이들의 동향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장흥과 근접한 강진 鵲川에 거주하였던 유생 朴冀鉉(1864~1913)의 《日史》가 있다. 《일사》의 기사년(1893) 1월 14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쓰여 있어 주목된다.

43)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앞의 책, 130면.

44) 이상은 동학 최초의 교단사 「崔先生文集道源記書(1879)」와 국한문으로 『천도교회월보』에 연재되었던 천도교 최초의 교단사 「본교역사(1910~1914)」를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45) 『日省錄』 高宗 三十年 癸巳 2月 28日條

46) 『日省錄』 高宗 三十年 癸巳 4月 10日條

길을 떠나 養士齋의 吾南丈(=金漢燮 1838~1894)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예를 갖추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요즘 세상에 떠들썩한 東學에 대한 말이 나와서 통탄해 마지 아니하셨다. 떠나올 무렵에 즈음하여 나에게 독서에 힘쓸 것을 부촉하며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기위 이렇게 되었으니 그대는 더욱 부지런히 경전을 읽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와 啓明(=박계명)은 각기 집으로 돌아왔다.⁴⁷⁾

이 글을 보면 갑오년 1년 전에 이미 박기현은 당시 강진향교의 掌議로 있던 吾南 金漢燮을 찾아가 세간에 널리 전파되고 있던 동학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리하여 오남 김한섭은 동학에 물들지 말고 힘써 경전을 부지런히 읽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주자학적 이념에 충실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유생들의 동학에 대한 걱정은 단순한 걱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결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일사》내용이 그 예이다.

鄉約契를 만들기 위하여 下古齋에 먼 사람들이 모였다. 나 역시 가서 참여하였다. 계에 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서에 이름을 적고 그 이름으로 계전 1량 1전씩을 거두었다. 저녁에야 집에 돌아왔다.⁴⁸⁾

향약계 관급전의 이식을 거두어 내기 위해 나와 金炳輝씨가 재를 넘어 명륜당에 갔다. 어제 이미 향교의 회답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⁹⁾

여기서 향약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이단 사설로 간주되는 동학이 널리 전파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전술하였듯이 동학이 창도되었던 1864년에 이미 행호군 이원조의 상소 내용에 동학을 배척하고 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향촌 사회에서의 향약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조신원운동

47) (前略) 發程得拜吾南丈于養士齋 敘禮敘話 而語及於世所稱東學之說 痛歎不已 臨別囑余勤讀書曰 世既如此 則尤不可不勤讀經傳 余與啓明 各自回家(朴冀鉉, 『日史』 癸巳(1893) 1月) 14日條

48) 以鄉約契創案 一面人會于下古齋 余亦往參 諸願入契者定草件題名而每名下 契錢一兩一錢收合矣 夕陽余反家(위의 책, 癸巳 7月 19日字)

49) 余與金炳輝氏 越嶺往明倫堂 以收納鄉約官給錢利殖次 前日已有校中回文故也(위의 책, 癸巳 8月 7日字)

이 활발히 전개되어 수만 명의 동학 도인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는 1893(계사)년을 즈음하여 장흥과 이웃한 강진에서 향약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던 동학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나 장차 전파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의 하나로 보여진다. 특히 박기현, 박창현(박기현과 從兄弟 간으로 병영을 사수하다 전사)등은 이듬해 12월 동학농민군들이 장흥부와 강진현 병영 등을 차례로 점령할 때 수성군을 조직하여 대항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 지어 보면, 이들이 주도하는 계사년 향약계의 창안은 이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되던 동학을 배척하고 금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흥과 인접한 강진 작천에 거주하던 박기현 등의 유생들이 동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癸巳年 간에 장흥 유생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던가? 유감스럽게도 장흥 유생들이 조직적으로 동학에 대한 금단과 배척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장흥 유생 김한섭이 자기와 동문수학의 처지인 墨村의 이방언이 동학에 입교한 것을 알고 여러 차례 그만 두도록 회유했다는 사실과⁵⁰⁾ 갑오년 7월에 장흥부사 朴齊純의 후임으로 부사 朴憲陽이 부임하자마자 향교에 찾아가 동학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하였다는 사실만이⁵¹⁾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장흥 유생들 역시 이웃 강진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전파되고 있던 동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것이며, 이웃 강진의 향약계의 창안과 유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중심 세력은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림들일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장흥부·벽사역의 吏胥層도 가담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이인환, 이방언, 문남택 등 장흥 지방 최초의 동학 도인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189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초기 동학 교인들에 의한 장흥 지방에의 조직적인 동학포교는 적어도 1~2년은 경과한 뒤의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유림 세력의 대응 역시 동학 포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계사년을 즈음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웃 강진지방의 예를 통해서 장흥 지방 유림들의 대응양상을 추론해 보았다. 향후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면 그 조직적 대응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⁵²⁾

50) 황현, 『오하기문』제 3필 갑오 12월 7일조

51) 보성 회천면 회령리 거주 문재국씨 소장, 동학관련문서 참조.

52) 이 지방 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장흥 지방에서의 동학포교에 대한 향촌

3. 교조신원운동기의 동향

장흥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될 무렵인 1890년대 초반 동학 교단의 교세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방에서의 동학 포교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해월을 중심으로 하는 동학 교단 지도부는 늘어나는 교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기록은 전라도 지방의 교인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단지도부의 조치중의 하나였다.

5月(1891년: 필자주)에 泰仁郡 金洛三家에 至하사 六任帖을 差出하시고
又 扶安郡 金洛喆家에 至하사 또한 六任帖을 差出하시고⁵³⁾

(前略) 神師 南啓天으로서, 湖南 左右道 便義長을 삼으신데⁵⁴⁾

위의 내용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교세를 관리하기 위해 1891년 5월경에 육임제를 부활하여 시행하는 내용과 전라도 전체의 동학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직제로서 便義長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六任制⁵⁵⁾의 경우 1884년 10월에 처음으로 시행하다가 관의 지목이 심하여 1889년 7월에 폐지한 바 있던 것을 1891년 5월에 다시 부활시켜 시행하게 되며, 便義長 제도는 이때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직제였다. 이것은 바로 이 무렵을 전후한 시기 전라도 지방의 동학 교세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동학 교세의 증대와 동학 교단을 둘러싼 시대 상황의 변화에 힘입은 교단 지도부는 동학 포교의 공인과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집단적 시위운동을 공개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오랜 동안 지방관과 향촌사회로부터 탄압과 배척만을 받아오던 교도들은 물론이요 가림주구에 시달리던 일반농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교조신원운동이 본격화되는 1892-3년을 전후하여 오늘날의 전라남도 서남부 지방의 동학교세 역시 현저히 신장되며, 날로

사회 유생들의 대응양상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53) 天道敎 敎理 臨時 講習會, 앞의 책, 302면.

54) 위의 책, 302면.

55) 六任制란 1884년 10월 동학 2세 교주 해월 최시형이 제정한 동학교단 직제로서 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 등 여섯 가지 직책을 의미한다.

확대되는 교세는 신원운동의 가속화와 함께 향후 교단 지도부 중심의 집단행동의 주력을 이룬다.

1890년대 신원운동은 徐仁周와 徐炳鶴의 주도 하에, 당시 동학 교단 최고지도자 해월의 승인 아래 1891년 10월 公州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⁵⁶⁾ 公州聚會로 불린 이 집단시위운동에는 지역적으로는 공주를 중심으로 하고 다수 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 공주취회는 종래 해월의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활발한 사료 발굴에 힘입어 해월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 교인들의 수도 기존에 알려진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대규모적인 공주취회에 장흥 동학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현재까지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그러나 비록 참여했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공주취회는 충청감사로부터 동학 금단을 구실로 동학 도인과 일반 민중에 대하여 가림주구를 일삼는 지방관들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겠다는 題音(답변서)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이 공주취회는 전라도 일대 동학 교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공주취회를 바로 이어 1892년 11월 초에 전라도 삼례에서도 교조신원운동이 대대적으로 열린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의 신원운동인 參禮聚會는 1892년 11월 전라도 參禮에서 이루어진다. 이 삼례취회는 당시 동학교단 최고지도자 해월의 독려 하에 이루어지며, 해월 명의의 敬通⁵⁷⁾이 전국 각지로 발송되어 삼남 일대의 교도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이 삼례취회는 공주취회 이상의 대규모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취회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기지속적인 시위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 교조신원운동 지도부는 전라감사로부터도 성과를 얻어내게 된다.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요구했던 ‘포교의 공인’과 지방수령들의 교도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 금지’의 두 가지 요구 중 후자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고주에 이어 삼례에서도 신원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당시 지방관들의 가혹한 가림주구에 시달리던 일반 민중들은 다투어 동학에 입도하기에 이른다. 지방관들의 부당한 수탈에 맞서 싸우는 동학 교단의 조직력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주 및 삼례취회 직후부터 동학 교단과 일반 민중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동학 교세는 폭발적인 증가 추

56) 吳尚俊, 「本教歷史」, (『天道教會月報』24, 1912년 7월호), 23면.

57) 각 지방의 동학지도자들에게 교주 해월의 명령을 전하는 公文을 말한다.

세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삼례취회에 장흥 지방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기록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는 거리상으로 공주보다 가깝다는 점, 둘째는 공주취회보다 더 대규모이자 장기적으로 계속된 집회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어느 지방이라 할지라도 동학이 포교된 지 1년 정도만 지나면 해월을 중심으로 한 교단 지도부와 연결이 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공주취회와는 규모 면이나 기간 면에서 사뭇 다른 삼례취회에 장흥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 교조신원운동은 1893년 2월 11일 광화문 伏閣上疏 및 斥倭洋 掛書 게시운동의 단계이다. 동학 지도부의 핵심인 嶺南·湖西·湖南 출신 40여명의 교인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3일간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공인을 얻기 위해 벌인 이 복합상소는 수만의 교인들이 과거보는 선비로 분장하여 집결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확대되어 중앙 조정의 지배층과 주한 외국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가운데, 특히 서병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급진적’ 동학 지도자들은 휘하 교도들로 하여금 兵服으로 갈아입게 하고 조정의 兵隊와 협동하여 정부 간담을 소탕하고 크게 조정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며,⁵⁸⁾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축출하려는 ‘斥倭洋’ 掛書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세배척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광화문 복합상소를 주도한 40여명의 간부급 교인 중에는 전라도 출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金錫允(永祚) 金洛鳳(封) 南啓天 張敬夏 趙東賢 孫華(化) 中 襄奎贊 등이 그들이다.⁵⁹⁾ 이 중에 배규찬은 오늘날의 전라남도 務安 출신 동학 지도자였다. 교조신원운동 단계에 전라도 출신 동학 지도자의 이름이 나타나기는 이 복합상소 단계가 처음이다. 무안 출신 배규찬의 복합상소 참여는 장흥과 인근의 강진 보성 출신의 동학 교인 역시 서울 복합상소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시사해준다. 그러나 천도교 측 인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인환 이방언 등 장흥 출신 인물이 복합상소에 참여하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⁶⁰⁾

장흥 동학 교인들이 신원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는 1893년 3월 忠淸道 報恩 帳內에서 열린 보은취회 단계부터이다. 보은취회는 지금까지의 신원운동과는 그 지향을 달리하는 신원운동으로 발전한다. 즉, 보은취회 직전에 있었던

58)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아세아문화사, 1979), 53면.

59) 筆者未詳, 「海月先生文集」, (『大先生事蹟』, 1906년 筆寫本), 78면.

60) 표영삼, 「광화문 복소 교조신원」, (『신인간』 499, 1991. 10), 22~23면.

1893년 2월의 광화문 복합상소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복합상소 해산 직후 각 지방 교인들과 동학 지도자에 대한 관변 측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취회로부터 서울 복합상소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을 ‘온건한’ 형태로 전개해 온 그간의 신원운동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교조신원이라는 최대의 요구가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기존의 ‘온건한’ 신원운동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반 도인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원운동 지도부는 복합상소 직후부터 새로운 차원의 신원운동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보은취회를 주도하게 되는 동학 지도부는 ‘포교의 공인’과 ‘교조의 신원’이라는 그 동안의 교단 중심적 운동목표를 전면 수정하여 당시 일반 도인들과 일반 민중들이 강력한 요구이자 동학 창도 이래의 대외적 슬로건이기도 했던 반외세, 즉 ‘斥倭洋’을 기치로 한 새로운 단계의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보은취회 참여층 가운데 일부 세력은 몽둥이로 무장하는 등 운동의 성격에도 일정한 변화가 온다. 반외세의 기치가 선명히 드러난 보은취회에는 당연히 당시의 동학 교인들은 물론 광범위한 민중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동학이 포교된 지역의 지도자(접주)들을 중심으로 수십 명 혹은 수백명 단위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취회 동정을 탐문 기록한 관변측의 <聚語>에는 보은취회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각 지방 接名이 보이는데⁶¹⁾ 이들 가운데 전라남도 접으로 咸平, 靈光, 羅州, 務安, 順天 등이 나타나고, 천도교 측의 기록에는 장흥 지방에서도 수십 명의 동학 교인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布德 三十四年(1893)에 忠淸道 報恩 帳內會(=報恩 聚會: 필자주)에 參席人 이 數十人에 達하였다.⁶²⁾

1924년에 쓰여진 이 기록에는 장흥에서 참여한 교인들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자료에 의거하면, 1893년 3월의 보은취회에 와서야 비로소 장흥 동학 교인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의 장흥 동학 조직에 관한 자료가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든지, 발굴된 기

61) 「聚語」, (『東學亂 記錄』 上, 1959), 124~125면.

62) 筆者未詳, 「附錄 天道教 長興郡宗理院」, 앞의 책 47면.

존의 자료들 역시 당시 상황을 충실히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로 당시의 상황을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務安의 裴奎贊 같은 인물이 1893년 2월의 복합상소 단계부터 활약하고 있는 점이나, 장흥과 바로 근접한 강진 유생들이 1893년 1월부터 동학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점, 1893년 4월 8일과 4월 29일에 보성군수가 ‘동학당의 취당 기미가 있으면 즉각 적발하여 보고하도록 군내 각 면에 훈령을 내리고 있는 점’⁶³⁾에 비추어 장흥 동학 교세는 1891년 처음으로 포교되기 시작하여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더욱 조직화되며, 1893년 3월의 보은취회에는 수십 명이 참여할 만큼 크게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93년 3월 보은취회 이후 장흥 동학 교세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어 일반 농민층 사이에서 널리 신앙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장흥지방 동학 교세의 조직화는 1891년에 입도한 이인환, 이방언 등에 의해 서서히 이루어지며, 동학 전래 직후인 1891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네 차례의 신원운동 단계를 통해 점차 조직화되고, 대규모 집회로서 교단 최초의 공개된 시위운동으로서 전라감사 李耕植으로부터 동학 교인들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부당한 수탈행위를 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삼례취회는 장흥을 위시한 전라도 각 지방 민중들로 하여금 다투어 동학에 입도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례취회의 결과는 전라도 지방의 동학 교세조직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장흥지방의 동학 교세 역시 삼례취회 이후 급격히 신장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급격히 신장되고 조직화되어 가던 장흥 지방 동학 교세는 계사년을 전후하여 향촌사회의 이곳저곳에서도 그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될 만큼 성장하였으며,⁶⁴⁾ 1893(계사)년 3월의 보은취회에 수십 명의 교도들이 참가할 만큼 교세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여러 단계를 계기로 장흥지방 동학 교세는 향촌사회 유생들로부터 조직적인 배척을 받을 만큼 급격히 성장하고, 이듬해인 갑오년에는 강진, 보성, 해남, 완도, 능주 등 전라남도 서남부 지방을 통괄 지휘하는 주력군이 될 만큼 발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63) 신용하, 「갑오농민전쟁과 두레와 집강소의 폐정개혁」,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7. 12), 90면.

64) 장흥과 이웃한 강진 작천 유생 박기현의 일기 『日史』 계사년 1월 14일자 내용에 東學에 대한 언급하는 기사가 있는데 박기현이 언급하고 있는 동학은 삼례 취회이후 공공연한 포교활동과 더불어 전라도 각 지방에 동학에 입도하는 민중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후 향약계를 조직하고 있는 사실은 강진 장흥 일대에 퍼지고 있는 동학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장흥 지방 동학 교세의 본격적인 조직화는 癸巳(1893)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 1차 동학농민혁명기의 동향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3월 21일 茂長起包, 즉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들의 동향에 대한 그간의 통설은 1894년 3월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기포할 때 장흥을 포함한 전라도 각지의 동학 접주들 역시 휘하의 동학 교인들과 일반 농민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고 이해하여 왔다. 특히 이 제1차 동학농민혁명에는 장흥 출신인 동학 지도자인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등이 기포하여 전봉준 진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⁶⁵⁾

지금까지의 통설에 나오는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들이 제 1차 동학농민혁명 가담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1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한 후 3일을 머물다가 白山으로 진출하였고, 백산에 진출한 전봉준 군은 3월 25일 그곳에서 ‘湖南倡義大將所’의 이름으로 전라도 각지로 보내는 두 번째의 檄文을 발하게 된다. 그 요지는 양반과 부호들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小吏들로 하여금 봉기하여 농민군에 가담하라는 것이었다. 백산에서 발한 이 격문에 호응하여 전라도 각지의 동학농민군들이 기포하였으며 이때 장흥에서도 역시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등이 지도자가 되어 기포하였다는 것이다.⁶⁶⁾

그러나 기존의 통설에서는 3월 기포 후 장흥을 비롯한 전라도 각 지방 동학농민군의 기포상황 즉 기포의 주도자·인원·일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조차도 지금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기존의 통설, 즉 3월 25일 백산에서 포고된 격문에 호응하여 장흥을 비롯한 전라도 각지의 동학농민군들이 곧바로 기포하였다는 사실은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章에서는 무장기포, 즉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각지 농민군들의 기포상황이 어떠하였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장흥 동학농민군들의 동향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월 무장기포 직후 장흥 동학농민군들의 동향을 언급한 자료는 오지영의 《동학사》가 있다. 황현의 《오하기문》과 관변 측의 《양호초토등록》은 ‘장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장성 황룡촌 전투에 대해 간단한 언급을

65) 吳知詒,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1979), 470면.

66) 吳知詒, 「東學史」, 앞의 책, 468~470면.

했을 뿐 장흥 관련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오지영의 《동학사》야말로 무장기포 당시 장흥지방 농민군 동향을 증언해주는 유일무이한 자료인 셈이다. 그렇지만 《동학사》는 또한 갑오 4월 23일 장성 황룡촌전투 이전 장흥 농민군 동향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다. 다만 장흥, 접주 이방언이 장성 황룡촌 전투에 참여하여 농민군 측의 무기로 ‘장태’를 고안하여 사용함으로써 京軍을 격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장기포 당시 장흥 동학농민군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기에는 알려진 자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3월 기포 후 장흥 동학농민군들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황룡촌 전투에 대한 내용을 《동학사》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이때 東學軍들은 官軍을 誘引하여 全羅道南端遠地까지 끌고 내려가며 一邊 사이길로 빠져 나와 全州城으로 향하여 오던 차 長城地界에서 忽然 官軍을 만나 大激戰을 하여 勝捷하였다. 東學軍領率將 吳河泳 李邦彦 등이 數百名의 軍士를 거느리고 靈光邑으로부터 來路로 빠져 長成地界에 到達하자 忽然 山北便 길로서 洪將後軍一隊의 兵을 만나 싸우게 되었다. 洪將後軍一隊는 原來 古阜로로부터 左便길로 드러 長城 갈재를 넘어 東學軍의 앞길을 막고져 내려오던 次 長成 黃龍江에서 兩軍이 서로 接觸하게 되었다. 東學陣中에서 미리 準備하였던 대로 만든 장태 數十臺를 山地 頂上으로부터 나리굴리며 官軍을 射擊함으로 官軍은 미처 精神을 收拾할 사이도 없이 屍殺을 당하여 洪陣將 李敎應 裴根煥 二名과 官兵 百餘名을 沒死시키고 大砲 三門과 洋銃 百餘個을 빼앗았다.

대장태라 하는 것은 靑竹으로서 얼거 닭의 장태와 같이 만든 것으로서 그 민혜 軍 박구를 붙인 것이며 그 속에는 軍士가 안저 銃질을 하게 된 것이며 이 장태를 만든 사람은 長興接主 李邦彦임으로 그의 別號를 李장태라고 불렀었다.⁶⁷⁾

위의 황룡촌 전투는 갑오 4월 23일 장성 황룡강을 사이에 둔 月坪里 일대를 중심으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초토사 홍계훈의 선발대 즉 중앙에서 파견된 京軍간에 전개되었다. 농민군은 22일 영광을 출발하여 23일 오전에 장성에 도착하였으며 이날 점심을 먹던 중 장위영 대관 李學承, 元世祿, 吳建泳 등이 이끄는 300명의 경군 선발대와 맞닥뜨려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관

67) 吳知泳, 「東學史」 앞의 책, 478~479면.

군 측의 기록인 《양호초토등록》에 실린 이 날의 전투 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전략) 우선 중사군관 李敷應 裴根煥으로 하여금 倫音을 받들어 저들에게 선유하도록 馳往케 하였으나 이내 소식이 없어서 또 隊官 李學承 元世祿 吳建泳 등에게 명하여 병정 300명을 영솔하고 장성 등지로 나아가 저들의 情形여하를 살피라 하였고 23일에는 (중략) 그런데 同日 석양에 출진 병정들이 황망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아군이 겨우 장성 月坪에 당도하였을 때 저들도 마침 황룡촌에 도착하여 점점 서로 접전하게 되어 일장의 시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에게 쿠르프로 한 방을 쏘자 포환에 맞아죽은 자가 수백 명에 이르러 저들 만여 명이 악에 바쳐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해 와서 앞을 막는지라 30여리를 쫓고 쫓기다가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아군은 피곤하여 顛倒하면서 창황히 환진하였으나 한참 추격을 당할 때에 대관 이학승이 뛰쳐나가 칼을 들고 홀로 후방을 담당하다가 병정 5명과 더불어 저들에게 장해를 입었다” 하니 참악막심이오며 쿠르프로 1좌와 回旋砲 1좌 및 탄환 약간도 잃었으니 또한 매우 분완한 일입니다.⁶⁸⁾

위의 두 기록을 종합해보면 23일 오후 점심을 먹던 도중 경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농민군 다수가 死傷하자 동학농민군은 ‘장태’를 이용하여 결사적으로 경군을 추격하여 대관 이학승을 전사케 함은 물론 경군 측의 신식 무기인 쿠르프로 1문 탄약 등을 노획하는 일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장흥 접주 이방언이 고안하여 사용하였다는 ‘장태’에 관해서는 《동학사》에서만 언급하고 《양호초토등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황현의 《오하기문》 제 일필 갑오 4월 23일초와 나주 유행 겸산 이병수의 《금성정의록》 갑편에는 황룡촌 전투 당시 ‘장태’가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장태’의 사용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학사》는 ‘장태’를 장흥 접주 이방언이 창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흥 접주 이방언을 비롯한 장흥 농민군들이 4월 23일 황룡촌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농민군 본영에 합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장흥 농민군은 적어도 3월 25일 백산 격문이 포고된 직후나, 아니면 4월 7일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주 감영군을 물리친 후 남하하고 있던 경군을 유인함과 동시에 농민군 측의 군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도 서남으로 향하여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등 남도의

68) 「兩湖招討謄錄」, (『東學亂記錄』上, 1959), 171면.

성음을 잇달아 점령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니면 최소한 동학농민군들이 함평에서 장성으로 진격해오는 도중인 4월 22일 이전에는 합류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 어디에도 4월 23일 황룡촌 전투 이전 장흥 동학농민군들이 전봉준 군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장흥 농민군들이 황룡촌 전투가 있기 전에 전봉준 군에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이다.

이 무렵(3월 21일 무장 포고문 포고 직후: 필자주) 전봉준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각지로 밀사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⁶⁹⁾

창의문(=무장포고문을 말함: 필자 주)이 한번 세상에 떨어지자 백성들의 수성거리는 소리는 참 굉장하였다. 옳다 이제는 잘되었다. 천리가 어찌 무심하라 이놈의 세상은 얼른 망해야 한다. 망할 것은 얼른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나와야 한다(중략) 일반의 인심은 모다 동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⁷⁰⁾

여기서 잠시 황룡촌전투를 전후한 시기 장흥 일대의 동학 농민군 측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발굴된 강진 유행 박기현의 《일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사》는 1891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장흥 강진 일대 향촌 사회의 동향과 함께 박기현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유행들과의 교유관계, 특히 갑오년을 전후한 시기 장흥 강진 일대의 동학농민군 측과 관군 측의 동향 및 당시 전투상황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로서 장흥 강진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런데 박기현은 이 《일사》에서 갑오년 당시 장흥지방 동학농민군들의 조직적 활동은 6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6월이라면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과 협의하여 화약을 체결하고 이어 김학진의 협조를 받아 전라도 53개 군현에 대한 폐정개혁을 단행하던 시기, 즉 동학농민군 측의 폐정개혁기관인 집정소가 설치되던 시기이다. 《일사》에 언급된 갑오년 당시 장흥 지방 최초의 동학농민군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20일 乙丑 맑음

69)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역사비평』 제간 7호, 1989.11), 237면.

70) 오지영, 「동학사」, 앞의 책, 465~466면.

아버님께서 더위를 피하시기 위해 守思堂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동학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장흥 자라번지(鰲番地)에 모여 각처의 죄인들을 잡아다스리고 있으며 어제 저녁에는 山城別將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⁷¹⁾

이 기록은 6월 20일경부터 장흥 자라번지(현 夫山面 金子里 효자마을 소재)에 동학집강소가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계사(1893)년 1월 동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正學인 주자학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과 동학과 같은 이단 사설의 횡행을 방지하기 위한 향약계를 조직하는 등 동학 포교에 대해 기민한 대응에 앞장서고 있던 장흥 인근인 장진 유생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정확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박기현의 《일사》 외에 장흥 유생 白永植이 남긴 《六有 齋遺稿》 卷四 《朴侯義蹟》과 보성 회천 會寧里居 文在國소장 동학문서를 봐도 장흥지방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활동이 3월 무장기포(제1차 기포)를 전후한 시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장흥지방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해 일부 기록하고 있는 황현의 《오하기문》 역시 제2차 기포이후 즉 9월 이후 장흥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⁷²⁾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까닭은 장흥으로부터 기포하여 전봉준의 본영에 합류하여 활약하는 농민군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신원운동 단계부터 조직화되었던 장흥 동학농민군은 황룡촌 전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전봉준 군에 합류하여 활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박기현의 《일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민군은 그 잔여 세력이거나 갑오년 간에 전봉준 군의 활약이 계기가 되어 현지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3월 무장기포 이후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유일하게 오지영의 《동학사》만이 장흥 접주 이방언 등이 3월 무장기포에 참여하였으며, 4월 23일의 장성 황룡강전투에서는 이방언 접주가 창안한 ‘장태’를 이용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관변기록과 장흥일대 유생들이 남긴 기록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들이 3월 무장기포나 4월 23일의 황룡강전투 이전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전봉준 군에 참여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71) 父主避暑上守思堂 聽得東學稱道人 今日共會于長興鰲番地 捉治各處有罪人 而昨夕 山城別將亦捉去云(朴翼鉉, 앞의 책, 甲午 6月 20日條).

72) 黃玹, 『梧下記聞』, 第三筆 11月 26日字

황룡촌 전투 이전에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전봉준 군에 참여하게 되는지의 문제와 ‘장태’를 창안한 이방언 집주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야말로 갑오년에 피흘리며 죽어간 장흥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5. 집강소 통치기의 동향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측이 전라감사 金鶴鎭, 兩湖巡邊使 李元會, 兩湖招討使 洪啓薰 등의 관변 측과 ‘全州和約’을 체결하기는 갑오 5월 7일이었다. 화약 체결의 주된 배경에는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하여 동학농민혁명에 개입하자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고자 한 뜻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화약이 체결된 후 동학농민군 측은 자진해산 형식으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각 고을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농민군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농민군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 때 농민군 측이 설치한 행정기관이 바로 종래 알려진 ‘執綱所’이며 선출한 대표가 바로 ‘執綱’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던 행정이 바로 전라도 53개 郡縣⁷³⁾에서의 ‘弊政改革’이었다.⁷⁴⁾ 농민군 측에 의한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활동은 대체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제 2차 기포가 이루어지기 전인 9월 15일 전후까지 추진되었던

73) 53개군현은 全州감영, 光州·羅州·綾州 3牧, 南原·潭陽·順天·礪山·長城·長興·珍島 등 7都護府, 古阜·谷城·錦山·金堤·樂安·寶城·淳昌·靈光·靈巖·雲峰·益山·珍山·등 12郡, 康津·高山·高敞·光陽·求禮·金溝·南平·同福·萬頃·務安·茂長·扶安·玉果·沃溝·龍潭·任實·臨陂·長水·井邑·鎭安·昌平·泰仁·咸悅·咸平·海南·和順·興德·興陽 등 30縣이다.

74) 집강소 및 폐정개혁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의 성과들이 있다.

박중근, 「갑오농민전쟁에 있어서의 전주화약과 폐정개혁안」, (『역사평론』 140, 1962.4)

山邊健泰郎, 「갑신사변과 동학의 란」, (『세계의 역사』 11, 0000, 1962)

한중근, 「동학군의 폐정개혁안 검토」, (『한국사상』 12, 1974. 12)

瀨古邦子, 「갑오농민전쟁기의 집강소에 대하여」,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6, 1979)

홍성찬, 「1894년 집강소기 설편하의 향촌사정」, (『동방학지』 44, 1984. 10)

신우용, 「1894년 영남 예전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10)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설치」, (『한국학보』 41, 1984.10)

신용하, 「갑오농민전쟁과 두레와 집강소의 폐정개혁」,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1987.2)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② 투쟁 - 반봉건 벽혁운동과 집강소」, (『역사비평』 제간 8호, 1990.2)

바, 그 주요 활동은 첫째 국가적 수탈과 자주적 수탈에 대한 폐정개혁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둘째 신분해방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셋째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넷째 토지의 분작 등을 추진하였다.⁷⁵⁾ 이렇듯 5월 7일의 ‘전주 화약’으로부터 9월 12일 제2차 기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집강소 통치기라 할 수 있다.⁷⁶⁾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오지영의 《동학사》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전라도 53개 군현 전체에 농민군들에 의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이해하여 왔다.

이때는 甲午 五月旬間이라 東學軍과 官軍이 서로 講和를 이룬 後 官軍은 京城으로 올라가고 東學軍은 全羅道 五十三州에 執綱所를 設立하여 民間 庶政을 처리케 되었다. 每邑에 執綱一人을 두고 議事員略干人을 두었으며 大小官吏들은 그를 幫助하여 弊政改革에 着手케 되었으며 同弊政改革件은 左의 十二條로써 되었다.(中略) 이로부터 全羅道 五十三州는 한 골(고을:인용자 주)도 빠진 고을이 없이 모도다 執綱所가 設立이 되어 民間의 庶政을 執行하게 되었다.⁷⁷⁾

이상과 같이 전라도 53군현에 모두 집강소가 설치되었으나 그중 나주·남원·운봉·세 고을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자 각각 崔景善, 金開南, 金鳳得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농민군을 이끌고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세 고을 역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⁷⁸⁾ 그런데 전라도 53개 군현에 모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각 고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설치 시점이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집강소를 관장하는 구성원 등에는 고을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강소에 관련된 새로운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집강소의 성격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농민군 측의 폐정개혁을 수행했던 집강소가 있었는가 하면, 농민군 측을 탄압하기 위한 유생들 중심의 보수 집강소도 존재하였으며,⁷⁹⁾ 전라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충청도 또한 경상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군 측이 설치한 집강소일지라도 그것을 장악했던 농민

75)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② 투쟁 - 반봉건 벽혁운동과 집강소」, (『역사비평』 제간 8호, 1990.2), 353~355면.

76)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설치」, (『한국학보』 41, 1985.12), 60면

77) 吳知泳, 「東學史」, 앞의 책, 482~585면.

78) 위의 책, 483, 485면.

79)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10)

군들의 의식수준과 지향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집강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각 고을의 집강소가 反封建적 성격을 띤 폐정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천민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가 주도권을 장악하였을 경우와, 양인·잔반·유생 출신의 농민군지도자가 장악하였을 경우, 개혁의 철저성에 있어서 현저히 차이가 나며, 농민군의 구성에 있어서도 출신 성분의 구성비율에 따라 집강소의 설치와 그 활동상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집강소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집강소와는 그 성격 면에서 일정하게 구별되는 집강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장흥 일대에 설치되었던 집강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장흥 일대에 설치되었던 집강소에 관련된 자료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장흥 지방 집강소는 제일 먼저 龍溪面 鰲番地(속칭 자라번지)에⁸⁰⁾ 갑오 6월경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자라번지는 이사경접주의 근거지로서 갑오 당시 그 조직적 기반이 목촌리의 어산접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⁸¹⁾ 자라번지 집강소에 관련된 기록은 박기현의 《일사》에 보인다.

6월 20일 乙丑 맑음

아버님께서 더위를 피하시기 위해 守思堂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동학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자라번지(鰲番地)에 모여 각처의 죄인들을 잡아 다스리고 있으며 언제 저녁에는 山城別將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⁸²⁾

6월 21일 丙寅 맑음

(전략) 오후에 서실로 돌아오려 할 적에 마을 사람 여럿이 자라번지의 취회를 구경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⁸³⁾

6월 27일 壬申 아침에 맑다 오후에 흐림

동학(농민군: 인용자주) 이 新池(현 강진군 兵營面 三仁里 신지부락: 인용자주) 사는 姜敬深의 아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⁸⁴⁾

80) 현 夫山面 金子里 요자마을 앞 들판을 지칭한다. 자라번지란 지명이 생긴 까닭은 앞산의 형국이 자라와 같다하여 자라번지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유래지』, 장흥군, 1986, 502면)

81) 용반마을지 편찬위원회, 『우리의 보금자리 지와물』, (동 편찬위원회, 1990), 56면의 내용 및 1991년 10월 28일 ~30일 용반자라번지 일대에 대한 현지답사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산면 용반리 출신 소설가 金碩中씨의 증언에 의함.

82) 앞의 주 71과 같음.

83) 二十一日 丙寅 晴 (中略) 午後 裝反書室 聽得 村人 多有觀光於 鰲番地之會 而歸者云(朴冀鉉, 앞의 책, 甲午 6月 21日條)

위의 갑오 6월 20일자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군들의 聚會 장소가 지금의 장흥 부산면 자라번지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6월 21일자와 6월 27일자 내용을 통해서는 당시의 동학농민군들이 자라번지를 근거지로 하여 죄인이나 토호들을 잡아다 징치하는 등의 집강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월경에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장흥 일대의 동학농민군들과 장흥 자라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집강소의 폐정개혁활동은 7월초에는 인근의 강진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7월 3일 00 맑음.

저녁 무렵 당질 禮基가 급히 찾아와 “자기 형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학(농민군: 인용자주)에 잡혀 무수한 곤욕을 당하고 현재 결박당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므로 듣고 매우 놀랐다. 형님이 급히 鄭善五에게 청하여 본읍(강진을 말함: 인용자주)에 가서 이 일을 도소가 알고 있는지 알아오게 하니 선오가 승락하였다. 이때에 동학(농민군: 필자 주)이 장흥으로부터 본읍에 都會하였는데 정선오는 都所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⁸⁵⁾

위의 내용에 의하면 갑오 7월초에 장흥에서 농민군들이 내려와 강진현에도 都所 즉 집강소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강진현에 설치된 집강소 역시 장흥 자라번지의 집강소와 대동소이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6월경부터 설치된 장흥 강진 일대의 동학 집강소 활동은 누구에 의하여 지도된 것일까. 다음의 기록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용반접주 이사경은 대물림 접주이다. 그의 부친이 또한 접주로 휘하 막료들이 지극히 따르는 등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나 연로하여 체력이 한계에 이르자 고부의 동학 진영에서 낙향하여 용반리에 돌아왔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휘하 동학군들이 이 접주를 따라 용반리에 들어왔고, 이 접주의 아들인 이사경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있고 인품 또한 넉넉한 것을 알고

84) 朴冀鉉, 앞의 책, 갑오 6월 27일조.

85) 三日 丁丑 晴 黃氏 堂姪禮基 急來傳奇 曰渠兄 市閃回路 爲東學執捉 受因辱無數 而方在結縛中云 聞甚驚駭 兄主急請鄭善五使欲往本邑 詳深此事之都所知否 善五肯諾焉 時東學 自長興都會于本邑 而鄭善五 則有知面人於都所故也(위의 책, 甲午 7월 3日條)

집주로 추대하여 계속 모셨다.⁸⁶⁾

위의 내용을 통해보면 자라번지 출신 이사경접주의 부친 역시 동학 집주임이 밝혀지고 있는데 전봉준군의 본영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점으로 보아 전주화약 후 집강소 설치를 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라번지의 집강소는 이사경접주의 부친과 이사경의 주도 아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는 하나의 군현에 하나의 집강소만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에도 다수의 집강소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자라번지의 집강소 외에 목촌에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내용을 보자.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

甲午 六月 초하루 아침 金漢燮 지음

당시 방언(이방언: 인용자주)이 독(동학: 인용자주)에 물든 것이 대단히 심하였기 때문에 지어 보인다.⁸⁷⁾

漢燮은 任鼓山 憲晦의 문인이다. 호 吾南은 헌晦가 이름지은 것이라 한다. 본래 방언(이방언: 인용자주)과 함께 수업하였다. 방언이 적(동학: 인용자주)에게 물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에 이르러 글을지어 효유하였다. 끝내 듣지 아니하자 다시 글을 지어 절교하였다. 또 ‘동학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사람들을 효유하였다.⁸⁸⁾

위 두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흥 동학농민군지도자 이방언이 동학에 물든 것이 매우 심하여 그와 예전에 동문수학한 바 있는 장흥 유생 김한섭이 갑오 6월 1일 아침에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 즉 동학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흥이 낳은 한말 유생 오남 김한섭(1838~1894)과 장흥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방언이 한 스승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이 인식하거나 옛날 교제가 있었던 장흥 농민군지도자 이방언에 대하여 지어 보인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의 내용에 대하여 주목

86) 용반마을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57~58면.

87) 警示賊徒文 甲午 六月朔朝題 金漢燮 時方彥含毒特甚故 示之(長興邑 元道里居 金壯坤氏 所藏 『永懷堂史輯』所收)

88) 漢燮 任鼓山憲晦文人也 號吾南 憲晦所命云 素與方彥同修業及聞方彥染賊 終不聽 復作書絕交 又作警東學文 以曉縣人(黃玼, 『梧下記聞』 第三筆 甲午 12月條)

하지 않을 수 없다.⁸⁹⁾ 여기서 유생 김한섭의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이 나온 시점이 6월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월초는 바로 전봉준 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들이 ‘전주확약’을 성사시키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활동을 개시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흥 지방의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6월경이 거의 확실하며 6월경에는 이방언 역시 장흥에 돌아와 목촌 일대를 중심으로 웅거하며 그 일대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섭으로부터 경고의 글을 받은 것이다.

이사경 접주를 중심으로 한 자라번지의 집강소와 목촌을 근거지로 한 이방언 등의 폐정개혁 활동은 6월경부터 조직적으로 전개되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흥 강진 일대 유생들의 조직적 움직임 역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흥 與龍洞⁹⁰⁾ 출신으로 갑오 당시 강진에 거주하고 있던 유생 김한섭은 6월초에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을 지어 고을 사람들에게 포고하여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활동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으며⁹¹⁾ 前府使 李容泰가 지난 1월의 고부민란 진무차 안행사에 差下되어 올라간 이래 공석 중이었던 장흥부사에 박헌양이 임명되어 7월말에 부임한 이후로 유생들의 조직적 대응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갑오 당시 장흥 유생 白永直은 신임 부사 부임 직후 부사와 유생들이 연합한 대응 활동이 조직화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후의 휘는 헌양이며 반남인으로 갑오년 7월 그믐에 단거로 부임하니 같이 온 사람은 기실 한 사람뿐이었다. 지난번 비류(동학농민군: 인용자주)들이 전라 감영을 함락하여 더욱 치성하여 승세를 탄 이후부터 본 고을의 적과들이 무뢰배들을 속여 꺾여서 그 수가 수천에 이르고 모이고 흩어지기를 무상하게 하며 마을을 위협하니 평소 우매한 자들이 이해에 접내어 어지럽게 문을 열어 맞이하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호응할 뿐만 아니라 근본

89)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은 전술한 《永懷堂史輯》과 《吾南集》 卷 十三에 全文이 실려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90) 現 夫山面 內安里 內洞

91) 오남 김한섭의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은 『영회당사집』과 『오남집』 권 13에 실려 있으며, 『오하기문』 제 삼필에는 글을 지어 보였다는 기록만이 보인다. 그런데 『영회당사집』에 실린 내용과 『오남집』에 실린 내용을 비교한 결과 『오남집』의 것이 축약되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문집 발행 당시 축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회당사집』에 실린 글에서는 6월 초하루에 지었다고 되어 있고 『오남집』에는 5월 초하루에 지었다고 되어 있다.

을 망각하고 윤리를 어그러뜨리며 풍속을 어지럽히니 이런 까닭으로 온 지경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후가 처음 부임하여 이튿날 아침에 바로 향교에 행차하여 행향례를 마친 다음 유림들과 더불어 생각이 시요에 미치고 척사위정의 뜻으로 얼굴빛과 말이 근심스러웠다.⁹²⁾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사 박헌양은 부임 다음날 바로 향교로 행차하여 예를 마치고 그곳 유림들과 더불어 전주성 함락 이후로 행차하여 예를 마치고 그곳 유림들과 더불어 전주성 함락 이후 날로 치성해지고 있는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을 물리칠 방책에 대하여 한결같이 근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文不如長興’이란 말이 있을 만큼 재지 유생들의 儒風이 강한 장흥이 농민군에 의해 장악되고 온 고을 민들이 그에 호응하고 있던 갑오 7월경의 형세를 장흥 유생들이 그저 바라만 보았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의 움직임은 농민군 측이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갑오 5~9월초까지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날 상황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드높았을 뿐 아니라 일반 농민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호응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부사나 유생들이 모여 대응책을 모색하였을 지라도 당시로서는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누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농민군들이 재봉기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해 올라가는 9월 13일 이후부터는 부사와 유생들이 본격적으로 농민군 토벌에 나서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 다수의 농민군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이용하여 잔류한 농민군들을 진압하기가 훨씬 수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전라도 동학포교 및 장흥지방 동학포교 상황에서 시작하여, 교조신 원운동기, 제 1차 동학농민혁명기, 집강소 통치기 등 네 단계로 나누어 장흥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및 향촌사회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지방에 동학이 포교되는 시기는 전라도지방 동학포교 제 3단계에

92) 候 諱憲陽 潘南人 歲甲午七月晦 單車莅任 與伴者 記室一而已先是 匪類 自完營失險益熾 扭勝 本邑敵魁 誑誘無賴 數至數千散合無常 勒脅閭落 平日迷暗者 怙於利害 脚恟手亂 開門迎納 伐牛 釀非徒應聲附影 至有忘本悖倫 有亂風俗 是以 闔境大擾 候 始莅翌朝 卽臨校堂 行香禮畢 與儒林 念及時擾 斥邪衛正之義 僅僅於色辭(白永直, 「朴候義蹟」 「六有集」卷之四, 雜著)

해당하는 1890년대 초반,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출신 동학 지도자에 의해 포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장흥에서 처음으로 동학을 받아들인 인물은 이방언, 이인환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연원은 전북의 전주와 임실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입교 동기로는 주자학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식을 가진 이방언 등이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창도된 동학 교리에 공감하여 입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흥 지방에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보수유생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향약계를 제정하거나, 오가작통법을 실시, 또는 입규절목 등을 제정하여 ‘이단사설’인 동학을 배척하고 탄압하고자 하였다. 장흥 일대에서 동학 탄압에 적극 나선 유생으로는 오남 김한섭, 박계명, 김병휘, 박기현 등이 있다.

둘째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기에 들어와 장흥을 비롯한 전라도 서남해 연안 일대에서도 동학 교도가 급증하고 있었으며, 장흥 동학 교도들이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한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893년 3월의 보은취회부터이다. 「천도교 장흥군종리원」이란 기록에 의하면, 보은취회에 수십 명의 장흥 동학교도가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 구체적 증거이다.

셋째 제 1차 동학농민혁명기 장흥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오지영은 전봉준 군의 무장기포, 즉 1894년 3월 21일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에서도 이방언, 이인환 등이 기포하였다고 하였으며, 4월 23일 장흥 황룡촌 전투에 이방언이 참여하여 ‘장태’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황현의 『오하기문』이나 당시의 관변기록 『양호초토등록』 등에는 이방언 군이 무장기포에 참여한 사실이나, 장성 황룡촌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 농민군 동향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집강소 통치기에 장흥 농민군들은 가장 먼저 1894년 6월 중순경 용계면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자라번지는 이사경 접주의 근거지이며, 후일 조일 연합군의 가혹한 토벌작전에 의해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고 수십 명의 농민군이 집단으로 희생된 곳이다. 자라번지를 근거지로 삼은 농민군은 집강소 통치기에 가렴주구를 일삼거나 동학 도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일삼던 토호, 지방관리에 대한 懲治를 중심으로 한 폐정개혁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한 내용으로는 자라번지 외에 남상면 묵촌 이방언 접주의 근거지에도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에 대해 장흥 일대에서 가장 강경한 대응

을 보였던 인물은 교조신원운동기부터 동학 교도에 대한 배척과 탄압에 앞장섰던 오남 김한섭이었다. 그는 부산면 홍룡동 출신으로 일찍이 이방언과는 동문 수학한 사이였지만 ‘동학에 몰든’ 이방언에 대해 「警示賊徒文」 즉 ‘적도(동학농민군)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을 지어 탄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남은 후일 동학농민군이 강진현을 공격할 때 수성군 도통장이 되어 농민군을 막다가 희생당하기에 이른다.

장흥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석대들전투

김 양 식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소장)

1. 머리말
2. 장흥지역의 관민상화와 재기병
3. 장흥 동학농민군의 기포
4.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혈전
 - 1) 벽사역 점령
 - 2) 장령성 점령
 - 3) 강진 점령
 - 4) 장흥 대회전
5. 맺음말

1. 머리말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그 최후의 전투였던 석대들전투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4대 격전지로 불리어질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그와 관련한 자료 역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사에 관한 학술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해가 공주 우금치전투와 전봉준 체포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을 종결짓기 때문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서와 개설서가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갑오년 겨울 처절했던 동학농민군의 싸움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꿈과 열망,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위의환(魏義煥)은 장흥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 조사를 토대로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東學農民革命 最後激戰地史>> I·II권을 편찬하였다.¹⁾ 이는 장흥 동학농민혁명사와 관련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쳐 그 실상을 밝혀낸 역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장흥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 발표에서는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전투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의환의 역작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2. 장흥지역의 관민상화와 재기병

전주화약 이후 장흥지역에 동학농민군의 도소(都所)가 설치된 것은 6월 20일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장흥 자라번지(현 부산면 금자리·효자리 일대)에 도소를 설치하고 도회(都會)를 열어 죄인을 다스렸다. 7월 3일에는 이웃한 강진읍 내 장터에서도 도회를 여는 등 장흥·강진일대는 사실상 동학농민군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1일에는 강진병영 장대에도 도소, 즉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동학에 들어간 軍校·營吏 등이 송정리에 사는 이세화(李世和)²⁾를 앞세워 병영을 지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강진병영 도소는 미온적이었던 주민들을 위협하여 참여시키고 조총을 나누어주어 무장시키는 등 처음부터 수성(守成)을 주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실제 7월 15일에는 양우후(梁虞侯)에게 해를 입힌 동학도인 33명을 붙잡아 죽였고, 18일부터 24일까지는 보성 동학농민군 수 백명이 온다는 전갈을 받고 4개면 민정(民丁) 수 천명을 집결하여 총을 쏘며 무력시위를 하면서 막아냈다.³⁾

장흥지역도 보수층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바로 7월 30일 박헌양이 장흥부사로 부임한 것이다. 박헌양은 부임 다음날 향교의 제례(朔香禮)

-
- 1) 魏義煥,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東學農民革命 最後激戰地史>> I·II, 2009, 천도교 장흥교구·장흥군. 이하 ‘위의환, 총서 1·2’로 약함.
 - 2) 이세화는 본래 동학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들어서서 守城을 한 자인데, 그도 일분군에게 잡혀가 조사를 받았다(위의환, 총서 1, 170쪽 주75)
 - 3) 朴翼鉉, <<日史>>, 6월 20·21·26·27일, 7월 3·4·6·8·9·11·15·17·18·19일조.

에 참석하여 유림들에게 수성 의지를 밝힌 뒤 이방언을 불러 모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⁴⁾ 이때 이방언은 박헌양과 뜻을 같이 하였는데, 이는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이 7월 6일 전주회담에서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무기를 반납하는 대신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된다.⁵⁾

실제 7월 12일 전봉준이 조총 2천 자루를 전라감사에게 반납하고 해산하였다는 소식이 강진지역에 전해졌을 뿐 아니라,⁶⁾ 전봉준은 7월 19일 각 집강소 앞으로 관민상화하도록 통문을 보낸 일이 있었다.⁷⁾ 이방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이방언은 전봉준의 뜻을 받아들여 박헌양과 타협하고 장흥읍내에 머무르면서 휘하 동학농민군을 단속하였다.

이방언이 장흥읍내에 머무르는 것을 박헌양이 허용했다는 것은 관에서 이방언과 동학농민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봉준이 전라감영 안에 전라좌우도소를 설치하고 김인배가 순천부내에 영호대도소를 설치한 것처럼, 이방언 역시 도소 또는 집강소를 읍내에 설치하고 활동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 그 무렵 나주와 강진 외에는 모든 군현에 어떤 형태로든 도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⁸⁾ 장흥에도 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방언이 장흥부사와의 관민상화의 원칙을 지킨 반면에, 웅치면 접주 구교철(具敎徹)과 용계면 접주 이사경(李士敬)은 이방언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었다. 그래서 장흥읍내에서 벗어난 인근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였다.⁹⁾ 이는 김개남이 전봉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과 같으며, 정완석 같은 장흥 출신 동학농민군은 남원의 김개남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¹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봉준의 지도노선이 관철되어 8월 내내 장흥·강진지역은 조용하였다. 이는 박기현의 <<일사>> 8월조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구교철이나 이사경 역시 11월 하순까지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뒤 관민상화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에 들어와 관민상화 원칙에 따른 무국(撫局)은 깨졌다. 이미 김개

4) 위의환, 총서 1, 176-178쪽.

5)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신서원, 1996), 144-162쪽 참조.

6) 朴冀鉉, <<日史>>, 7월 12일조.

7) <<隨錄>>, 무주 집강소.

8) 朴冀鉉, <<日史>>, 9월 16일조.

9) <<永懷壇>>.

10) 위의환, 총서 2, 279-284쪽.

남은 8월 25일경 남원 농민군대회를 통해 재기병하였고, 순천의 영호대도소 김인배(金仁培)는 9월 1일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였다. 사실상 7월 중순 이후 유지되던 관민상화와 그에 따른 집강소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¹¹⁾ 그에 따라 전봉준도 9월 9일 감영에 설치했던 전라좌우도소를 철폐하고 10일 삼례에 재기병을 위한 농민군본부인 대도소를 설치한 뒤 군사물자를 모으고 각지에 통문을 보내 농민군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재기병 준비에 들어갔다.¹²⁾

이에 따라 장흥지역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9월 16일에는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이 낙안의 무기를 빼앗아 보성을 거쳐 장흥·강진지역을 위협하였고,¹³⁾ 9월 19일경에는 동학농민군의 일급 척의 배가 장흥과 강진 경계에 정박해 있었다.¹⁴⁾ 이러한 움직임은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이때 이방언도 휘하 동학농민군(대덕집·관산집·용산집·부산집 등)을 이끌고 전봉준부대에 합류하였다.¹⁵⁾

<<永懷壇>>에는 “이방언이 성 밖으로 나가 숨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¹⁶⁾ 이방언이 성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관민상화를 깨고 재기병에 나선 사실을 보여주며 ‘숨었다’는 것은 10월에 장흥에서 이방언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방언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하여 북상길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방언이 떠난 후에도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10월 16일에 동학농민군 천여명이 장흥 사창(社倉) 장터(현 장평면 농협창고)와 영암 덕교(德橋), 강진 석전(石廬) 장터에 집결해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에 맞서 장흥부사 박헌양이 이끄는 수성군과의 대립·충돌도 격화되었다. 강진병영의 도소 역시 무기를 확보하고 4개면의 민정을 모아 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군사력을 강화시키었으며, 10월 1일에는 도소를 폐하고 수성소로 개편하였으며 10월 18일 수성군이 천여명에 이를 정도였다.¹⁷⁾ 동학농민군의 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강진은 9월 21일경 민정을 모아 낮에는 성을 쌓고 밤에는 고함을 질러 수성하였다.¹⁸⁾ 그 결과 장흥과 강진이 위기에

11) 김양식, 앞 책, 330-336쪽.

12) 김양식, 앞 책, 336-337쪽.

13) 朴冀鉉, <<日史>>, 9월 16일조.

14) 朴冀鉉, <<日史>>, 9월 19일조. 이 기록으로 보아,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이 배편으로 전주 삼례로 이동하여 전봉준부대에 합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이환은 이 기록을 두고, 도서지방의 동학도가 육지로 상륙하여 대흥면의 이인환점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5) 이에 대해서는 위이환, 총서 1, 194-206쪽 참조

16) <<永懷壇>>, “方彦出遁城外”.

17) 朴冀鉉, <<日史>>, 9월 10·16, 10월·1·18일조.

처할 때마다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강진병영의 군사력은 그 일대에서 가장 강하였다.

이렇게 장흥과 강진병영·강진의 수성군이 군사력을 강화하자, 이방언이 동학농민군을 인솔하여 복상한 뒤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은 점점 수세적인 위치로 밀리었다. 그리하여 장흥 동학농민군은 전봉준부대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동학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라도 극남단 지방인 강진병영과 장흥부에서는 관리배들이 다시 발호하여 동학당을 침벌한다는 급보가 대본영에 들어왔었다. 동학군이 다시 세력을 굴려 북방으로 6~7백리의 밖으로 모두 싸우러 나가는 사이에 이때를 기회로 하여 宿嫌을 갚고자 준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장흥부사는 장흥과 거리가 가깝고 병력을 빌릴만한 강진병사와 서로 밀모를 하고 동학당을 침략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급보를 접한 대본영에서는 근심이 되어 좌우로 더불어 의론할 즈음에, 금구 대접주 金邦瑞가 그것을 정복시키겠다고 일어섰다. 그리하여 김방서는 강진·장흥 등의 읍으로 출전명령을 받았다. 그날로 김방서는 삼천군을 거느리고 바로 남방으로 향하여 내려갔다. 여러 날 만에 강진지계에 들어서 모두 말하되, 강진병영과 장흥부가 합하여 수천의 군을 모집하여 성을 굳게 지키며 일변 촌백성들을 잡아다가 동학당이라 지목하여 포살을 하는 등 마을에는 관군의 방화약탈이 무수하였다.¹⁹⁾

이와 같은 <<동학사>> 기록은 9,10월조 다른 기록과 정황이 일치한다. 특히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첫째,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이 전봉준부대에 합류함으로써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수성군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다는 점, 둘째, 이방언 대신 금구 대접주 김방서가 직접 지원병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점, 셋째 지원군 파견시기는 전봉준부대가 공주 우금치전투를 본격화하는 10월 23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9,10월 장흥지역은 장흥부사 박헌양이 주도하는 수성군과 강진병영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서, 양측의 갈등·대립이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었다.

18) 朴翼鉉, <<日史>>, 9월 21일조.

19) <<동학사>> 초고본; 위의원, 총서 1, 200-201쪽 재인용.

3. 장흥 동학농민군의 기포

전봉준이 파견한 지원군은 <<동학사>>의 기록대로, 실제 10월말 광주, 남평, 보성을 거쳐 능주를 제압한 뒤 11월 7일경 장흥에 이르렀다.²⁰⁾ 그들은 11월 7일 유치면 경계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마에 노란 두건(황명주)을 두르고 있었다. 흑석장터(현 봉림리 주요소 일대)에는 붉은 깃발 2개와 흰 깃발 1개를 단 장대를 세워 놓았다. 그것은 이들 동학농민군의 본부를 가리키는 것 같으며 말 6마리도 묶여 있었다. 그들은 수십명씩 혹은 7,8명씩 각 마을에 흩어져 있었는데, 장차 장흥으로 쳐들어갈 예정이었다.²¹⁾

그러나 김방서가 이끌고 온 동학농민군은 장흥을 곧바로 칠 수 없었다. 부평면(현 장평면)에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불의의 사고로 전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²²⁾ 나주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 당시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나주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1월초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배규인 등은 고창, 장성, 광주, 동복, 남평, 나주, 함평, 무안, 진도 등지의 농민군을 규합하여 나주성에 대한 총공격에 나선 것으로써, 나주 수성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11월 22일 손화중, 최경선 등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나주성 공격에 나서지만, 24일 전투에서 패하고 광주로 퇴각하였다.²³⁾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하고 내려온 전봉준 역시 11월 25일 금구 원평, 11월 27일 태인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동학농민군 최후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에 맞서 장흥 동학농민군들도 총기병하였다. 11월 21일 구교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수천명이 웅치면에서 기포하고, 11월 25일에는 李仁煥이 대흥면에서 기포하여 회진의 회령진에 무혈 입성하여 많은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뒤, 고읍면→남면을 거쳐 회령면으로 이동하여 11월 27일경 구교철부대와 합류하였다.²⁴⁾



▲ 이인환이 기포한 대흥면과 회진

20) 위익환, 총서 1, 207쪽.

21) 朴冀鉉, <<日史>>, 11월 7일조.

22) <<朴侯義蹟>>.

23) 위익환, 총서 1, 289-295쪽 참조.

이들의 기포는 사전 모의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방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장흥으로 와서 구교철·이인환 등과 모의하여, 각처 동학농민군을 총동원해 나주를 공격하고 장흥·강진을 점령하기로 하였다.²⁵⁾ 그 시기는 구교철이 기포한 11월 21일 이전으로, 손화중부대가 최후의 나주 공격에 나선 11월 22일, 전봉준부대가 금구 원평전투를 벌인 11월 25일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이 군사전략은 동학농민군의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축컨대, 11월 19일 전봉준부대가 논산에서 전주로 퇴각한 뒤 핵심 측근인 최경선·이방언 등과의 작전회의에서 논의·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경선은 광주로 내려가 손화중과 함께 11월 22일 대대적으로 나주 공격에 나서고, 이방언은 장흥으로 내려와 구교철 등을 기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장흥 동학농민군들이 총 기포하자, 장흥부사 박헌양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 동안 박헌양은 의사록(義士錄)을 작성하여 수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등 수성세력을 결집시킨 상태이고,²⁶⁾ 11월 21일에는 정부에서 강진병영에 세미 400석과 공전 3만 2천 냥을 내려주어 전력을 강화하였다.²⁷⁾ 이런 상황에서 구교철이 웅치에서 기포하자, 박헌양은 즉각 강진병영에 별포군 5백명과 조총 200자루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장흥에서 급한 보고를 또다시 받은 강진병영에서는 도총장 윤권중(都摠將 尹權仲)과 수성별장 방관숙(守城別將 房管叔)이 군인 2백명을 이끌고 강진현 군사 200명과 함께 지원에 나서 장흥 웅치로 진격한 뒤 다음날 돌아왔다.²⁸⁾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박헌양은 11월 27일 동학농민군이 회령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하자, 그날 밤에 직접 병영으로 와서 또다시 군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11월 28일 도총장 윤권중은 병영군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장흥으로 출발하여, 다음날 벽사역 부근에서 동학농민군 3명을 붙잡아 참수한 뒤 장흥 관군과 함께 웅치를 넘어 장서면 사창 등지에 진을 쳤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이미 회령에서 일단 접전을 피해 보성으로 물러난 상황이었다.²⁹⁾ 이때 도총장이 이끄는 병영군은 12월 2일 강진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무기와 소를 빼앗고 마을을 불지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³⁰⁾

24) 위익환, 총서 1, 316-334쪽.

25) <<永懷壇>>. 박후의적.

26) <<永懷壇>>.

27) 朴翼鉉, <<日史>>, 11월 21일조.

28) 朴翼鉉, <<日史>>, 11월 21·22·23일조.

29) 朴翼鉉, <<日史>>, 11월 25·27·28·29일조.

4.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혈전

1) 벽사역 점령

보성으로 물러난 장흥 동학농민군은 홍양 등지를 공격하여 전력을 강화한 뒤,³¹⁾ 12월 1일 현 장평면 사창에 총집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금구의 김방서, 능주의 조종순(趙鍾純), 화순의 김수근(金秀根) 등의 대접주들이 인솔한 동학농민군들도 합세하였다. 큰 부대<接>는 만여 명에 이르고, 작은 부대도 2,3천명에 이르렀다.³²⁾



▲ 장흥 농민군이 총집결한 장평면

이들의 최종 공격 목표는 나주였다. 그를 위해 장흥지역 농민군은 나주 공격을 위한 전초전으로 그동안 계속 농민군에게 위협적이었던 장흥과 강진 점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 위는 장흥지역 농민군은 나주 공격을 위한 전초전으로 그동안 계속 농민군에게 위협적이었던 장흥과 강진 점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12월 1일 장평면 사창에 총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 수만명은 서서히 군대를 움직였다. 12월 3일경 이방언부대는 평화(平化) 송정등(松亭磴)에, 이인환과 구교철부대는 건산(巾山) 후등에, 김방서 등은 벽사 뒤 평원에, 이사경 등은 행원 앞 평원에 진을 치고 장흥부 공격에 나섰다.³³⁾

그보다 앞서 김방서부대로 보이는 동학농민군 1천여명은 벽사역을 선제공격하였다. 벽사역은 고부에서 첫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된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가 이곳 역졸을 데리고 갔을 뿐 아니라, 2천여명 이상의 관원, 역리, 역졸, 역노비 등이 있어 후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벽사역 근처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12월 4일 오전 8시 전후에 벽사역을 공격해 관아와 일부 민가를 불태웠다. 재와 불탄 꼬트러기와 연기가 장흥 하늘에 가득

30) 朴冀鉉, <<日史>>, 12월 1·2일조.

31) 위의관, 총서 1, 334-338쪽.

32) <<永懷壇>>.

33) <<永懷壇>>, <<任泰希推記>>.

할 정도로 큰 화염에 휩싸여, 부사를 비롯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얼굴빛에서 혼백이 달아날 정도였다. 이는 장흥부를 공격하기 전에 그 길목에 있던 벽사역을 장악함으로써 후환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벽사역 찰방 김일원(金日遠)은 전날 사전에 김세를 채고 가족과 함께 장녕성 안으로 피신하였는데, 벽사역이 불타는 것을 보고 강진병영으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사는 병영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김일원은 다시 나주 초토영으로 달려가 구원 요청을 하였다.³⁴⁾

2) 장녕성 점령

12월 4일 벽사역은 불타고 강진병영의 지원은 끊어진 상황에서, 장흥부성인 장녕성(長寧城)은 동학농민군에 의해 더욱 포위망이 좁혀들어왔다. 그날 밤 동학농민군은 수발의 대포를 쏘아 부사 이하 수성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 장녕성 옛 모습

드디어 12월 5일 새벽 장녕성 북문쪽에서 대포 소리를 신호로 이사경부대가 북문을 넘어 성안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남문과 동문이 열리면서 농민군이 물밀듯이 성안으로 쳐들어왔고 순식간에 성안이 불길에 휩싸였다. 장흥부사 박헌양은 끝내 농민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붙잡혀 강제로 인부(印符)를 빼앗긴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밖에 끝까지 성을 지키다 90여명의 장졸들이 순절하고 성내의 거의 모든 집들이 불탔다. 이날 죽은 사람수가 4,5백명이나 될 정도로,³⁵⁾ 장녕성은 농민군에 의해 철저히 점령되었다.

34) <<朴侯義跡>>; <<永懷壇>>; <<巡撫先鋒陣膽錄>>, 12월 8/9일조.

35) 黃玟, <<梧下記聞>>.

3) 강진 점령

12월 5일 장녕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6일 오전 10시경에 벽사역 뒤 고개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경 장흥과 강진병영 접경지역인 사인점(舍人店 : 현 장흥읍 송암리) 앞들로 이동하였다. 각 지역에서 장흥으로 몰려든 다른 농민군들과도 합세하였다. 저녁 무렵에는 먼저 강진현을 점령하고자, 깃발을 앞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부대를 움직여 강진현 20리 근처까지 육박하였다.



▲ 강진병영성 원경

12월 7일 오전 8시쯤 1만여 명이 넘는 농민군은 강진현을 공격하였다. 현감 이규하(李奎夏)는 구원을 요청하러 간다는 핑계로 6일 새벽에 이미 나주로 혼자 달아난 상태였다. 농민군은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성을 포위한 뒤



▲ 강진병영성 근경

대포를 한 번 쏘아 위협한 다음, “죄 없는 민간 군사는 모두 당장에 성을 나가라. 혹 아전·별포군 등과 섞여 피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성내 민간 군사는 곧 와해되었다. 이 틈을 타고 농민군은 동남문으로 손쉽게 성안으로 밀려들어갔다.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서문을 수성하고 있던 의병장 김한섭(金漢燮)은 끝내 죽임을 당하였고, 아전과 별포수·수성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관아와 민가가 불에 탔다.³⁶⁾

농민군은 강진현을 함락시킨 여세를 몰아 강진병영을 치고자 세 갈래 길로 나누어 12월 8~9일 부대를 움직여 병영성을 포위하였다. 이인환부대는 작천면 군자촌(君子村)에 진을 쳤다. 나주·영암에서 내려온 농민군들도 가담하였다.³⁷⁾ 이에 맞서 위기에 처한 병사(兵使) 서병무(徐丙懋)는 다급히 영암군에

36) 黃玿, <<梧下記聞>> 3필, 12월 7일조; <<巡撫先鋒陣騰錄>>, 1895년 1월 20일조.

3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6권, 51쪽. 12월 7일경 나주지역에 있던 농민군들이 영암쪽으로 몰려난 것으로 보아, 이들 농민군들도 강진병영성 공격에 가담했을 것이다.

8,9차례나 포군(砲軍) 지원을 요청하였고 순무선봉진 이규태에게도 급한 사정을 알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또 성 위에 목책을 세우는 등 방어를 하였으나,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드디어 12월 10일 새벽 농민군은 네 길로 함께 진군하여 먼저 병영성 주변의 세 봉우리(옥녀봉·성자산·성락산)를 점령하고 일제히 포를 쏘아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병사 서병무는 황급히 두루마기 차림에 패랭이를 쓰고서 인부(印符)를 가지고 피난하는 사람 틈에 섞여 영암 쪽으로 달아났다.

드디어 병영성을 포위한 농민군은 12월 10일 아침을 먹고 병영성을 총공격하였다. 일제히 포를 쏘며 4개의 성문으로 돌진하여 성곽의 목책을 불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성으로 올라 성문을 열었다. 성안에는 1천명의 수성군 밖에 없었다. 이들과 큰 충돌은 없었으나, 우후(虞侯) 정규찬(鄭逵贊)은 끝까지 저항하였으며 군기 창고를 지키고 있던 김두흠은 화로를 꺼안고 몸을 던져 화약을 폭발시켜 창고를 불태우는 등 농민군의 희생도 상당하였다.³⁸⁾ 이때 성내 관공서 대부분이 불타고 민가 역시 10에 8,9나 불탔다.

4) 장흥 대회전

12월 10일 강진 병영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원래의 목표대로 인접한 영암을 거쳐 나주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일본군이 12월 10일 나주성에 진입하기 3일 전에 나주지역에 있던 농민군은 영암쪽으로 물러났으며, 일본군이 나주성에 진입하자 영암현령은 그곳의 함락이 조석에 임박했다며 여러 차례 구원 요청을 하였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은 다시 장흥으로 회군하였다. 그 이유는 12월 1~7일 김개남·전봉준을 비롯하여 광주 최경선·손화중, 순천 영호대도소의 김인배 등 핵심 지도자들이 차례로 체포되거나 살해되고 주력 농민군부대가 속속 해산한 데다가, 일본군 제19대대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가 이끄는

38) <<巡撫先鋒陣騰錄>>, 12월 10·11일조; <<先鋒陣日記>>, 12월 12일조; 黃玆, <<梧下記聞>> 3필, 12월 10일조; 朴翼鉉, <<日史>>, 12월 9~14일조.

3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6권, <<동학당정토약기>>, 51-52쪽. “드디어 나주를 함락시킬 생각으로 좌측은 영광과 함평 방향으로부터, 중앙은 광주로부터, 우측은 능주 방향으로부터 나주를 포위한 목표를 세우고, 각 부대가 1월 5일(음력 12월 10일)을 기해 나주를 함락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3일전 적도는 영암 방향으로 퇴각한 것 같았다.” 위의환은 이 기록을 농민군의 나주 함락계획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일본군의 계획이다.

조일연합군 주력부대가 계속 남진하여 12월 10일 나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⁴⁰⁾

당시 일본군은 전주(11/24)→임실(12/1)→남원(12/3)→순창(12/5)→광주(12/8)를 거쳐, 12월 10일 이규태가 이끄는 좌선봉진, 이진호가 지휘하는 교도중대와 함께 나주에 진입하였다. 이두황이 이끄는 우선봉진은 임실(12/1)→남원(12/2)→순창(12/5)을 거쳐, 일본군 대장 미나미 대장의 지시에 따라 곡성(12/7)→구례(12/9)를 경유하여 장차 순천·광양·보성을 거쳐 나주에서 일본군과 합류할 계획이었다.⁴¹⁾ 그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전선은 나주를 근거지로 한 조일연합군과 장흥에 진을 친 농민군 사이에 형성되어 대치전을 앞두고 있었다.

12월 10일 나주에 들어온 일본군 제19대대 미나미 대장은 조일연합군을 크게 4개로 나누어, 한 부대는 영암→강진으로, 또 한 부대는 보성→장흥→강진으로, 또 한 부대는 나주 원정(元亭)→장흥부군→강진으로, 또 한 부대(이규태 선봉진)는 무안→목포→해남으로 12월 11일 오전 8시에 각각 출정하도록 하였다.⁴²⁾ 강진에 있던 농민군을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작전계획이었다.

나주에 집결한 진압군이 강진을 목표로 공격해오자, 농민군은 일단 직접적인 공격을 피해 보다 안전한 장흥으로 회군하여, 12월 12일 장흥 남문 밖과 건산 모정등(茅亭燈), 유치면 조양촌(현 유치면 소재지), 부산면 유앵동(유량리), 용산면 어산리 등지에 주둔하였다.⁴³⁾ 그에 따라 조일연합군 역시 공격목표를 강진에서 장흥으로 변경하여, 4개 부대가 각각 능주→장흥, 영암→병영→장흥, 나주 동창→장흥 유치면 조양촌, 나주 원정→장흥으로 진군하였다. 그 규모는 일본군 550명과 조선 정부군 240명 등 800여명 이상이었다.⁴⁴⁾

드디어 12월 12일 아침 조양촌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다. 조양촌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은 아침을 먹고 있던 일본군 3중대와 정부군 교도중대 일부를 기습 공격하여 영암으로 퇴각시켰다.⁴⁵⁾ 그날 저녁에는 히라기(白木城太郎)가 이끄는 일본군 대대본부 소속 부대가 제일 먼저 장흥읍내로 들어오자, 건산 모정등에 주둔해 있던 농민군과 접전이 있었다.⁴⁶⁾

40) 위위환, 총서 1, 429-430쪽.

41) <<右先鋒日記>>, 12월조 참조.

42) <<日本士官函牘>>, 12월 10일조; <<先鋒陣日記>>, 12월 12일조.

43) 위위환, 총서 2, 36-38쪽.

44) 위위환, 총서 2, 23-34쪽.

45) 위위환, 총서 2, 39-44쪽.

46) 위위환, 총서 2, 44-48쪽.

다음날 13일 새벽에는 남외리 남문 밖에서 전투가 벌어져 20여명의 농민군이 사살되었으며, 뒤이어 부산면 유앵동에서도 이사경이 이끄는 농민군부대와 일본군 사이에 접전이 벌어져 농민군이 큰 피해를 보았다.⁴⁷⁾

이와 같이 12월 12,13일 이틀에 걸쳐 4번에 걸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다수의 농민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수 삼만명의 농민군은 장흥 석대들로 총집결하였다. 그 주력부대는 남면에서 올라온 이방언부대였다. 이들은 일본군의 좌측지대와 중로지대를 공격하여, 쌍방간에 하루 종일 전투가 벌어졌다. 화력과 전투력에 밀린 농민군은



▲ 장흥 석대들전투지

일단 뒤로 밀려났다. 다음날 정오경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농민군은 재차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석대들에서 오후 내내 혈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수백명이 총에 맞아 죽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뒤 12월 17일 옥산촌, 19일 해남 등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등 간헐적인 공방전이 있었으나, 12월 14~15일 석대들 전투를 끝으로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의 대일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장흥 석대들전투 이후 조일연합군의 소탕전이 끝나 모든 군대가 나주로 돌아오는 1895년 1월 11일까지 약 26일 동안 장흥일대에서는 피의 살육전이 벌어졌다. 이 때부터 정부군과 지방관은 물론 일본군도 농민군을 붙잡는 대로 죽이는 방침을 취하였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⁴⁸⁾ 당시 장흥전투 이후 지방관들이 처형한 농민군으로 공식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장흥 300명, 강진 320명, 해남 250명, 나주 230명 등 1,100명에 이를 정도였다.⁴⁹⁾

실제 위의환에 의하면, 장흥지역에서만 확인된 실명 전사자는 357명, 무명 전사자 1,165명에 이를 정도였다.⁵⁰⁾ 일본군은 10월 17일 용산 출발부터 나주

47) 위의환, 총서 2, 48-53쪽.

4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53-54쪽.

49) 위 책, 62쪽.

50) 위의환, 총서 2, 241쪽.

를 떠나는 1월 11일(양력 11월 14일~1895년 2월 5일)까지 총 84일간 1/3이 넘는 32일을 나주에 머물면서, 장흥지역 농민군 진압과 잔여 농민군 색출·처형에 주력하였으니, 당시 농민군의 피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은 11월 하순에 기포하여 12월 1일 장흥 사창 총집결, 4일 벽사역 점령, 5일 장녕성 점령, 7일 강진현 점령, 10일 병영성 점령에 이어 14~15일 석대들전투를 끝으로 해산하여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흥 농민군은 1,500명 이상이 죽었으며, 수성군 역시 장흥부사 이하 500명이 죽고 관민가(官民家) 3,700여호가 불탔다.⁵¹⁾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11월 하순 장흥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일차적인 공격목표는 나주였으며, 그를 위해 장흥·강진을 점령한 뒤 영암을 거쳐 나주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장흥 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12월 초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차례로 체포되거나 살해되었고 주력부대 역시 속속 해산하였다. 이미 광주 뿐 아니라 순천이 무너진 상황에서, 장흥지역 농민군은 급속히 고립되는 상황이었다.



▲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반면에 일본군 미나미 대장이 총지휘하는 조일연합군은 원래의 작전대로 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단으로 격퇴하여, 농민군들이 장흥지역으로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12월 10일 조일연합군이 나주성에 입성하게 되면서, 나주에 진을 친 진

5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17쪽.

압군과 장흥에 근거지를 둔 농민군 사이에 최후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장흥 농민군은 해산하던지 최후의 결사항전을 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였으며, 결국 농민군은 구차한 삶보다 의로운 죽음을 택해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 승리자의 피의 잔치가 벌어졌다. 거기에는 어떠한 명분과 관용, 용서, 인권이 용납되지 않았다. 무자비한 색출과 처형만 있었을 뿐이다. 조선정부는 방관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살육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은 처절한 피의 역사로 끝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 - 향후 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

배 항 섭 (고려대학교 HK연구교수)

1. 머리말
2. 연구사 검토
3. 동학농민혁명과 향촌사회의 지배질서
4. 동학농민혁명과 여성
5. 결론에 대신하여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지역은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민보군에 대항하여 최후의 격전을 치룬 곳이다. 특히 석대들 전투는 우금치 전투와 더불어 가장 큰 격전지 가운데 하나이며, 이곳에서는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義旗를 들었던 수많은 농민군들이 스러져 갔다. 장흥지역 농민혁명운동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금치 전투나 황토현전투 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이미 식민지시기에도 장흥지역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1924년 『천도교회월보』에 실린 「천도교장흥군총리원」에는 석대 전투가 일어난 사실과 이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한 사람의 명단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¹⁾ 또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에 살

1) 「천도교장흥군총리원」, 『천도교회월보』 163, 1924년 4월

왔고, 천도교도였던 김재계도 1934년 역시 『천도교회월보』에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토대로 장흥지역 농민혁명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여기에는 김재계의 아버지와 삼촌이 농민군 대열에 가담한 사실, 대접주 이인환이 기포할 당시의 광경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²⁾ 이후 한 동안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이 멀어졌으며,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비로소 향토사가나 천도교 관계자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1973년 천도교 장흥교구에 의해 『갑오년동학혁명혈사』가 기록되었다. 이것은 24면에 불과한 필사본이지만, 여기에는 농민혁명에 가담한 장흥지역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이력과 농민혁명 당시의 활동, 기타 농민혁명에 가담했던 사람의 명단 등이 실려 있다. 또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천도교 관계자인 박석교, 향토사가인 김재열, 강수의, 그리고 송기숙, 문순태 등 문인들에 의해 석대들 전투나 대접주 이방언에 관한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³⁾ 그러나 장흥지역 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자료정리는 1990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⁴⁾

우선 1992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편찬한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 실린 박맹수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는 장흥지역의 동학포교과정부터 교조신원운동을 거쳐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집강소시기의 활동, 제2차 봉기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여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 1995년에는 우윤이 「장흥·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역사적 성격」(『호남문화연구』 23)을 발표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1996년에는 역시 박맹수가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 실은 글을 보완하여 장흥과 강진, 보성, 해남 지역의 농민혁명을 아울러 각 지역 동학농민군의 전개과정과 농민군의 활동, 그 의미를 아우르는 「남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을 발표하였다. 2000년에는 천도교 상주선도사였던 표영삼이 오래 동안의 현지 답사와 후손들에 대한 인터뷰, 관

-
- 2) 김재계, 「교사이문-갑오년 동학이야기」, 『천도교회월보』 271, 1934년 8월, 27-29쪽
 3)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위의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Ⅱ), 천도교 장흥교구·장흥군청, 2009, 473-479쪽 참조
 4)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편,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우윤, 「장흥·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역사적 성격」, 『호남문화연구』 23, 1995; 박맹수, 「남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표영삼, 「장흥지역 동학혁명연구」, 『동학연구』 6, 2000;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 2006; 위의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Ⅰ,Ⅱ), 천도교 장흥교구·장흥군청, 2009

런 자료 등을 토대로 「장흥지역 동학혁명연구」(『동학연구』 6)을 발표하여 장흥 지역과 강진 지역의 동학 포교 과정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등을 구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1996년에는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전남동학농민혁명사』의 공저자인 이상식·박맹수·홍영기에 의해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그 동안 발굴, 수집된 전라남도 각 지역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편찬한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2006)의 편집, 번역 책임자였던 위희환이 천도교 장흥교구와 장흥군청의 지원을 받아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Ⅰ,Ⅱ)를 발간하였다. 두 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의 이 총서에는 장흥지역으로 동학이 전파된 과정은 물론, 1862년의 민란부터 장흥지역의 민중운동 관련 사실을 비롯하여 교조신원동과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장흥지역의 관련 자료를 거의 망라하다시피 수집하고, 번역하여 시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자료집이며, 각 자료에 대해 혹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별도의 분석이나 저자의 생각을 밝혀두고 있어서 향후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이해는 크게 진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장흥 지역의 농민혁명이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데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들이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흥 지역 전투나 농민혁명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동학농민전쟁상을 한층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흥민란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장흥·강진 지역을 다룬 몇 편의 논문과 저작이 발표되었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후손증언록 등이 발간되어 장흥지역 동

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양상 등에 대해 비교적 충실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윤은 장흥지역 전투에 대해 당시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던 집권층, 조선 지배를 통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던 일본, 전근대적 향촌질서의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던 보수유생층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농민군 적대세력에 맞서 싸웠던 농민군의 최후 전투라고 하였다. 이어 장흥 석대들에서의 패배는 곧 농민군 권력을 창출하면서 폐정개혁을 실시하여 당시 조선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후 정국과 개혁의 주도권은 완전히 농민군의 손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였다. 또 이 점에서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투이면서, 이후 한국근현대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본격적 민족·민중운동을 끌어내는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고 하였다.⁵⁾

박맹수는 장흥 지역 농민군의 활동이 규모나 역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는 점, 손화중, 전봉준 등 최고지도자들까지 패배함으로써 농민혁명의 좌절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쟁하며 재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점, 장흥 일대 농민들의 열화 같은 호응과 성원, 장흥 인근 농민군들이 대규모로 합류한 점 등을 들었다.⁶⁾ 표영삼 역시 장흥 지역 민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강조하는 한편, 2차봉기 시에 금구의 김방서에 대한 지원요청과 지원병 도래를 비롯하여 화순, 능주, 보성, 영암, 해남 등 인근 지역 농민군들과의 초지역적 연대의식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⁷⁾ 위의환은 제1차봉기의 의의로 어느 곳보다 활발했던 집강소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서막을 열었다는 점,⁸⁾ 제2차 봉기의 의의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가 예견되고 살벌한 “토벌작전”이 전개되었지만, 농민군의 대의명분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점, 이후 장흥이 국난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돌파구와 시대의 징표를 마련하고, “文林義鄉” 장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⁹⁾

5) 우윤, 앞의 글, 107-113쪽

6) 박맹수, 앞의 글, 1996, 434-436쪽

7) 표영삼, 앞의 글, 56-57쪽

8) 위의환, 앞의 책(1), 183쪽

9) 위의환, 앞의 책(2), 332-333쪽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에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나 원인, 교조신원운동 시기 장흥지역 동학교도들의 참여 시기나 규모, 1차봉기 시기 장흥 지역 농민군의 참여 여부나 시기와 규모, 각 시기별 이방언 이사경 이인환 등 주요 지도자들의 동향, 특히 2차봉기 때 장흥지역 농민군의 참여 여부나 농민군 본대에 대한 원병 요청의 사실 여부나 실상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점들이지만, 장흥지역 전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상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흥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원인이나 전개과정에서도 장흥지역의 지역사정 - 예컨대 강진 등 인근 고을에 비해 보수적이었다거나, 종3품의 목사가 파견된 대응이었다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 이씨라는 특정 가문 출신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 등 - 과 연관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점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연구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가 당면한 내외적 모순의 총체에 규정되어 발발한 일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도 대체로 그러한 모순을 담지한 민중이 안으로는 봉건적 모순을 타파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 한국근대민족(운동)사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쪽으로 집중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윤이 “미시적으로 본다면 지역별 차이가 지역적 전투상황이라든지 집강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농민전쟁을 연구할 때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지방·지역사 연구는 후자에 더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지방·지역사 연구의 문제점이자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지역별 연구가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상,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이나 배경, 그리고 동원방식이나 투쟁양상을 포함한 전개과정 양상 등과 관련한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이나 농민군의 활동양상, 이후의 미친 영향 등을 지역사정과 밀착시켜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누구보다 먼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던 우윤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나 농민군의 활동 양상이나 의미 등을 지역적 특성과 연결한 파악이라는 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우윤은 일본군의 철저한 진압과 관군의 동조에 대한 농민군의 마지막 저항이요 사투였던 장흥·강진전투는 일본군과 관군 쪽에서는 준비된 일전이었고, 농민군 쪽에서는 회피할 수 없었던 일전이었다고 하며, 장흥·강진지역의 전투를 ‘집강소 활동기’와 ‘2차 기병 결정과 농민군 복상 시기’, ‘구원군의 도착과 퇴각 농민군 합류시기’로 나누어 시기에 따른 양상과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런 전투를 조건 짓는 요인으로 동학교단의 조직과 교세에 주목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전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흥·강진 지역의 특수성으로서 병영과 수영, 벽사역 등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세력이 강하고 수탈이 심했다고 하지만, 역시 이 점은 주관적 요인으로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장흥·강진전투는 객관적 요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자체 농민군 역량의 보존과 외부 농민군의 대거 유입, 구원군의 도착, 그리고 일본군의 강경한 진압이 맞물린 결과로서 일련의 전투과정으로 발전하였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¹⁰⁾ 여기서는 외부농민군이나 구원군의 유입, 일본군의 강경한 진압 등 외부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지적인 상대적으로 강했던 보수층의 존재, 장흥 및 인근 강진에 위치한 병영과 수영, 벽사역의 존재 등이 선언적으로 나열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을 뿐 이것이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이나 특성, 의미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우윤의 연구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구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서는 이점에 유념하면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지역사회의 지배질서라는 맥락에 위치시켜 파악해보고자 한다.

3. 동학농민혁명과 향촌사회의 지배질서

10) 우윤, 앞의 글, 111-113쪽

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집안의 사람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심지어 祖·父·孫 삼대가 같은 날 전사할 정도로 멀문지화를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정 성씨 집안이나 지역의 유력 가문이 동학농민혁명의 주도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지역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장흥 지역은 특히 두드러진다.

우선 장흥지역을 대표하는 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핵심인물인 이방언과 이사경, 이인환¹¹⁾등 인천 이씨가 많다. 인천 이씨는 지역사회를 주도한 성씨 가운데 하나였다.¹²⁾ 뿐만 아니라 인천 이씨 집안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고, 또 동시에 여러 명이 희생된 사례가 많다. 우선 이방언의 경우 체포된 뒤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석방되어 귀향하여 보성으로 피신해 있다가 1895년 4월 당시 전라감사 이도재에 의해 다시 체포되어 그의 아들 이성호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¹³⁾

용반접주 이사경의 집안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는 이사경의 집안이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반접주 이사경은 대물림 접주이다. 그의 부친이 또한 접주로 휘하 막료들이 지극히 따르는 등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나 연로하여 체력이 한계에 이르자 고부의 동학 진영에서 낙향하여 용반리에 돌아왔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휘하 동학군들이 이 접주를 따라 용반리에 들어왔고, 이 접주의 아들인 이사경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있고 인품 또한 넉넉한 것을 알고 접주로 추대하여 계속 모셨다.”¹⁴⁾

이는 이사경의 집안에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사경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민군으로 가담하였

11) 이인환의 경우 인천이씨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족보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인환의 출신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위의환, 앞의 책(1), 312-338쪽 참조

12) 장흥 지역 인천 이씨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이용기,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서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13) 이와 관련된 자료와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위의환, 앞의 책(2), 209-222쪽 참조

14) 용반마을지 편찬위원회, 『우리의 보금자리 지와물』, 1990, 57-58쪽. 『지와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처형된 이회근의 손자 이만기(1922 ~ 2000) 등 마을 어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종선(1934년생, 장흥군 용반리 309번지)이 198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990년에 출판한 책이다.

고, 이사경 본인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이호인과 숙부인 이호의, 이호신 등 5명, 혹은 그의 조부인 이석년까지 포함할 경우 6명이 농민혁명에 가담하였다가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¹⁵⁾

이보다 훨씬 기막힌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알려진 사육신 박광년의 후손인 고실의 순창 박씨가 사례이다. 당시 장흥 대덕면에 살던 박광오 집안에서는 16명이 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광오의 경우 본인과 아들 영근, 손자 권채가 함께 참여하였다가 12월 12일 같은 날 장흥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또 이들의 전사 소식을 접한 祖·父·孫의 부인 삼대가 함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광오의 사촌 동생인 광률의 경우 본인은 12월 12일 전투에서 광오와 함께 전사하였고, 광오의 6촌 동생인 재성의 경우에도 본인은 농민혁명 이후 부용산으로 피신하였으나, 관군의 수색에 발각되어 1895년 6월 부용산 능선에서 전사하였으며, 그의 차남 양진은 강진군 대구면 쪽으로 피신하였으나 관군의 수색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또 장남 순진과 삼남 항진은 모두 석대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삼남의 경우 체포되어 고문까지 받았다. 양자 모두 부상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농민혁명이 끝나고 각각 5년 후, 17년 후에 사망하였다. 그 밖에도 역시 광오의 6촌 동생인 재순의 경우 본인은 형 재성과 함께 부용산으로 피신했다가 수색과정에서 전사하였으며, 장남 흥진은 강진 쪽으로 피신했다가 역시 수색과정에서 행방불명되었다. 광오의 또 다른 6촌 동생인 화성의 경우 자신은 전 재산을 농민군의 군자금으로 헌납하였고, 그의 아들 상진은 장흥전투에 참전 후 12월 13일 응치 쪽 전투에 참전하여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또 광오의 6촌형인 상률의 경우 인천이씨 집안으로 장가갔으며, 농민군에게 군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박광오의 집안에서는 모두 16명이 농민혁명에 참전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투 중이거나, 수색과정에서 전사한 사람이 6명, 행방불명이 3명이며, 남편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사망한 부인들 3명을 합할 경우 모두 12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2명은 부상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가 사망하였다.¹⁶⁾

이 밖에도 이사경 접주가 활동하던 용반접 산하의 자라변지 마을의 경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앞서 언급한 용반 마을지 『지와물』에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로 이호인, 최창업, 이원중, 이호의, 이세근, 이회근, 이호신, 이사경, 이수

15) 위의환, 앞의 책(1), 241-248쪽

16) 필자는 후손인 박완식씨를 몇 차례 만나 면담한 바 있다. 또 박광오 집안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희생, 그에 얽힌 일화에 대해서는 위의환, 앞의 책(2), 364-378 참조.

공, 이몽근 100명이지만,¹⁷⁾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전사하였으며, 마을 전체가 사실상 폐호가 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장흥지역 농민군 활동의 거점이었던 용반리에서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인천 이씨를 비롯하여 많은 농민들이 농민혁명에 가담하였으며, 그 중심 인물은 이사경 접주였다. 이 과정에서 용반리 출신 농민군들 가운데 전사하거나 처형된 사람이 다수이며, 동학농민혁명이 끝날 무렵 당시 용반리를 구성하던 270여 호 가량의 가옥 가운데 3집을 제외한 마을전체가 불타버렸다고 한다. 불타지 않은 3집은 빈소가 설치되어 있던 어떤 집의 아래채, 집을 막 지어 지붕만 덮어 놓은 집이라 불을 질렀으나 지붕만 타고 집채는 타지 않은 집, 마을 뒤편으로 멀리 떨어진 배밭골에 있었고 너무 허술하여 그냥 둔 집 등이었다.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다고 한다. 이연기(참여자 이세근의 손자, 1938년생) 옹은 젊었을 때에 마을에서 떡공장을 했었는데, 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부인네들이 “갑오동학” 때 돌아가신 어른들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떡을 맞춰갔으며, 이 날이 기일인 사람이 14명이었다고 한다. 이세근의 제사도 1월 14일에 지내기 때문에 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1월 3일에도 9집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 이회근의 집은 장흥부의 향리 길씨가 강제로 빼앗아 가서 사람이 살던 집터에 묘를 썼다고 한다. 길씨 집안에서는 지금은 모두 이장하였지만, 이회근의 집 외에도 마을 뒷산 두 군데에도 묘를 썼다고 하며 이회근의 집터에는 지금까지도 길씨 집안의 묘가 있다. 이에 대해 동네에서는 모두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 묘가 있어 마을이 못산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이야기는 온 마을에 전해져오고 있으며,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일자도 모두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 『지와물』의 편집자 이종선씨에 따르면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은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까지 유족들에게 피해가 있었으므로 족보에는 사망 일자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기록하여 갑오년이 아닌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고 있다.¹⁸⁾ 앞서 언급한 이세근 역시 족보와 『지와물』에는 1893년 1월 5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손자 이연기에 따르면 이세근의 제사일인 1월 14일이라고 한다. 또 『仁川李氏世譜』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말 혹은 1895년 초에 전사하였거나 혹은 체포되어 처형된 사람들의 사망 날자가 이호의(1851 - 1893.12.29), 이호신

17) 용반마을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58쪽

18) 『지와물』, 58~59쪽 참조

(1857 - 1893.1.7), 이세근(1853 - 1893.1.5), 이회근(1854 - 1893.1.19) 등과 같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가 전사한 이원종의 증손 이춘옥(1931년생, 전남 장흥군 용반리)에 따르면, 족보에는 증조모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둘째 증조부 이원찬도 용산면 율리미라는 곳에서 싸워 사망했으나, 족보에는 그의 처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다음에도 집요하게 이어지는 관과 보수세력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망일보다 1-2년 정도 앞 당겨 사망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과 무관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교육책에 다름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거대한 역사의 격랑 속에서 고통에 찬 세월을 보내야 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처형된 시신들은 추운 겨울 날씨 탓으로 푹푹 언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가족들과 동네 아낙들이 거지 등으로 변장하고 찾아가서 한 사람은 머리, 한 사람은 발 부분을 이고 걸어서 마을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⁹⁾

장흥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강진 유생 박기현이 남긴 「일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日史」에 따르면, 석대 전투 직후 장흥 강진 지역의 관속들이 “동학 마을을 불사르고 가신을 몰수 하거나” “동학이라 핑계하여 사람들을 죽였고”, “멋대로 토색“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은 마을은 용반 마을이었다. 그것은 “강진 병사가 윤권중 4부자와 그 처의 목을 베어 營中을 경계하는 한편 그 머리를 용반리 동학 마을로 보내 그 불을 질은 죄를 성토했다”는 기록에서 분명히 확인된다.²¹⁾ 이는 온 마을에서 3채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렸다는 용반 마을에 대한 구전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 김재계도 이와 관련하여 “어느 곳에서는 한 동리가 함몰했다, 삼부자가 한 총에 죽었다는 등 참으로 어수선하였다”고 당시의 사정을 기억하였다.²²⁾ 이 역시 온 마을이 불타 폐허가 되어 버린 용반리의 사정이나, 三代가 전사하고 그 시신을 찾으러 간 祖·父·孫 삼대의 아내들까지 총에 맞아 절명한 고실 박씨의 사정과도 부합한다.

19) 필자의 면담. 이춘섭(이사경의 손자, 1935년생,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239), 이연섭(이사경의 손자, 1938년생). 일시 및 장소 : 2006.7.28 금요일 9시 40분~12시 50분 / 이정태(증손자)씨 자택 및 마을 정자

20) 「일사」, 12월 15일, 16일, 17일조. 일사는 2002년 강진군의 지원을 받아 박맹수 교수가 번역하여 『강역일사』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번역본에 의거하여 인용하였다.

21) 「일사」, 12월 13일

22) 김재계, 앞의 글, 1934, 28쪽

용반 마을 주민들과 길씨 집안과의 관계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향촌사회의 갈등 관계를 반영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나 동학농민혁명이 향촌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세기 후반부터 사족지배질서가 와해되어 가면서 사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세는 그 이전과 달라졌다. 최근 장흥지역(용산면 어서리) 사회에 대한 중기사적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들어 장흥지역의 동계에서도 신분제적 지배의 성격이 탈각하고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이씨의 경우 19세기 후반까지도 향촌사회운영의 주도권 장악하고 있었다.²³⁾ 이러한 상황이 특정 성씨의 지도나 집단적 참여를 비롯하여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이나 농민군의 활동양상, 그 이후의 영향 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한편 명망가는 아니더라도 군현을 넘나들며 조정자로서의 역할, 때로는 詐欺 騙財者 등으로 표현되지만, 이들이 “문營문邑을 業으로 삼는다”고 한 대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원이나 분쟁해결에 앞장서는 자, 향촌사회에서도 반드시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자가 존재했다. 더구나 이방언과 같은 인물은 학덕을 겸비한 명망가였다. 박석교에 따르면, 흥년이 들었는데도 重稅와 관리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이방언은 장흥군수를 방문하여 감세를 陳情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전라감사를 찾아가 담판 끝에 그의 출신지인 남상면 일대의 감세를 받아냈다는 일화가 있다.²⁴⁾ 이방언의 조세감세 노력은 유력 사족 혹은 명망가로서의 이방언의 평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한 지역 명망가나 양심적 사족들이 어떤 현실인식 속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그런 역할을 수행해 내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잘 알려진 김한섭과의 갈등, 대립도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한 쪽은 양심적, 선각적이고 다른 쪽은 비양심적이고 구태적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도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벗어나 양자 간의 분기가 된 사정을 향촌질서나 사족의 사유체계 속에서 찾아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향촌 사회질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제도”나 기구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 아래서 작동되는 보이지 않는 질서 내지 관계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3) 이용기, 「19세기 후반 반촌 동계의 기능과 성격 변화」, 『사학연구』 19, 2008

24) 박석교, 앞의 글, 32쪽

4. 동학농민혁명과 여성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젠더 문제나 여성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언급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에 참여한 여성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여성들의 사정에 대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부터 근대이행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빈발한 다양한 민중운동 연구에서 여성의 참여가 뚜렷이 드러나는 사건은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재수의 난”이 거의 유일하다.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재수의 난”에서는 무녀·기녀·첩 등의 하층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²⁵⁾ 제주성에서 내응한 주역은 여성이었다. 女陣·男陣으로 각기 천여 명이 쫓겨났는데, 지휘를 한 것은 여진 중의 作頭였고, 성 위에 올라가 포문을 철거한 것도 여성이었다.²⁶⁾ 또 수 천명의 여성들은 6월 15일에도 시위대 대대장을 찾아왔다. 이들은 병사들에게 ‘倭나 漢(청)의 병사와 같이 백성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하며, ‘民瘼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매일의 안락에 골몰하는 것이냐’라고 야유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언행에 대해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몸으로 이 민란을 보고 들었던 개화파의 인사 김윤식은 ‘이 지역의 女風은 참으로 심하게 나쁘다’라고 비판하였다.²⁷⁾ 이에 대해 김양식은 무녀나 기생, 첩 등이 종교적·사회적·문화적으로 천주교에 대해 이질감을 강조하였으며,²⁸⁾ 조정달은 대한제국에 들어 민중들에 의해 형성되어 가던 선비의식이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이재수의 난 이외의 민중운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은 동학농민혁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여성의 참여와 투쟁에 대한 언급한 것은 조정달의 연구가 거의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달은 농민군의 평등주의 투쟁이 여성해방의 지향도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바로 장흥지역에서 체포된 이조

25)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 6, 150쪽

26) 김윤식, 『속음청사』 상, 573쪽

27) 김윤식, 『속음청사』 상, 589쪽

28) 김양식, 앞의 글, 150쪽

29) 조정달 지음, 하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한국근대민중운동사』, 역사비평, 2009 148쪽

이(李召史)의 활동을 근거로 한 것이다.³⁰⁾ 조정달은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가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논하지 말고 그 자유에 맡길 것”이라는 의안을 의결한 것도 이조이 같은 여성들이 농민군에 참가하여 싸웠기 때문에 얻어낸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³¹⁾ 최근에는 위익환이 이조이에 대해 “유관순 열사보다 항일운동의 선배로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반드시 자리매김 시켜야할 인물”이라고 하였다. 이조이에 관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흥의 民人 등이 잡아 바친 여자 동학은 그들이 ‘神異夫人’이라 일컫는데, 요사스런 말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한 일대 요물인지라 이달 초1일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진영 대대로 압송하였습니다. ‘여자 동학 李召史의 남편을 급히 나주 감옥으로 보내어 그 아내의 병을 살피게 하라는 일’을 명령 받았으나, 그가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다소 늦어져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보낼 계획입니다.”³²⁾

“長興 전투의 틈을 타서 縣監을 죽인 것은 여자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 東學은 사실 미친 사람이었는데, 東學徒들이 옹립해서 天使로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중략) 그 미친 여자는 좌측지대에 소속되어 순회하던 招募官 伯樂中이란 자가 붙잡아 민병으로 하여금 엄하게 糾問하게 하였다. 그 전부터 조선에서의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고는 들었지만, 이 여자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다. 양쪽 허벅지의 살을 모두 잘라내어, 그 한 쪽은 살을 아주 잘라내서 뼈만 남고 또 다른 한 쪽은 피부와 살이 금방 떨어져 나갈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가 압송되어 羅州城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거의 죽은 송장 같았다. 이 伯樂中은 雲峰에서 나와 食糧·兵舍·道路 등에 관해 우리 군대의 조달을 맡은 자로서 여러 곳을 수행해 왔지만, 그의 거동이 분명하지 않아 그 점을 본인에게 규명·조사해 보았더니, 巡撫營으로부터 하부 받은 완전한 사령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미친 여자는 崔童子와 같은 날 도착했다. 상처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대소변은 앓은 채 나오는 대로 내버려두었으며 입은 것이라고는 흰옷 한 벌 뿐으로, 그

30) 이조이 관련 사료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위익환, 앞의 책(2), 222-230 참조

31) 조정달 지음, 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 2008, 235-236쪽

32)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3일, 4일 『총서』 15, 332쪽, 337쪽

참담한 꼴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무참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 문명한 모든 나라에서는 부녀자에 대해서는 비록 죄수라 해도 대우 면에 있어서 얼마간은 관대하므로, 羅州에 도착한 뒤 그 여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였다. 여러 가지 심문한 끝에 그 여자가 정신착란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崔童子는 의사의 주장으로 그 다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하기에 발목을 잘랐는데, 정신이 착란 되어 감각이 둔해졌던 탓인지 뜻밖에도 그 큰 상처가 완치되었다.”³³⁾

이외에도 1895년 3월 5일자 일본 「국민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학당에 여장부가 있다. 동학당의 무리 중에 한 명의 미인이 있는데, 나이는 꽃다운 22세로 용모는 빼어나기가 傾城之色의 미인이라 하고, 이름은 李召史라고 한다. 오래 동안 동학도로 활동하였으며, 말을 타고 장흥부가 불타고 함락될 때 그녀는 말 위에서 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꿈에 天神이 나타나 오래된 祭器를 주었다고 하며, 동학도가 모두 존경하는 神女가 되었다.”³⁴⁾

여성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남편이나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거나 잡혀가서 문초를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여도 적지 않다. 장흥의 농민군 지도자 이인환의 경우에도 그의 부인 유소사가 남편 대신 잡혀가 고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역시 장흥의 고실 박씨의 사례에서는 남편들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조부손 삼대의 부인들이 모두 총을 맞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또 신례원 전투에서는 관군의 밥을 해주던 노파가 농민군에 내응하여 관군이 잡든 사이에 포신에 물을 붓고 도망하였으며, 이 탓으로 다음 날 전투에서 관군이 포를 쏘자 포문에서 포탄이 아니라 물이 나왔고, 이때부터 “동학군은 호풍환우의 術이 있어서 능히 대포구멍에 물이 나게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³⁵⁾

이러한 사례들도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한층 다양한 시각에서,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53쪽

34)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499쪽 ; 번역은 위익환, 앞의 책(2), 227 참조

35) 靑吾, 「東亂雜話」, 『신인간』 1, 1926년 4월, 55-56쪽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나아가 여성들의 시각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입각한 시각이 요청된다.

앞서 언급한 이소사의 사례만 하더라도 그녀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이 사료에서 확인된다. 설사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농민군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농민군들이 그녀를 신이부인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쨌거나 남존여비의 인식이 여전하던 당시로서는 파격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 자신들의 자기 정체성 인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점에 접근이 요청된다. 이러한 고민이 축적될 때 조정달이 언급한 “선비의식이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나, 갑오개혁이 여성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지적도 그 구체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배경과 전개과정, 농민군의 활동양상,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 예컨대 각 지역별 동학농민혁명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료의 발굴과 조사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해명 등 아직까지 해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이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가장 소홀히 했던 점은 동학농민혁명이 미친 영향과 관련한 분야일 것이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그 이후에 전개된 한국근대의 민족·민중운동사, 예컨대 의병전쟁이나,³⁶⁾ 식민지시기 이후의 3.1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 해방 후의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혁명의 경험과 정신이 면면히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36) 최근 들어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련성을 강조해오던 기왕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발표되었다(이상찬).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규모의 민중운동과 그 경험, 곧 농민군은 물론, 반농민군,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모든 조선인들, 그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향촌사회, 나아가 조선사회 그 자체 등의 경험이 이후 그들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하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반봉건 반외세”를 지향한 최초의 대규모 근대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또 그 정신이 이후 민족(민중)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에 따라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사실관계의 해명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민중운동은 다른 한편 그를 통해 그것이 일어났던 당시 사회를 역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운동이라는 비일상적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던 그 당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구조나 사회관계, 인간관계, 의식, 특히 민중의식 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³⁷⁾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이나 관련 인물들의 행적과 내력, 인근 지역과의 관계, 농민군 “본대” 혹은 “주력부대”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의 확보가 요청된다. 이를 테면 “중양으로부터 지역”이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중양”, 혹은 “농민군이라는 시각의 확보, 그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지역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접근될 때 중양 차원에서 근대이행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다양한 모습이나 특징이 포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점에서 장흥 지역은 풍부하고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과 여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지역으로부터의 시각, 여성문제 대한 새로운 시각은 결국 민중사에서 말하는 “위로부터의 역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시각과도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37) 신영우, 「19세기 영남 금산의 양반지주층과 鄉內 사정」, 『동방학지』 70, 1991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접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³⁸⁾ -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

나카츠카 아키라 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맹수 선생의 권유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2006년)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원광대학교 학생 제군들에게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탁받은 강연 주제는 「현대일본의 역사인식-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일본인 역사연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작년에는 오늘 강연 주제와 똑같은 제목의 저서도 출판했습니다.(『現代日本の歴史認識』, 高文研, 2007年 5月) 그러나, 오늘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 조금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분들은 오늘의 일본인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일본인인 나에게서 듣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나 듣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전직 기자로 한국·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 온 이마즈 히로시(今津 弘)씨의 저서 『저널리스트, 그다정함과 군셈』(1998년)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마즈 씨가 신문기자 시절에 만났던 많은 한국의 저널리스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전 동아일보 사장

1) 이 글은 2008년 8월 13일 모심과 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초청강연 원고입니다.

이었던 권오기(權五琦) 씨의 발언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히신문사가 1995년에 ‘전후(戰後) 50년’ 기획의 하나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 「신문과 전쟁」에 참가한 권오기 씨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 50년’이라고 해서 전 매스컴이 나서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왜 일본의 여러분들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 무엇을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 동학당 봉기가 시작된 백 년 전의 청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일본의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권오기 씨의 발언은 한국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일본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건망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말씀드려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세기에 걸친 내 자신의 연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한국의 여러분들과의 모임이므로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나의 이야기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이 있으면 강연이 끝난 뒤에 꼭 들려주셔서 이 모임이 상호 대화(對話)하는 자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일본의 천황제와 역사연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45년 패전까지 천황(天皇)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권자였습니다. 국민은 ‘국민(國民)’으로 불리지 못하고 천황의 종자(從子)를 의미하는 ‘신민(臣民)’으로 불렸습니다. 천황은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講和)를 맺는 것도 천황의 권력행사의 하나였습니다. 그 종자들인 ‘신민’은 ‘국가의 대사, 군의 기밀’

등은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되었으며, 역사학자도 예외가 아닌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황제 지배 아래에 있던 일본에서 천황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의 일단입니다. 내가 패전 직후에 역사공부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특히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 1905-1977)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1905년생인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은 없었지만 두뇌 명석하고, 그 위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가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와도 일찍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던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부터입니다.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모두 조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 가운데 재일(在日) 조선인 노동자와 교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기간 중 야마베(山邊) 씨는 ‘예방구금소(豫防拘禁所)’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만, 최후까지 천황제에 대한 굴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뒤에야 가까스로 출옥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향(非轉向) 사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비전향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어딘가 딱딱한 인물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진난만,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사람, 일체의 권위와 명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예방구금소’에서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천해(金天海)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마베 씨는 천황 및 국가구조로씨의 천황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황제 아래의 일본에서 출판된 모든 책과 사료집 등에는 그 어떤 고명(高名)한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짓과 왜곡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제 1차 사료를 찾아 그것에 근거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또 “천황제의 전제지배 아래에서 2차대전 패전까지의 일본 사회과학계는 조선 문제,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히 미약하다,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 문제, 식민지지배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일본자본주의 발달사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패전 뒤에 가장 일찍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런 연구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일한병합소사(日韓併合小史)』(1966년), 「일본통치하의 조선(日本統治下の朝鮮)」(1971년, 모두 이와나미 신서)으로 공간(公刊)되었습니다.

야마베 씨의 연구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사」에 관한 연구로, 한국·북한을 내재적(內在的)으로 본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일한국·조선인의 ‘조선사 연구자’ 측으로부터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조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제 1차 사료를 널리 찾아내어 일본의 조선침략사 연구에 어느 정도의 계통적(系統的; 체계적) 전망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상(史學史上) 그는 개척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제1차 사료에 근거한 나의 일본근대사 연구

나는 1960년대에 야마베 씨와 함께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에서 공개되고 있던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관계문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입니다. 그가 남긴 자료를 패전 후에 그의 손자인 무츠 요우노스케(陸奥陽之助)씨가 헌정자료실에 양도했습니다. 패전 후 헌정자료실에서는 오쿠보 토시아키(大久保利謙, 1900~95, 메이지유신의 지도자인 오쿠보 토시미치 大久保利通의 손자로 패전 후 대학의 역사학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씨들의 방침으로 일본근대의 정치가, 군인 등의 소장 문서를 정력적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 관계문서를 중심으로 한 1960년대 나의 역사 연구는 『청일전쟁 연구(日清戰爭の研究)』(靑木書店, 1968년)로 공간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 관계문서’ 연구는 내가 제 1차 사료를 풀(pool)로 활용한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당시 공간되어 있던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등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과 정치가의 서간 등, 제 1차 사료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더욱이 그 조사는 대단히 재미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같은 제 1차 사료의 발굴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청일전쟁으로부터 꼭 1백 년째에 해당하는 1994년,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福島縣)립도서관의 사토(佐藤)문고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육군 참모본부 - 구 일본 육군의 전쟁지도 최고기관 - 가 쓴 「일청전사초안(日清戰史草案)」이 소장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사 연구는 몇 개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토문고 조사도 커다란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 성과는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歴史の偽造をただす)』(高文研, 1997년)로 출판했습니다만, 이 책이 출판될 무렵 일본 홋카이도대학에 유학중이던 박 맹수 선생의 눈에 띄어 박 선생의 손으로 2002년에 서울의 푸른역사 출판사로부터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전문(全文)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최초의 계획적인 무력행사(武力行使)가 (청나라와의 해전인 풍도해전이 아니라; 번역자 주) 서울의 왕궁, 즉 경복궁 점령이었다는 사실을 일본 참모본부가 쓴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일본 참모본부가 1904년에 공간한 『메이지 이십칠팔년일청전사(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에는, 일본군이 1894년 7월 23일(음력 6월 21일; 번역자 주) 새벽, “한국 병사의 발포를 받고 응전한 우발적이며 극히 소규모적인 충돌사건”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보호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사토문고 소장의 「일청전사초안」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초안에는 재조선(在朝鮮) 일본공사관(지금으로 말하면 주한일본대사관)과, 이미 출병해서 용산(龍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혼성여단과의 사이에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계획되었으며, “국왕을 포로로 하기” 위하여 왕궁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쓰여 있고, 일본군이 경복궁의 서쪽 문인 영추문(迎秋門)을 파괴하고 왕궁으로 돌입하는 상황도 대단히 생생하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군 최고기관인 참모본부가 쓴 기록에 의해, 참모본부가 공간한 전사(戰史)의 기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에는 이 같은 위조가 참모본부 부장회의(部長會議)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왕궁점령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청일전쟁을 벌인다면 천황이 발(發)한 ‘선전조칙(宣戰詔勅)’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쓰라”는 참모본부 부장회의의 결정이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구 일본 육군의 기록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군부(軍部)가 전사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위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청전사초안」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현립 도서관 사토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戰史編纂綱領)」이라는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4. 역사의 위조를 자정(自淨)하지 못하는 ‘전후의 일본’

이와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한 역사위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력자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해 온 것으로 일본만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혁명으로 권력자가 타도된다든지, 또는 전쟁으로 인한 패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권력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혁신적 역량에 의해 이 같은 위조는 바로 잡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역사인식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대 패배를 한 일본은 메이지(明治) 이후의 일본이 자행해 온 역사 위조를 청산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에서는 그 같은 역사인식의 근본적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전 후 오랜 기간 일본 수상을 맡았던 외교관 출신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는 일본의 패전은 ‘메이지의 유산’ 이 아니라, ‘메이지에 대한 배신’ 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의해 구축된 근대일본의 대국화(大國化) 성과와, 만주사변(1931년에 시작되는 중국 동북부에 대한 침략전쟁) 이후 패전에 이르는 역사는 상호 관련이 없다. 만주사변 이후의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의해 구축된 성과를 배반했기 때문에 패전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본근대사 이해는 오늘의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 시바 요타로(司馬遼太郎) 등으로 대표되는 ‘쇼와의 굴욕’에 대해 ‘메이지의 영광’이라는 식의 역사 이해가 널리 세간을 물들이고 있으며,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조차 지지를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패전 후 일본이 메이지 이후의 근대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미국이 소련에 대해, 또 중국혁명이 성공하고 나서는 그 중국에 대해, 일본을 ‘반공 방벽’으로 삼는 전략에서 일본을 점령했던 사실. 그러기 위해 천황제의 온존(溫存)에 대해 극히 유화적이었다는 것.
- (2) 쇼와 천황을 비롯하여 일본의 구정치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안심하고, 전후 재출발했다는 점, 그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진 과거의 침략전

쟁에 대해,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에 대해 육군의 일부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천황을 포함하여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패전 후의 나날을 용케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 (3) 더욱이 미영(美英)과의 협조야말로 일본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메이지 시대부터 배양해 온 일본국민 자신의 역사 이해와 감각이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재검토(再檢討)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가 상승 작용을 하여 권오기 씨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태도”로 패전 이후를 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 이해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데도 일본인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들어 있습니다.

- (1) 청일·러일전쟁을 거쳐 ‘세계 5대강국’의 하나가 된 일본이 사실은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 (2) 또 조선침략의 역사를 은폐해 온 근대일본의 ‘역사 위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 (3)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재침(再侵)’을 연상시키는 근대일본의 조선침략에 맞서 봉기했던 한국·북한의 항일민족투쟁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래 한국·북한의 변혁적, 민족적 대중투쟁의 모습과 그 역사적 의미가 전혀 이해되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오기 씨가 “왜 일본의 여러분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 무엇을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 동학당 봉기가 시작된 1백 년 전의 청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일본의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북한 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문제, 일본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5. 자정하지 못하는 역사인식은 일본의 현실에 ‘경색증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북동아시아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여 이 지역에 진정으로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실현하려는 획기적인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개국 협의의 합의에 근거하여 ‘핵계획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것을 받아들여,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고했습니다.(해제 기한이 8월 11일이었지만 미국은 끝내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일본 측의 집요한 방해공작도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8월 13일 강연 자리에서 나카츠카 교수님이 구두로 지적한 내용; 번역자 주)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적(對敵) 통상법’ 적용도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이래 실로 55년에 걸쳐 북한에 가했던 경제제재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구조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역사, 나아가서는 북동아시아 전역에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매스컴은 이 역사적인 빅뉴스에 대해 차가운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되로 밀릴 염려가 있는데 미국이 어찌 그럴 수 있나? 미국이 일본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라는 불만을 늘어놓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역사적 대전환의 의미를 받아 들여 일본 독자적인 외교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쉐러리맨들이 흔히 읽고 있는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미 정부는 북한의 테러국가 해제를 재고하라” 는 사설을 게재하여 정면으로 미국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설은 미국의 결정은 “북한의 의도대로의 전개” 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에 대한 미일간의 위협 감각의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위협 감각의 공유야말로 동맹(同盟)의 전제인데, 그것이 없다면 미일안보조약은 종이조각에 가깝다” 며 부시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메이지(明治) 이래 일본은, 조선은 대단히 뒤떨어진 정체된 사회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근대적 국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保護)’하지 않으면 제 3국 세력 아래 놓이고 말아 일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

다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이런 논리는 조선의 민족적인 자주성·자립성을 단 한 구석도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써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런 견지(見地)에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을 중국과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침략의 손을 중국의 동북(만주)으로까지 뻗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씨앗을 뿌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성실하게 바로 잡는 일 없이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부시대통령의 이번 발표의 의미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중의 조선인 강제연행문제, 여자 정신대문제(중군위안부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채, ‘일본인 납치문제’ 만을 선전하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매스컴은 모두 ‘북한 위협론’ 을 내세움으로써 바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공동 군사행동(집단적 자위권 문제) 기도를 실현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아베(安倍) 내각은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아베 수상이 “자문의 검토과제로 제시한 문제 네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 첫째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자위대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이 격추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흡사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 것처럼 자문함으로써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국 헌법 제 9조의 폐기로 연결시키려는 사전준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적대시정책은 북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본 자신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인식, “자업자득” 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되돌아봅시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걸 무대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만, 그 무대 뒤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각국 수뇌가 기민, 그리고 적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매스컴이 일체가 되어 제재로 내달린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이드 쇼(wide show)로 ‘북한 핵

실험' 을 되풀이해서 방영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언제 미국이 군사제재를 단행할 것인가, 레드 라인(red line)은 언제일까, 선박검사가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언제 전쟁의 화문(火門)이 깨질 것인가” 라는 내용만을 논의하여 일본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6. 맺음말 : 한일 시민들이 연대하여 북동아시아 평화 실현의 길을 걸어가자

일본에는 “지금 일본은 만주사변 전야의 시대와 닮아 있다” 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년래 일본의 우경화(右傾化)를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목소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주사변(1931년 9월)이 일어나기 전, 유력 신문사 대표들과 육군과 외무성 고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주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군무국장으로 나중에 조선총독이 된 코이소 쿠니아키(小石幾國昭, 1880 ~ 1950)는 “일본인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아도 (전쟁의) 화문(火門)을 열기만 하면 따라 온다” 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코이소의 의도대로 일본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의 화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북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 우파(右派) 정치가와 배외주의적(排外主義的) 저널리스트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라도 그들의 원망(願望)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인 사이에서도 ‘일본국 헌법 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며,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기(放棄)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것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지키는 운동이 커다란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0일, 노벨상 수상작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씨 등 9명이 호소한 ‘9조의 모임 어필’을 지지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려는 다양한 ‘9조 모임’이 일본 전국에서 탄생하여 그 수는 지금 7천을 넘고 있습니다.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9조를 지켜라’ 는 목소리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정정(政情), 국민들의 역사인식에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한 측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속에도 일본헌법을 고쳐 군사적으로도 해외파병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획책이 지금도 있으며, 금후로도 계속되겠지요. 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들은 새로운 평화와 연대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 양국 시민들에 의한 시민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과거의 역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 동학농민군의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투어를 기획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박 선생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2002년이 처음이었습니다. 3년 전(2006)부터는 매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일본인들은 전주(全州)를 비롯한 각지의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 기념비 앞에 서서 박 선생의 설명을 듣고, (일본인인) 자기 자신의 역사이해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일 시민교류에는 여러 분야, 여러 가지 기획이 있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는 동학농민군 전적을 방문함으로써 근대일본의 조선침략, 거기에 맞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조선의 민족적인 역사를 배우는 일은 일본인 사이에 결락(缺落)된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대단히 적절한 교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의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지정 기념 학술대회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발행일 : 2009년 10월 20일

발행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운현신화타워 503호

연락처 : TEL (02) 737-1894 / FAX (02) 732-1894

이메일 : dpr1894@hanmail.net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